

“장로교회, 말씀 따르고 거룩하게 되어 주님 섬기자”

한장총, 9일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개최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 환 목사, 이하 한장총)가 지난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롬 12:11)라는 주제로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을 개최했다.

한국 장로교회들의 연합체인 한장총이 연중 최대 행사로 치르는 '한국 장로교의 날'은 한국 장로교의 역사성과 전통을 다시 확인하고, 회원교단 및 교회들의 연합과 일치, 진교 등을 위해 열리는 집회다.

◆“한국 장로교회,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자매”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은 대회를 통해 “지난 2009년 요한 칼빈 탄생 500주년을 맞이하여 칼빈의 생일인 7월 10일을 장로교회의 날로 선포하고 한국의 장로교인들이 한자리에 모이기 시작한, 한국 장로교의 연합과 일치를 위한 모임이 올해 16회를 맞이했다”고 이야기했다.

천 대표회장은 “한국 장로교회는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형제와 자매다. 한국 장로교회의 하나 됨을 위한 역사와 전통을 계승해 경건과 균형 잡힌 영성이 회복되기를 바란다”며 “한국교회는 세속화와 탈종교화의 심각한 도전과 교세 감소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한다. 복음의 진정성과 그리스도인들의 신실함으로 교회의 거룩성과 공교회성을 강화해 나가자”고 전했다.

이어 “교회는 위기를 맞을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기 위한 회개와 개혁의 힘을 발휘했다. 실추된 교회의 권위와 신뢰감을 회복하기 위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회가 되어야 한다”며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장로교인으로서 성경

의 가르침을 따라 하나님의 창조질서와 공의를 실현하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자”고 했다.

준비위원장인 김홍석 목사(예장 고신 총회장)는 환영사에서 “장로교회가 살아야 한국교회가 산다. 장로교회로서 정체성과 자부심을 굳건히 함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영적 비전을 공유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전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이날 행사는 기념예배와 성찬식, 부흥기도회 및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 순서로 진행됐다. 권순웅 목사(한장총 상임회장)가 인도한 기념예배에선 변세권 목사(예장 합신 총회장)가 기도했고, 김정우 목사(예장 합동총신 총회장)의 성경봉독과 남서울교회 찬양대의 찬양 후 예장 통합 증경총회장이자 연동교회 원로인 이성희 목사가 설교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교회(여호수아 3:1-6)라는 제목으로 설교한 이 목사는 “우리 교회가 나아가는 길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 가는 일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선교사보다 성경이 먼저 들어온 한국교회는 성경적 교회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 한국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고 성경 본질로 돌아가 성경적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목사는 또 “거룩한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는 차별되어야 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 그래서 교회는 조직이라 하지 않고 ‘유기체’라고 하며, 그리스도인을 ‘성도’라고 한다”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을 잘라내 버려야 하며, 세상 사람의 삶의 방식과 차별성을 가진 구별



“소금과 빛의 역할 감당하자”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참석자들이 단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한장총 대표회장 천 환 목사가 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연동교회 이성희 원로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수상자들. (왼쪽 두 번째부터) 이승구 교수, 이재호 목사, 서일권 장로. ©김진영 기자

된 삶을 살아야 한다”고 했다. 그는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의 표어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자(롬 12:11)이다. 교회는 모름지기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나라를 향해 달려가야 한다’며 “이것이 말씀을 좇아가는 교회요, 거룩한 교회다. 이런 교회는 착하고, 충성된 교회다. 그렇지 못한 교회는 악하고, 게으른 교회다. 우리 장로교회가 말씀을

앞서지 말며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 하나님의 나라에 나 없이 들어가는 교회가 다 되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다니엘처럼 뚝 굽히지 않고 기도”

이어 이성희 목사가 집례하고 한장총 회원교단 총무(사무총장)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성찬식이 거행됐고, 헌금이 있는 뒤 부흥기도회가 열렸다. 기도

회에서는 순환보 목사(세계로교회)가 부흥 메시지를 전했다. 공동대회장들인 김중우(예장 호신 총회장)·최원길(예장 개혁총연 총회장)·송동원(예장 개혁신 총회장) 목사가 장로교회와 다음세대, 통일을 위한 주제기도를 인도했다. 이후 한장총 직전 대표회장이었던 정서영 목사(한기총 대표회장)가 축도했다. 부흥 메시지를 전한 순환보 목사는 “모

든 한국의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향한 뜻을 가지고 일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나라가 어려움을 당하고,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고, 교회에서 청년들이 줄어들고 있는 이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손을 들어 기도하지 않는다면 후대에는 이런 모임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손 목사는 “다니엘처럼 우리도 뜻을 정하고 굽히지 않고 기도하면 교회가 살아나라라 믿는다. 여기 모인 우리부터 하나님을 향한 뜻을 지켜간다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위대한 역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한국 장로교의 날’ 기념식에선 김홍석 목사(준비위원장, 예장 고신 총회장)의 사회 아래 대회장인 천 환 한장총 대표회장의 대회가 있었고, ‘자랑스러운 장로교인상’ 시상식이 마련됐다. △교육 및 신학 부문 이승구 교수(합동신대 석좌) △선교 및 문화 부문 이재호 목사(주바라기선교회 대표) △복직 부문 서일권 장로(제5영도교회 시무)가 수상했다.

이어 이 철 목사(기독교대한감리회 감독회장), 류승동 목사(기독교대한성결교회 총회장), 이영훈 목사(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대표총회장)가 영상으로 축하했다.

다음으로 임병무 목사(예장 대신 총회장)가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남서울 선언문’을 낭독했다. 이 선언문에는 △예배 중심의 신앙 회복 △나부터 ‘날마다의 개혁’ △장로교회의 연합 △민족의 치유와 화해, 평화와 통일을 위한 사명 실천 등에 대한 다짐이 담겼다.

이후 파송의 노래 및 김성수 목사(예장 호신 총회장)의 파송의 기도, 정성열 목사(운영위원장)의 알림과 참석자들이 전체 기념촬영을 끝으로 모든 순서가 마무리됐다. ▶관련기사3면 김진영 기자

“국회, 3권 분립 무시하는 입법 폭주 중단하라”

수기총 등 단체들, 성명 통해 촉구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를 비롯해 한국교회연합, 한국기독교인총연합회 등 단체들이 9일 “3권 분립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이 성명에서 “대한민국이 입법행정사법으로 3권분립(三權

分立) 체계를 갖춘 것은, 상호간 견제균형을 유지시킴으로써 국가권력의 집중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함”이라며 “견제의 수단으로 국회는 ‘국정감사’와 ‘탄핵소추권’, ‘대법원장 임명동의권’을, 정부는 ‘법률안 거부권’, ‘대법원장 임명권’을, 법원은 ‘법률 심사권’, ‘명령, 규칙 심사권’ 등을 갖는다”고 했다. 이들은 “그러나 지금의 국회는 습관적으로 탄핵권을 남발할 뿐만 아니

라, 입법부 권한을 과도하게 키우는 법안들을 쏟아냄으로써 3권분립의 헌법 정신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단체들은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2년간 탄핵안을 13번을 발의했다. 그 면면들을 보면, 입법부 권한 남용과 오용임을 확실히 알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여당은 야당이 오로지 이 전 대표 살리기와 방탄, 탄핵 정국 조성을 위해 거대 다수당 권력

으로 행정사법입법언론 장악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며 “22대 총선 압승으로 가지게 된 거대 의석을 무기로 여야 합이라는 대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원 구성을 밀어붙이더니 이제는 사법권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민주당은 행정권과 사법권을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의 통제 아래 두려는, 소위 3권분립의 헌법 정

신을 훼손하는 법안 20여 건을 우후죽순 쏟아내고 있다”며 “국회가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사행령)·총리령에 관여하고 예산 편성 및 집행 권한까지 넘보는 내용이 담긴 법안과, 사법부의 독립적 재판 진행에 입법부가 개입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법안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22대 국회는 자신들의 권력을 과도하게 행사함으로써 3권분립의 숭고한 헌법적 가치를 심대하게 훼손하지 아니하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3권분립을 무시하는 입법 폭주를 당장 중단하고 3권분립

의 체계 아래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사법부는 법대로 3권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를 하지 말라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여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고 했다.

수기총 등 단체들은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체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라며 “대통령과 3권분립이 흔들리면 국민 안전과 안보가 가장 크게 위협 받는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현대건설

오피스텔 165실

펜트하우스 타입 오피스텔

- RooF
- 17F

2실 및 3실 타입 오피스텔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커뮤니티 시설

- 4F
- 3F
- 1~2F

복층 연계형 상업시설

1~3F 상업시설

출퇴근 30분 시대!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GTX개발로 지역기차상승 기대 광역교통망 확장으로 수도권 전지역 1시간내 이동 가능

- 지하1층: 버스-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 지하6층: 위례-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 삼성역 GTX-A: 운정-일산-삼성-동탄-평택

· 삼성역 GTX-C: 덕정-청량리-삼성-수원-천안-안산

파주 운정 - 삼성역: 26분 | 일산 킨텍스 - 삼성역: 23분

양주 덕정 - 삼성역: 27분 | 수원역 - 삼성역: 26분

삼성역 광역복합환승센터 (지하1층 - 지하7층)

지하1층: 버스, 택시 정류장 | 지하2-3층: 공공 상업시설

지하4층: 통합 대합실 | 지하5층: 광역철도(GTX-A/C)

지하6층: 위례 - 신사 | 지하7층: 광역철도(GTX-KTX)승강장

유튜브에서 “생생본방”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본 홍보물은 사업주체(시공사/시행사)와 무관합니다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LIFE INFRA

-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잠실종합운동장 인접
- 삼성동 생활편의와 대치동 명품교육을 함께 누리는 더블 생활권

TRAFFIC

- 2호선 삼성역과 9호선, 수인분당선 등 인접
- 도심공항터미널 및 다양한 버스노선 등으로 편리한 대중 교통망

VISION

- 국제교류복합지구(예정), GTX-A/C(예정) 영동대로 복합환승 센터(예정)
- 전시, 컨벤션, 업무시설 등 강남중심업무 지구 (GBD)의 높은 프리미엄

1666-1691

“북한에 하나님 나라 임하길 소망하며 한 마음 한 뜻으로 기도해야”

미주통일광장기도회, 델러스서 58차 기도회 개최

북한의 북음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하는 미주 통일광장기도회(대표 이종인 선교사)가 지난 7일 저녁 7시(현지 시각) 델러스 코너스톤 한인 침례 교회에서 58차 델러스지역 통일 광장 기도회를 개최했다.

기도회에서 최 스테파니 대표(델러스 지역 통일 광장기도회)가 대표기도를 드렸으며 이어 연모세 선교사가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다니엘 2:36-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연 선교사는 “연애할 때 남자들은 어려운 질문을 마주치곤 한다. ‘내 마음 알자?’라는 질문인데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곤란해하곤 한다. 본문에 등장하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와 비슷한 질문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꿈을 꾸었는데 자기가 어떤 꿈을 꾸었는지 이야기하지 않고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어떻게 그 꿈을 풀어내야 할지 물었다”며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후고구려 시대에 등장했던 궁예였다. 그는 관심법을 이용해 포악한 정치를 펼친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 꿈을 해석하지 못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게 되었는데 그 가운데 있던 사람이 바로 다니엘과 세 천

구였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왕이 꾸는 꿈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풀 수 없으며 오직 신들만이 풀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왕이 분노하여 바벨론 제국의 모든 제사장을 죽이려는 명령을 내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도 죽이려고 했다. 이때 다니엘은 시위 대장을 찾아가 왕의 꿈을 해석하겠다고 했으며 왕의 광기를 멈춰달라고 말했다”고 했다.

연 선교사는 “이후 다니엘은 친구들과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게 되었는데 그 환상은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 왕이 꾸는 꿈의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서 다니엘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왕에게 나아갔으며 왕의 꿈을 해석했다”며 “다니엘은 환상을 보면서 왕에게 환상을 본 것을 말해주었는데 먼저 말해 준 것은 큰 신상이었다. 큰 신상은 우상이며 머리는 금, 몸통은 은, 다리는 구리로 되었으며 이에 대한 해석은 머리는 느부갓네살, 몸통의 은은 무너질 바벨론 제국, 그 다음 부분은 바벨론을 무너뜨린 제국이 다시 무너지고 새롭게 세워질 새로운 제국을 의미했다”고 이야기했다.

이어 “이 꿈에 대한 해석은 바벨론 제국이 무너지고 페르시아 제국이 새롭게 일어나게 되고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헬라 제국이 일어나게 되며 헬라 제국에 이어 세계를 제패하는 로마 제국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 인류 역사를 보면 강대국, 제국이 많았지만, 그 제국들은 전성기를 맞이



미주통일광장기도회 델러스 코너스톤 한인 침례 교회에서 58차 델러스지역 통일 광장 기도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모세 선교사가 ‘영원히 설 하나님 나라’ (다니엘 2:36-45)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미주통일광장기도회 유튜브 캡처

했다가 멸망하게 되었다”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 이 시대도 같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환상을 보여주신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연 선교사는 “느부갓네살 왕은 왕 중의 왕이었으며 엄청난 권력을 가진 자였지만, 그런 왕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을 때 무너지게 되었다. 오늘 말씀에서 중심적으로 봐야 할 것은 누가 강대했고 누가 약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제국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가 보기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나라들이 보이

는데 대표적으로 미국, 중국, 러시아 그리고 북한 등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강대한 국가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반드시 무너지고 만다는 것이다. 최근 북한에서 김씨 일가의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며 반정부 단체가 비밀리에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이렇게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북한도 서서히 균열이 오기 시작한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가 꿈을 꾸면 그 꿈을 해석하려고 무당을 찾아가거나 미신적인 것을 찾아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지만 이전에는 그런 모습을 자주볼 수 있었다. 느부갓네살도 자기의 꿈에 대해 불안해서

술객, 점술사 등을 찾아 불러 모으게 된 것이다”고 했다.

연 선교사는 “북한은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므로 북한에는 점술, 미신 등이 만연한 상황이다. 이에 북한 사람들은 점쟁이들을 찾아가서 점쟁이의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한다고 한다. 이렇게 된 이유는 미래가 불안정하고 불투명하기 때문이다”며 “느부갓네살은 자신의 통치권이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그 꿈을 꾸었기 때문에 불안했다.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꿈을 말씀을 통해 해석하려고 하거나 그냥 흘려보내는 일도 있다”고 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의 사람은 꿈을 하나님을 통해 해석하지만, 세상 사람은 꿈을 쉽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이다. 아무리 무너지지 않을 강대국, 대제국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두 무너뜨리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말씀을 통해 세상과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무게추를 어디에 더 실어야 할지 생각해보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마음과 뜻을 합하여 북한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이어 북한 반체제 조직인 ‘새조선’, 지하교회 성도, 탈북민 동포, 대한민국, 미국 등을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다. 최승연 기자

“한기총의 정체성은 ‘한국교회의 보수 연합기관’”

한기총 총무협, 2024년 워크숍 개최 총무협 회장 서승원 목사 “회원간 협력 관계 향상 기대”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정서영 목사, 이하 한기총) 총무협의회가 지난 1~5일 베트남 달랏과 나트랑에서 ‘2024년 총무협의회 워크숍’을 진행했다.

31명의 한기총 회원 총무와 임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워크숍은 한기총 발전을 위한 총무들의 제안과 총무협 회원들의 단합과 발전을 위해 열렸다.

총무협의회 회장 서승원 목사는 “회원 총무님들 간의 친목을 통해, 한기총 교단과 단체의 상호유기적인 협력관계가 향상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휴식과 재충전의 시간으로 한기총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이 제안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매일 아침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시작해 달랏과 나트랑의 여러 지역과 문화를 탐방하고 베트남의 역사와 선교적 상황을 배우고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한기총 측은 전했다.



한기총 총무협의회 워크숍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기총

특히, 4일에는 대표회장 정서영 목사와 간담회를 가졌으며, 한기총이 나아갈 방향과 위원회의 역할 및 활동에 대해 토의했다. 정서영 대표회장은 “한기총이 한국교회의 보수 연합기관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기총의 시작과 역사를 분명히 기억하지 않으면, 혼란이 올 수밖에 없다”며 “한기총 정강 정책을 발표한 것도 정체성과 역사성을 확고히 하기 위한 선언적 의미이며, 이 큰 틀 안에서 각자의 영역에 맞는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총무들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에 들어가 보

다 적극적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의사를 표시했으며, 정 대표회장은 위원회에서 보고되는 사업 계획을 검토해 지원하겠다고 했다.

예장(개혁총연) 총무 송금섭 목사는 “선배 총무 목사님들과 함께하며,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된 행복한 여정이었”고 했고, 예장(합보) 총무 오창열 목사는 “주님의 은혜와 대표회장님, 목사님들의 섬김으로 즐겁게 마치게 되어 감사하다”고 했다. 또 LS지킴이 총무 이종오 목사는 “총무협의 도약을 위해 기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진영 기자

김영걸 부총회장 “김의식 총회장이 총회 불참 의사 전달”

‘전국노회장협의회 특별기도회’서 밝혀

예장 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가 “김의식 총회장이 저에게 이번(109회) 총회 불참 의사를 전달해왔다”고 밝혔다.

교단 기관자인 한국기독교공보에 따르면 김 부총회장은 최근 서울 한국교회백주년기념관에서 열린 ‘108회기 전국노회장협의회 특별기도회’에 참석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총회장은 “먼저는 총회 장소를 잘 결정하지 못해서 마음의 부담을 드리고 행정적 어려움을 끼쳐 죄송하다”며 “또 이미 총회장께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은 상태이고, 송구한 마음을 밝히고 금식기도에 들어갔다”고 전했다.

이어 “교단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있고, 109회 총회가 잘 개최되어 성숙한 교단이 되고 발전하기를 바라는 사랑의 마음도 있으시기에 저에게 이번 총회 불참 의사를 전달해왔다” 했다.

김 부총회장은 또 “총회가 위기를 잘 헤쳐 나가고 109회 총회가 잘 출발할 수 있도록 임원들이 최선을 다하겠다”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지혜로 위기를 극복하고 한 마음으로 교단이 일어설 수



예장 통합 부총회장 김영걸 목사 ©기독일보 DB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기도회 참석자들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우리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신뢰를 세워야 하는 지도자로서의 책무를 온전히 감당하지 못했다는 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그러나 작금의 총회는 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 교단의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거룩한 교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있다. 69개 노회장들은 더 이상 교단과 교회와 세상 사람들에게 상처가 되지 않도록 마음을 모아 한국교회와 사회 앞에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김진영 기자

행복한농산물, 함께하는KRC

함께 한국농어촌공사

농어촌을 위해 116년을 달려온 열정으로
늘 농어민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KRC 한국농어촌공사

“장로교 신자들, 당회 통해 그리스도의 통치 경험할 수 있어야”

한장총 '장로교 미래포럼', '장로교 헌법의 이론과 실제' 주제로 열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천 환 목사, 이하 한장총)의 '제16회 한국 장로교의 날' 집회가 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남서울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이에 앞서 연계 행사로 '장로교 미래포럼'이 진행됐다.

'장로교 헌법의 이론과 실제'라는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는 이재국 박사(시공교회 협동목사)와 이성호 교수(고려신학대학원)가 강연했고, 박경수 교수(장로회신학대학교)와 안상혁 교수(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가 논찬했다. 다만 안 교수는 원고로 대신했다.

◆사무엘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 신수론

첫 강연자로 나선 이재국 박사는 '사무엘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 신수론(divine righ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다. 그는 스코틀랜드의 장로회 신학자인 사무엘 리더포드(1600~1661)가 신수론을 통해 변론한 장로회 정치체제의 몇 가지 중요한 원리들인 열쇠의 힘, 가시적 보편교회, 치리와 교회 회의체제와 같은 주제를 고찰하면서 어떤 신학적이고 목회적인 특징이 있는지를 살폈다.

이 박사는 "리더포드가 신수론을 주장할 때 강조한 것은 임법자로서 교회 정치체제를 세우신 그리스도였다"며 "그리스도께서는 성경을 통해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추고 어떻게 운영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충분하게 주셨다고 그는 확신했다. 이 점에서 그의 신수론이 오직 성

경(Sola Scriptura)에 근거한다는 점을 볼 수 있다"고 했다.

그는 "교회의 사역적 역할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교회를 세우고 은혜를 베푸는 방편을 제공하고 그 효력까지 보증하시는 그리스도와 삼위 하나님"이라며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방편에 의존하고 삼위 하나님의 효력에 의지하는 것은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체제 신수론이 오직 은혜(Sola Gratia)의 원리도 잘 담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 박사는 "무엇보다 리더포드의 신수론은 임법자이자 교회를 다스리시는 통치자로서의 그리스도를 강조한다"며 "리더포드에게 그리스도는 장로회 정치체제를 구체적으로 세우시고, 열쇠의 힘을 사역자들에게 주고 그 효력을 보증하시며, 자신의 교회가 잘 세워지고 성도들이 자라도록 말씀, 성례, 치리라는 방편을 주신 왕이셨다"고 했다.

그는 "그렇기에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체제 신수론은 오직 그리스도(Solus Christus)의 원리도 잘 반영하고 있다. 그 리모 리더포드의 장로회 정치체제 신수론은 종교개혁과 개혁신학의 주요한 원리를 담고 있으며, 이 원리들이 신학적 개념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사역으로 이어지는 연결점이 된다는 사실을 볼 수 있다"고 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나타난 '천국의 열쇠'

이 "장로교 신학에서 본 '천국의 열



한장총 장로교 미래포럼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쇠들"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한 이성호 교수는 '천국의 열쇠에 대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인용하며 그것을 아래 7가지로 요약했다.

- ①천국의 열쇠는 설교와 관정으로 이뤄진다.
- ②목사는 설교를 통해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
- ③치리회(장로들의 모임)는 관정으로 천국의 문을 열고 닫는다.
- ④천국이란 결국 '성도의 교제(사도신경)를 말하고, 열고 닫는 것은 시벌과 해벌을 의미한다.
- ⑤관정의 목적은 연약한 자를 보호하고 드러난 죄인을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⑥순수한 복음의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치리회의 결정은 하나님의 결정과 동일하다.

⑦목사와 장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맡겨진 직무에 충실해야 하며 그것을 남용하지 않도록 심히 주의해야 한다.

이 교수는 "매주 우리가 고백하는 주 예수님은 교회의 왕이시요 머리이시다. 이것은 막연한 신앙이 아니다. 그분은 교회의 머리로서 자신의 직분자들을 세우신다"며 "더 나아가서 그분은 그들에게 은사를 주실 뿐만 아니라 교회를 다스리시는 천국의 열쇠를 부여하신다"고 했다.



이재국 박사가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성호 교수가 강연하고 있다. ©김진영 기자

이 "이 열쇠는 복음의 설교와 관정으로 구성되며, 목사와 장로는 이 직무에 수종 드는 자들"이라며 "따라서 장로교회 신자들은 당회를 통해 그리스도의 영적 통치를 구체적·실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어야 한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라는 신앙고백은 허상에 지나지 않는다"고 했다.

또한 그는 "천국의 열쇠는 예배 시간마다 구체적으로 드러나야 한다. 그중에서 성찬은 천국의 열쇠가 가시적으로 표현되는 현장"이라며 "성찬식에서, 분별과 분장은 목사가 하지만 장로들은 목사와 협

력해 천국의 회원들에게 그리스도의 삶과 피를 배병 및 배잔하고 회원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것을 유보한다"고 했다.

이 교수는 "이 배병과 배잔 행위를 통해 장로들은 예배에 참석한 모든 이들에게 천국을 여닫는 권세를 가시적으로 보여준다"며 "문제는 한국 개신교의 경우 일 년에 겨우 성찬을 한두 차례 시행하기 때문에 성찬이 교회 행사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당회가 정말로 바뀌기를 원한다면 하루빨리 예배 중심의 교회로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김진영 기자

생명의전화,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함께치얼업' 성료

'생명사랑 밤길걷기' 개최 예정

사회복지법인 생명의전화와 한화생명, KBS한국방송이 공동주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특별시 후원한 2024 청소년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함께치얼업'이 성료됐다고 9일 밝혔다.

'함께고워크'는 청소년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기 위해 10대 청소년 10만 명당 자살을 수치인 7.2명(통계청, 2023)을 km로 환산해 걷는 비대면 자살예방 캠페인이다.

이번 캠페인에서 주최 측은 자살예방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해 자살예방 지침서(내 마음 일기장)를 제작해 캠페인 전부터 숙지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일상의 소중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질문들이 담긴 인증 플래그(미션지)를 들고 7.2km를 걷은 뒤 학교 앞에서 인증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총 2,008명이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에 함께하기 위해 참가했다. 많은 참가자들의 인증을 통해 캠페인의 의미가 확산됐다고 주최 측은 전했다.

'함께치얼업'은 자살예방 캠페인 '함께고워크'에 참여한 2,008명 캠페이너들의 기부금과 한화생명의 지원으로 직접 학교를 찾아가 청소년을 응원하는 방문 캠페인이다. 생명의전화는 SNS를 통해 전국 11개 학교의 사연을 접수, 그중 5개교를



행사 현장의 모습. ©생명의전화

선정하여 5월 10일 서울 경일중학교를 시작으로 서울삼육고등학교와 신한대학교, 오산운천중학교를 방문했으며, 7월 9일 천안신방중학교를 마지막으로 청소년을 직접 응원하면서 캠페인을 펼쳤다.

한 참가자는 "내가 걷는다고 자살률이 눈에 띄게 줄어드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작은 도움이라도 됐으면 하는 마음에 신청하게 됐다"며 "내가 낸 기부금으로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서 응원한다는 사실을 듣고 뿌듯한 마음을 가질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아이들이 사랑 받고 건강하게 자라나서 행복한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한편, 생명의전화는 오는 9월 7일, 올해로 19회를 맞이하는 범국민자살예방 캠페인 '생명사랑 밤길걷기'를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7월 17일부터 행사의 참가 접수가 시작한다. 청소년을 살리는 걸음, '함께고워크'에 이어 생명을 밝히는 걸음, '생명사랑 밤길걷기'에 많은 참여와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자세한 내용은 공식 홈페이지 www.walkingovernight.com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노형국 기자

생명트럭 출범식 및 제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열린다



생명운동연합과 우임신상담지원센터가 오는 7월 1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생명트럭 출범식'과 '제22대 국회 태아생명보호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행사는 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한국기

독교생명윤리협회, 주사랑공동체, 성산생명윤리연구소, 에스더기도운동, 아름다운 피켓 등이 함께 공동주관한다.

행사에서는 먼저 생명트럭 소개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생명트럭 출범식'을 한 후, 생명운동연합 남기쁨 간사의 사회로 '태아생명보호법 입법 촉구 기자회견' 및 사진촬영, 국회의원 및 관련 단체 인사 발언이 이어진다.

조배숙 의원, 이용희 교수(에스더기도운

동), 이종락 목사(주사랑공동체), 이상원 교수(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함수연 대표(사단법인 프로라이프), 홍순철 교수(성산생명윤리연구소), 서은화 대표(아름다운피켓) 등이 발언할 예정이다.

한편 주최 측은 "생명트럭을 통해 태아 생명의 소중함을 알리고, 임신부와 가정을 지원하는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며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고 했다. 박용국 기자

Samsung Financial Networks 삼성생명

나의 내일에 확신이 생겼다

삼성생명FC

잘할 수 있을까?
삼성생명을 만났을 때,
모든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따뜻하고 믿음직한 동료들
힘이 되는 든든한 지원
모두 다 함께 성장하니까

프리미엄 고객센터
고객 방문용품을 지원합니다

코칭 매니저(CM)
전담 CM이 상공적인 장치를 도와드립니다

사랑On
태블릿과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든 컨설팅이 가능합니다

문의: 02-2722-1111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 | 2024.05.13~2025.05.12 | 본 광고물은 영리목적 사용이 아닌 컨설팅에 도움을 제공합니다

“설교, 성령의 임재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 전하는 것”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
‘칼빈의 설교: 강단의 종교개혁’ 주제 학술세미나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소장 문병호 교수)가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소재 십자가교회(담임 문병호 목사)에서 ‘칼빈의 설교: 강단의 종교개혁’이라는 주제로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문병호 박사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에 개진된 언약신학적 그리스도 이해: 교리, 주제, 선포’ ▲황대우 박사(개혁주의학술원 원장, 역사신학)가 ‘칼빈 설교의 특징: 그의 에베소서 주석과 설교 비교 연구’ ▲김대혁 박사(총신대 신학대학원 설교학)가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 연구: 저자의 의도성과 복음 맥락화 관점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

◆칼빈의 갈라디아서 설교
먼저, 문병호 박사는 “종교개혁은 본질상 예배의 개혁이었다. 보는 예배로부터 듣는 예배로의 전환이 꾀해졌다. 믿음은 들음으로써 나는 바, 누구나, 동일한 말씀을 타인의 공로적 개입 없이, 들을 수 있음이 만인제사장주의의 요체였다”며 “칼빈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조명과 감화로서, 믿음으로써, 받아들일 때, 참 의미가, 교리적 확실성 가운데, 확정담보된다고 보고, 교리적 서술 및 주제 및 설교를 함께, 조화롭게 수행하였다. 그리하여 성경 전체를

전하고, 그 전체를 듣는 강해설교의 전형이 그에 의해서 언약신학적으로 제시되었다”고 했다.

이어 “칼빈은 1546년부터 갈라디아서 주석에 착수하여 1548년에 출판하였으며, 갈라디아서 설교는 1557년 11월 14일부터 1558년 5월 15일까지 주일 오전과 오후에 연속해서 43차례 계속된 것을 1563년에 출판했다”고 덧붙였다.

◆오직 그리스도의 전적 은혜 선포
문 박사는 “갈라디아서의 근본 교리적 맥락이 ‘이신칭의’라면, 그 주제어는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라고 할 것”이라며 “설교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관들로서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 권위는 우리의 유일한 선생이시며 교사이신 주님으로부터 나온다. 먼저, 그가 교사의 심령을 가르칠만하게 하시고 말씀을 맡기셔서 전하게 하신다. 그러므로 설교자는 자신의 설교를 먼저 자신이 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제이자 완성이다. 신구약은 경륜은 다르지만 실체는 동일하다. 그 실제가 그리스도이다. 곧 그리스도가 언약의 실제이다. 이는 칼빈의 구약 설교에서도 반복되는 주제”라며 “갈라디아서 설교에서 칼빈은 이



한국칼빈-개혁신학연구소 제2회 정기학술세미나 기념 사진. ©장요한 기자

신칭의 교리의 맥락에서, 그리스도가 신구약의 실제, 즉 언약의 실제이시라는 것, 그가 율법의 실제이며, 그가 율법의 실제이자 성취이며, 그가 다 이루신 의를 오직 믿음으로써, 성도가 누리므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나고, 자유롭게 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오직 그리고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을 반복해서 상세하게 강조한”고 했다.

또한 “설교는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우리와 하나가 되시고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다. 설교로서 그리스도가 현존하시는 것이 아니라, 설교는 현존하시는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라며 “소위 ‘비평 전 해석’을 거론하며 칼빈이 그랬듯이 교리를 주제에 종속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자체적으로 모순이 있다. 교리를 주제에 종속

시킨다는 말과 주제를 교리에 종속시킨다는 말이 서로 다르지 않다. 교리적이지만 주해는 없으며, 그런 주해는 주관적 혹은 자의적 주해이기 때문이다. 주제와 교리 작업은 동시적이어야 하며, 그 맥락이 설교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적 혹은 지혜적 의미(다다게)와 선포적 혹은 선언적 의미(케리그마)를 함께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교리 주제 설교가 모두 말씀의 말씀이며,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라며 “말씀이 말씀하는 것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격에 따른 것이라면, 그 말씀을 전함은 영구적인 법일 것이나, 설교는 하나님의 소리를 사람의 소리로 들려주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
이어 발제한 황대우 박사는 “칼빈의 에베소서 설교는 한마디로 대중적인 교리 교육으로 요약될 수 있다”며 “즉, 교리의 내용에 있어서는 배운 사람들에게 호소하기 위해 신학적 방법을 동원하여 성경 원어와 그 의미를 충실하게 설명하는 주석과 일치하지만, 교리를 전달하는 형식



문병호 박사가 발제를 하고 있다. ©장요한 기자

과 방법에 있어서는 칼빈이 누구나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성경 본문을 매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대중적인 구어체 기술을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아울러 “칼빈은 주석뿐만 아니라, 설교에서도 수사학적 기법을 충분히 활용한 다. 하지만 주석은 문어체적 수사학으로, 설교는 구어체적 수사학으로 분류될 수 있다”며 “칼빈은 그 두 가지 수사학 기법을 라틴어로 된 자신의 성경 강의에서 혼용한다. 칼빈의 설교는 내용을 설명하고 전달하는 형식에 있어서 그의 라틴어 강의와 약간 닮았지만, 이보다 훨씬 더 쉽고 대중적이다. 설교를 통해 칼빈은 자신의 주석을 쉽고 평이하게 설명하려고 노력한다”고 했다.

◆칼빈의 설교, 언제나 곁에 두고 참고 할 설교의 보화
김대혁 박사는 “설교자로서 칼빈과 그의 실제 설교 세계는 아직 연구되어야 할 영역이 다른 그의 신학적 유산보다 많아 보인다”며 “오직 성경과 모든 성경을 통한 설교를 지향하는 개혁주의 설교자에게는 더욱 그렇다”고 했다.

이러 “본문이 단순히 성경의 정보가 아니라 삶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서 생생하게 들리는 설교를 지향하고, 본문 사용론자가 아닌 전체 성경의 맥락 속에서 그리스도 중심적 복음이 중심이 되는 설교를 연마하며, 오늘날 청중의 문화에 대한 이해와 청중에 대한 공감만이 아니라 “성경적 진리로 청중의 마음을 돌이키며 변화시키는 설교를 추구하는 개혁주의 설교자들에게 칼빈의 설교는 고전이라는 이름으로 묵혀 둘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 두고 참고할 설교의 보화가 될 것”이라고 했다.

세미나는 이후 발제자들이 패널로 참석한 주제토론 및 질의응답 순서로 모두 마쳤다.
한편, 앞서 개최예배에서 ‘준비된 목회자가 되자’(출 32:1-6)라는 주제로 설교한 유상철 목사(영양역사)는 “오늘날 말씀의 왜곡이 많다. 아론과 같은 준비되지 못한 설교자가 되어선 안 된다. 준비된 목회자와 한국 강단이 너무 중요하다. 세미나를 통해 준비된 목회자들이 많이 세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장요한 기자

2024.6.3.Mon — 8.11.Sun
더 행복한 공모전

공모내용

참여대상 육아를 하고 있는 전 국민

공모부문 영상, 수기(개인 부문), 수기(회사 자랑)

공모주제 아이를 키우면서 경험한 고마웠던 일들, 행복했던 순간들! 가정, 사회에서 생긴 재미있는 육아 에피소드 회사에서 생긴 감동적인 에피소드 또는 육아 지원제도로 든든했던 이야기 등

공모일정 접수 기간 6월 3일(월) ~ 8월 11일(일) 수상자 발표 9월 3일(화) 예정 (개별통보) 시상식 일정 10월 중 예정

접수방법 yuk_a@withculture.com

1. <https://blog.naver.com/withcult/223464847401> 혹은 QR코드로 네이버 블로그에 접속하여, 자세한 사항 확인 후 참가신청서 다운로드

2. 참가 신청서 작성 후 공모 신청자와 함께 이메일(yuk_a@withculture.com)로 접수

시상내역 총 상금 1,0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구분	영상	수기(개인)	수기(회사자랑)
전체 대상	1인 300만원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		
최우수상	100만원	80만원	80만원
우수상	70만원	40만원	40만원
장려상	20만원	10만원	10만원

*수기(회사자랑) 부문 최우수상 수상자에게 추가 증정 사항 소속 회사에 커피차를 보내 드립니다. (단 '전체 대상' 이 수기 회사자랑일 경우 대상 수상자에게 증정)

문의처 더행복한공모전 운영사무국
메일 주소 yuk_a_inquiry@withculture.com
전화 번호 070-7780-4490

주최·주관 지원

2024노아NCA컨퍼런스, 22-24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서 열려



노아 NCA 컨퍼런스 준비위원회 일동은 22-24일 가평 필그림하우스에서 2024 노아 NCA 컨퍼런스를 개최한다.
세 분야로 나누어 컨퍼런스가 진행된다. 청년선교는 육호가, 송중완·박성만·이만석·매튜 하워드·문창선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기독교성은 김영환·민성길·이상원·안종배·김영길·현숙경·김향숙·문래관 박사가 강사로 나선다. 복음통일은 권요한·민현식·이용화·광민 박사와 지성호 전 국회의원이 강사로 나선다. 참가신청은 이곳에서 하면 된다(<https://bit.ly/45pmSzm>). 정월내 선착순이다. 참가비는 15만원이다. 청년대학생이나 2인이상 단체등록시 10만원이다.

노아 NCA 컨퍼런스 준비위원회는 노아 NCA 컨퍼런스 취지문을 발표하면서 “이번 2024년의 첫 노아 컨퍼런스의 주제는 ‘21세기 노아의 방주를 건축하라!’이다. 노아 컨퍼런스의 목적은 한국교회 선교 2세기에 새로운 세대를 복음의 진리로 기초한 성경적 세계관을 확립하고 하나님의 행상을 회복함으로써 사도교회의 믿음을 계승하는 동시에 반신적 세속주의를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완수하는 믿음과 의의 용사로 세우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아 컨퍼런스는 주제 강연과 토론을 통해서 복음주의 청년선교, 개혁주의 기독교성의 가치를 앞세우고 강철같은 믿음으로 세대, 언어, 문화, 사상, 분단의 벽을 허물고 불신과 거짓의 어둠의 세력을 파쇄하는 영적 승리의 진원지가 될 것”이라며 “노아의 믿음, 노아

의 방주, 노아의 구원을 본받아 나아가는 은혜와 사명의 자리에 각 대학과 각 지역의 주의 남녀 종들을 초청한다”고 했다.
아울러 “노아 컨퍼런스를 통해서 날로 불신과 불법이 확산되는 우리 시대에 노아, 아브라함, 여호수아, 다윗, 한나, 사무엘, 다니엘, 에스더, 요한, 바울, 루디아, 디모데와 같은 믿음의 용사들이 일어나서 만민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며 자유민주 복음통일 뉴 코리아 비전을 완수하도록 널리 강력한 협력과 후원을 요청한다”고 했다.
또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가정을 회복하고 교회와 캠퍼스를 부흥케 하며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 믿음의 대장정에 동참하시는 모든 동역자님들과 단체와 교회 앞에 크신 은혜와 평안을 부으시도록 기도드린다”고 했다. 노형구 기자

한남대, 대전권 5개 대학과 베트남 시장 진출 협약 체결

한남대학교(총장 이승철)는 대전권 5개 대학(한남대, 건양대, 대전대, 대덕대, 한국폴리텍IV대)과 함께 지역협력기반 K-스타트업 세계화를 위한 글로벌 산학협력의 일환으로 베트남 시장에 진출한다.
한남대학교는 학생 창업기업과 가족기업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 성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도록 글로벌 산학협력 동아시야 벨트를 확대하고 있다. 최근 대전 인터시티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서 한남대와 대전권 5개 대학연합은 베트남의 유력 바이오 제약사인 THUAN GIA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THUAN GIA사는 전국에 28,210개의 유통점을 보유하고 있으며, 호치민, 하노이, 다낭 등 주요 도시에 대형 물류창고 4곳을 운영하는 대형 유통 기업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글로벌 사업화 창업 아이템 관련 정보 제공 ▲대학연합 기업들의 베트남 유통 네트워크 연

계 ▲글로벌 산학협력 프로그램 공동 기획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로써 대학별 예비창업자들과 가족기업들이 베트남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게 된다.
협약식에서는 THUAN GIA사의 제조 및 유통망 소개, 대학별 예비창업자와 가족기업의 제품 소개 및 전시, 간담회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대전권 5개 대학 예비창업자 7명과 가족기업 9명이 참여해 발표와 제품 전시를 했으며, 베트남 진출 의지를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특히, 한남대 학생 예비창업자인 이다라의 배운혁(컴퓨터공학과3학년) 대표는 ‘4차산업 혁명시대의 중소기업 혁신형 노코드·로코드 기반 스마트 공장 솔루션’을 선보여 많은 관심을 받았다.
한편, 한남대학교는 해외 6개국 대학과 함께 2026년까지 글로벌 스타트업 연합 대학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이번 베트남 시장 진출 협력이 글로벌 산학협력의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장요한 기자



한남대와 대전권 5개 대학연합-베트남 THUAN GIA사 업무협약 기념 사진. ©한남대

저성장·고령화 시대에 한국교회의 과제는...

강창희 대표, 2024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 in 충주서 강연

2024 대한민국 목회 컨퍼런스(KCMC) in 충주가 최근 충북 충주 소재 남부교회(담임 김광일 목사)에서 목회자·사모·직분자·교회리더를 대상으로 '리바운드 처치'(re: Bonud Church)라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강창희 대표(행복100세자산관리연구원)가 '100세 시대 크리스천의 생애설계와 경제생활'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강 대표는 "우리나라는 100세 시대, 저성장시대, 결핍의 시대를 맞고 있다. 후반 인생이 행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선 젊었을 때부터 준비가 필요하다"며 "어떤 마음의 준비, 경제적 준비를 해야 하며, 준비하는 과정에서 교회와 목회자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는가"라고 했다.

이어 "저성장·결핍의 시대가 오면서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고, 출산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그리고 현재 출산기피현상이 심각하며, 고령화의 속도 또한 빠르다"

며 "우리가 지금까지 상식적으로 생각했던 일과 주택, 아이들의 교육과 결혼, 노후에 대한 생각들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싱글의 시대가 다가왔다. 노후에 혼자 살게 되는 이유에는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사별이며, 둘째는 생애미혼(50세 전후까지 결혼한 적이 없는 사람), 셋째가 중년·황혼이혼"이라며 "이로써 1인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노인동거' 또는 '따로 또 같이'라는 새로운 가족관계가 출현했다. 자녀보다도 취미 생활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더 밀접한 유대관계를 갖게 되는 새로운 유년사회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싱글의 시대,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먼저는 생계를 위한 연금보험 준비를 해야 한다"며 "또한 새로운 유년사회에서 행복을 찾는 방법의 준비와 남편 중심의 노후 준비 즉, 혼자 남는 아내를 배려한

노후 준비가 필요하며, 가족의 회복을 위한 3세대 동거, 그룹리빙 등의 준비도 생각해야 한다"고 했다.

강 대표는 "가장 확실한 노후대비는 평생현역"이라며 재취업 사례를 소개하며 "월 50만원의 근로소득은 2억 원의 정기예금과 같은 효과가 있으며, 부부가 체면을 버리고 허드렛일이라도 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생에는 세 번의 정년이 있다. 첫째는 고령정년이며, 둘째는 몸이 건강하여 자원봉사활동이라고 하는 일의 정년, 그리고 마지막 셋째로 하나님부르시는 인생정년이 있다"며 "이 세 가지 정년이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이어 "노후의 3대 불안은 돈, 건강, 외로움이다. 이것을 해소하는 최선의 방법은 돈이 되거나 취미활동이나 사회봉헌 활동이든지 소일거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확실한 노후대비는 재테크가 아닌 평생현역"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후반 인생은 남의 눈을 의식하



강창희 대표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대한민국목회컨퍼런스

다"고 했다.

강 대표는 "저성장·고령화 시대 한국교회의 과제는 먼저, 한국사회의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과 교인 수 감소와 재정위기에 대해 대응해야 한다"며 "그리고 목회자의 노후대비도 준비해야 한다. 재무적 대응에는 연금 등이 있으며, NPO 활동(비영리활동) 등 인생 이모작에 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가정해체 위기에 대한 복음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며 "일자리 문제, 가계부채, 부동산버블 붐, 가정경제 파탄, 이혼, 1인가구 증가, 다문화가정 증가, 중산층 붕괴 등의 문제에 대한 교회의 부(富)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 정립과 가정힐링 사역이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했다.

한편, 이외에도 김한민 목사(빛과소금교회)가 '탈종교시대, 다니고 싶고 뿌리내리는 교회, 정동령 목사(더세움교회)가 '절망을 느끼는 목회자에게, 부족함 위에 세우는 건강한 교회'라는 주제로 각각 강연했다. 장요한 기자

지 않고, 자기만족을 추구하는 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자녀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2023년 한 통계에 따르면 그냥 쉬는 2030세대가 67.6만 명이 된다고 한다. 이중 63%가(42.8만 명)는 생활비를 부모에

의존하는 캣족"이라며 소신 있는 직업 선택이 중요함을 말했다.

이어 "올바른 자립교육에는 행위의 자립, 의식의 자립, 경제적 자립이 이 있다"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주어진 경제적 상황에 자신을 맞출 수 있어야 한

“첸은 신앙인으로서 믿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도 당하고 혹독한 형벌도 받을 각오가 되어 있다고 밝히는 한편, 시민 자격으로 법원에 공정한 재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 복음 전도자 첸이 매우 받고 평화로웠으며, 법원 관계자들을 친절하게 대했다는 목격자들의 말을 전했다.

“첸은 6월 20일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7개월 확정을 선고받았고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몇 년 전까지, 첸은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마약 중독에서 풀려나 즉시 거리에서 설교

하기 시작했습니다. 첸은 15년 이상을 거리 설교자로 사역해 왔습니다. 첸은 작은 교회를 섬기고 있지만, 중국 당국이 첸에게 범죄 혐의를 씌우고 최근에 재판이 열리는 건물과 거리를 봉쇄한 사실은 첸의 영향력이 얼마나 광범위한지를 입증합니다.” 노형구 기자

징역 19개월을 선고 받은 중국의 '복음의 전사'

지난달, 중국 후난성(Hunan Province) 헝양시(Hengyang City) 법원은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 혐의로 복음 전도자 첸웬셴(Chen Wensheng)에게 징역 1년 7개월을 선고했다. 첸은 이 판결에 대해 항소할 예정이다.

중국의 '복음의 전사'로 전 세계에 알려진 첸은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100번 이상 체포되었고, 당국이 행진 구금이라고 분류한 처벌로 130일 이상을 감옥에서 보냈다. 그러나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 현숙 폴리(Hyun Sook Foley) 대표는 최근의 이 판결이 가장 가혹하다고 말한다.

“지난 8월, 복음 전도자 첸웬셴은 상하이에서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도 가려다가 상하이 공항에서 적발되어 헝양으로 압송되었고, 그곳에서 행정 구류에 처해졌습니다. 보통은 과거에 종종 그랬던 것처럼, 2주간 구금되었다가 석방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석방되기로 예정되었던 9월 18일, 당국자들은 첸에게 '불법 집회 조직 및 자금 지원'이라는 범죄 혐의를 추가하여 계속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현숙 폴리 대표는 첸에 대한 재판이 4월 18일 헝양시 스구 구(Shigu District) 인민법원에서 열렸다고 말하며, “재판 당일 아침, 복음 전도자 첸의 친척과 친구 및 지지자들이 첸을 따라 법정 문까지 갔지만 당국자들에 의해 입장을 거부당했

다”라고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법원 정문 앞에 이미 경찰차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다양한 정부 기관에서 약 800명이 나와 경계 근무를 하고 있었다. 현숙 폴리 대표는 “법원 주변 거리 전체가 보안 훈련을 구실로 봉쇄되었다”고 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검찰은 1시간 동안 진행된 것으로 알려진 재판에서 첸에 대해 두 가지 주요 논거를 제시했다.

“첫째로, 검찰은 첸이 거리 전도 활동으로 이미 아홉 번에 걸쳐 총 130일 동안 행정적으로 구금된 적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둘째로 검찰은 첸이 채소 시장, 사거리, 상점, 소수 민족 지역에서 전도하며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고 주민 생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습

니다.”

현숙 폴리 대표에 따르면, 복음 전도자 첸웬셴은 이러한 범죄 혐의를 부인했을 뿐 아니라 자신은 모임을 조직하거나 자금을 지원하지 않았고, 단순히 거리에서 복음을 전했다는 뿐이라고 항변했다.

“첸웬셴은 '구세주께 영광, 회개하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으라'는 글귀가 적힌 나무 십자가를 들고 전도했고, 행인들뿐 아니라 자신을 체포하는 경찰에게도 전도지를 나눠주었습니다.”

재판 당일, 복음 전도자 첸이 변호사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에서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었으나, 첸이 주로 자신을 변호하며 발언했다고 현숙 폴리 대표는 말한다.



공안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건물 밖에서 친구와 포즈를 취한 중국의 거리 전도자 첸웬셴(Chen Wensheng) ©한국 순교자의 소리

“거짓 영성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로잔은 틀렸다”

한국교회차세대목회자연합 크리스 강 대표 기고글

조만간 한국에서 열리는 제4차 로잔대회를 반대하는 한국교회차세대목회자연합의 대표 크리스 강 강도사(리빙더처치 담임, 예정대신 측가 분지에 기고글을 보냈다.

크리스 강 강도사는 “지금 한국교회의 문제는 개인 영성에 치우치고 사회적 영성을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거짓된 에큐메니칼-카톨릭-신복음주의 '영성'을 추구하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고, "로잔대회는 태생부터 자유주의 신복음주의 신학-혼합주의 우상의 토대 위에 세워진 뻔뻔의 금송아지"라며 "국제 로잔이 표방하고 로잔 위원장이 선언한 '에큐메니칼리즘은 WCC와 적그리스도 가톨릭이 추구하는 '교회일치운동과 동일한 발람의 꾀이다. 한국교회가 추구할 것은 에큐메니칼-신복음주의의 거짓된 야합이 아니라, '오직 성경, 오직 예수'라고 주장했다.



한국교회차세대목회자연합 대표 크리스 강 강도사 ©리빙더처치

이러 강 강도사는 “한국교회가 거짓된 '영성'을 추구하는 로잔 운동의 모델이 된다면, 한국교회에 입할 것은 바알과 아세라 제단에 내려진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일 것"이라며 "그것은 영적 대가성이 아니라, 영적 사망선고일 것"이라 했다. 그는 "인본주의 총체적 복음, 에큐메니칼-자유주의신학의 영광이 드러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은 가려질 것"이라며 "사회 구원을 끼워넣어 만들어 낸 '총체적 복음'이라는 거짓된 가짜 복음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온전한 복음이 오늘 한국교회에

필요한 복음"이라고 주장했다. 덧붙여 "로잔의 에큐메니칼-신복음주의는 한국교회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며 "그것은 종교 통합의 문이요, 반성경적인 정신"이라고 했다.

마지막으로 강 강도사는 "한국교회가 로잔의 정신인 에큐메니칼-신복음주의, 즉 현대 자유주의 신학을 경계하고 적극 대항해야 하는 이유는 자유주의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20세기 초반 미국 교회에서 B.B 워필드, 그레삼 메이첸이 교회를 허무는 신복음주의-자유주의와 목숨 걸고 싸웠던 것처럼, 지금 한국교회는 자유주의 신학과의 싸움에서 승리하여 자유주의가 아닌 오직 예수의 거룩한 토대 위에 통일한국을 재건해야 할 것"이라며 "거짓된 영성을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로잔은 틀렸다. 오직 성경, 오직 예수만 맞다"고 주장했다.

한편, 제4차 로잔대회는 오는 9월 22일부터 28일까지 인천 송도컨벤시아에서 약 5천 명의 글로벌 선교 사역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박용국 기자

MMF 자금 운용 7년 연속 수탁 업계 1위

머니마켓 ETF도 역시, 하나입니다

안정적이고 유동적인 여유자금 운용을 위한 초단기채 ETF

하나 **1Q** 원큐머니마켓액티브

종목코드 : 479080

MMF 수탁 업계 1위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연말기준 MMF 수탁 1등 (금융투자협회)

국내 최상위권 MMF 운용사
수탁 기준, 18조원 규모 MMF 운용 (금융투자협회, 23년 12월 말 기준)

QR 코드로
신뢰 상세정보를 확인하세요

* 비 금융투자상품은 해당투자자에게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상품은 자산적격 배당,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금의 손실(0~100%)에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상품 취득이후에 투자대상 변동·수수료 및 매매비용 등에 따라 집합투자금 및 수익(손실)에 변동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의 권유는 (간접)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당사는 이 집합투자증권의 권유에 응하여 발행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발행을 중립이 동시기 바랍니다. * 이-100% 파생상품인 증권상장지수투자(에이엔) 투자증권(종류: 증권상장지수)의 경우: 연 0.050%, (이정평가: 0.007%, 집합투자: 0.039%, 수익이나: 0.005%, 사망연보상: 0.005%) 증권거래세, 기타비용이 추가 발생 가능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 24-022179(2024.06.10) - 2025.06.09

미국 국무부 “북한 공개처형 계속 증가... 공포·억압 고조”

7~13일 미국 내 북한자유주간 맞아 성명

미국 정부가 올해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 내 자유와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미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매슈 밀러 대변인 명의 성명을 내고 “북한 정권은 강제 노동을 포함해 지속적으로 자국민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국민의 자원을 뺏아내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외국 미디어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과 청소년을 포함한 공개 처형 숫자의 지속적인 증가는 공포와 억압의 환경을 고조시켰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국은 지속적으로 모든 국가에 강제송환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북한 망명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고,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를 강조하고 인권과 책임성, 정보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들과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북한자유주간은 2004년 4월 미국 내 북한인권법 통과를 촉구한 한-미일 북한인권 운동가들의 시위를 계기로 마련됐다. 21번째를 맞는 올해는 지난 7일부터 오는 13일까지다.



미국 국무부는 8일(현지시간) 21번째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성명을 내고 북한 내 자유와 인권 상황에 대한 중대한 우려를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시민청에서 열린 북한인권사진전 ‘북한인권, 사진으로 외치다’에서 시민들이 전시를 관람하는 모습. 서울시는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앞두고 8일~14일까지 ‘자유를 넘어 희망으로, 함께하는 우리’를 주제로 중구 서울시청·서울광장 등에서 북한 인권 포럼, 전시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뉴시스

국무부는 “미국은 탈북민들과 인권운동가들의 끈기와 용기, 그리고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부의 손 아래서 지속적으로 고통받고 있는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 인권 개선에 있어서 탈북민들의 중요한 역할을 인식하며 생존자 중심 책임추구 접근 방식을 지원하고 이 탈주민 목소리를 증폭하는데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미국 정부에서 북한 인권문제를 담당하는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오는 10일부터 13일까지 한국을 방문한다고 국무부는 밝혔다.

터너 특사는 오는 14일 ‘북한이탈주민의 날’에 앞서 열리는 북한 인권 관련 행사에 참석하고 한국 정부, 시민사회 관계자들을 만나 강제노동 문제 등을 논의한다. 북한이탈주민의 날은 올해 5월 국가기념일로 지정됐다. 이윤희 기자

제2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

평강교회가 LA와 사우스파사데나 주민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전하고자 특별한 행사를 준비했다. 13일 오후 5시 “한 여름 밤도 주님을 찬양해”를 주제로 제2회 평강 블레싱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 이번 콘서트는 한 여름밤의 더위를 식혀줄 아름답고 감동적인 음악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찬양사역자 정종원 목사, 이은수 목사, 안용대 목사를 비롯해, 소프라노 김현주와 이영희, 베이스 김성현이 무대를 빛낼 예정이다. 피아노 트리오 나경희, 바이올리니스트 황여주, 첼리스트 장성희가 함께 연주하며, Joy 여성합창단(단장 김보강, 지휘 이영희, 반주 나경희)이 특별한 하모니를 선사한다.

교회 측은 “이번 행사는 팬데믹으로 지친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콘서트 후에는 교회 마당에서 피로연이 열리며, 모든 참석자들에게 무료로 간단한 식사가 제공된다. 교회는 앞으로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준비하고, 사모님과 자원자를 모집할 예정이다. 문의: (213) 393-9136, (626) 639-6007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평강교회는 606 El Centro St, South Pasadena, CA 91030에 위치하고 있으며 문의는 (213) 393-9136, (626) 639-6007로 하면 된다. 김민선 기자

우오크 문화가 사회를 재편하는 방법 10가지

미국 크리스천포스트가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가 쓴 칼럼 ‘우오크 문화가 사회를 재구성하는 10가지 방법’을 최근 게재했다. 마테라 박사는 뉴욕시에 있는 부활교회의 담임 목사이며, ‘미국 사도지도자연합(USCAL)’과 ‘그리스도인연합’(CCC)을 이끌고 있다.



조셉 마테라(Joseph Mattera) 박사

마테라 박사는 칼럼에서 “창세기는 아담이 동물의 이름을 짓고 분류하는 과정을 설명하며, 하나님의 창조물을 정의하고 분류하는 일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아담이 이름을 짓는 행위는 권위에 대한 강력한 주장이며, 사물을 정의하는 사람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했다”며 “역사를 통틀어 범주, 분류, 정의를 통제하는 것은 서사를 형성하고 사회 전체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도구였다”고 말했다.

그는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 및 나치 독일을 예로 들며 “혁명가들은 지속적으로 현실과 분류를 재정의하여 서사를 통제하고, 자신의 의제를 진전시켜왔다”며 “이러한 문화 재정의의 새로운 물결은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설명했다. 다음은 칼럼의 요약.

1. 땅과의 뒤집힌 언약
무지개는 하나님이 이 땅과 세운 언약의 거룩한 성경적 상징이다. 이것은 LGBT+ 공동체에 의해 뒤집혀 전체 지구에 영향을 미치려는 그들의 시도를 나타내며, 우오크(woke) 이념으로 지구의 기본적인 언약적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를 보여준다(창세기 9:13).

2. 두 개의 성별이 유동성 성별로
전통적이고 성경적으로 정의된 성역할이 유동적 성별 개념으로 대체되고 있다.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나타내기 위해 두 개의 성별로 인간을 설계했음을 나타낸다. 페니스북과 같은 기관은 사람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을 식별하도록 다양한 성별 옵션을 제공한다. 가장 최근의 업데이트는 페니스북이 70개 이상의 다양한 성별 옵션을 제공한다(창세기 1:27).

3. 결혼에 대한 재정의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거룩한 결혼으로 묶으셨다. 이 결혼은 주 예수께서 재확인하셨고, 기독교가 등장한 이후 서구 문명에 의해 지탱되었다(창세기 2:21-24, 마태복음 19:4-6). 이 결혼에 대한 거룩한 설계는 사회의 안정과 도덕적 질서의 기초가 되었다.

그러나 우오크 이념은 이 신성한 제도에 도전하고 재정의하려는 노력을 점진적으로 시도해 왔다. 이는 미국에서

2015년 6월 26일 오버게펠 대 호지스(Obergefell v. Hodges) 사건에서 진보적 인 성향의 대법원이 동성 결혼을 헌법으로 법제화하는 결정으로 이어졌다.

4. 성경적 정의에서 비판적인종이론으로
성경적 정의 개념이 체계적인 억압과 인종적 구별을 강조하는 비판적인종이론(CRT)으로 대체되고 있다. 성경은 우리의 정체성이 피부색이나 민족이 아닌,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데서 발견된다고 가르친다(갈 3:28). 복음은 인종과 민족 구별을 초월하여,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하게 한다.

이와 달리 우오크 이념은 주로 피부색과 피해 의식이라는 관점을 통해 현실을 바라보고, 분열과 원망을 조장한다. 신자로서 우리는 이러한 세계관을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평등하다는 성경적 원칙을 고수하며, 복음의 변혁의 능력으로 참된 정의와 화해를 위해 애써야 한다.

5. 개인의 책임에서 국가 의존으로
갈라디아서 6장 7-8절에 나타난 개인의 책임에 대한 성경적 원리는 국가에 대한 의존을 조장하는 진보적인 우오크 이념에 의해 잠식되고 있다. 이 이념은 시민의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한 책임을 전제하는 ‘보모 국가(nanny state)와 유사하다.

성경은 개인은 자신이 뿌린 대로 거두며,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가르친다. 반면, 국가 개입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함에 따라, 개인의 책임과 주도권이 약화되고, 국가가 궁극적인 공급자이자 보호자로 간주되는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 이로써 진보적 이념이 문명을 통제하고 정의하는 데 우위를 점하게 된다.

6. 실력주의에서 피해자 중심주의로
한때 실력과 업적을 칭송하던 서구 문화는 피해의식을 우선시하는 쪽으로 변해가고 있다. 실력주의(meritocracy)에서 개인은 자신의 능력, 노력, 성취에 따라 인정받고 보상받으며, 혁신과 우수한

사회를 만든다. 그러나 피해자 중심주의(victimocracy)의 증가는 인식된 억압과 불만에 더 큰 중점을 두며, 종종 능력과 그 노력을 보여준 사람보다 피해자의 지위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보상을 준다.

7. 섬김의 문화에서 특권주의 문화로
다른 사람을 섬기라는 성경적 부름은 특권주의 문화로 인해 점점 더 가려지고 있다. 이 문화에서는 공동체적 책임과 이타적인 봉사보다 개인의 요구와 권리가 우선시된다(막 10:45). 이러한 변화는 상응하는 아무 의무 없이 혜택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조장한다.

8. 연중의 날짜와 달에 대한 강조
특정 그룹들이 지지하는 우오크 이념을 사회에 전파하기 위해, 특정 날짜와 월에 특별한 강조점을 둔다. 예를 들어, 6월 프라이드의 달, 3월 31일 트랜스젠더 가시성의 날, 5월 17일 세계 성소수자 혐오 반대の日(동성애, 트랜스젠더, 양성애자 혐오 반대), 10월 11일 세계 케미아웃의 날, 11월 둘째 주 트랜스젠더 인식주간, 11월 20일 트랜스젠더 추모의 날 등이 있다.

9. 교육을 통해서
학교와 대학은 진지하고 질서정연한 학습의 보루가 아닌, 이념적 세뇌의 중심지가 되고 있다. 아동을 위한 드래그 퀴놀과 구원을 기념하는 것부터, 대학에서 반미 수정주의 역사 교육까지, 우오크 이념은 현실을 새롭게 상품화하고, 다음 세대 문화 엘리트들의 마음을 조종하고 있다. 교육의 이러한 변화는 비판적 사고보다 이념적 순응을 우선시하여 교육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다.

10. 정치와 법을 통해서
바이든 행정부는 납세자들의 세금을 사용하여 낙태외적으로 우오크 이념을 장려했다. 예를 들어, 행정부는 에라드르에서 드래그 쇼를 조직하고, 여러 국가의 옹호 단체에 자금을 지원해 LGBT 운동을 장려하는 등 해외 LGBT 프로젝트에 460만 달러를 지출했다. 또 교육부는 비판적인종이론과 관련된 주제 교육에 우선순위를 두고 미국 역사 교육 과정을 재구성하여, 체계적 억압과 인종적 편견을 강조하는 데 보조금을 제공했다.

이러한 변화들은 사회적 규범과 가치의 중대한 재분류를 보여주며, 오래된 성경적 원칙들에 도전하고 문명을 심각하게 변화시킨다.

나는 그리스도인들이 미래학자, 사상적 지도자, 문화적 트렌드 선도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에 기초하여, 만물의 갱신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어 나가는 데 다 시 앞장서기를 기도한다. 김진진 기자

자연
내림

구매문의 | 1833-2655

제조원: (주)동진제약
판매원: (주)만수모강

MOMODAN HAIR TOTAL SOLUTION

“두피와 모발을 더욱 생기있게 업그레이드”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을 만나 두피변화를 경험하며 자신감을 채우세요.

- ✓ 머리가 자주 가려우신 분들
- ✓ 두피에 각질이 많으신 분
- ✓ 머리가 빨리 기름지시는 분
- ✓ 가는 모발에 솔이 없으신 분
- ✓ 두피가 예민하고 민감하신 분

모모단 헤어토탈솔루션
HAIR TOTAL SOLUTION

모모단 헤어토탈 솔루션 를 검색하세요!

“각국 시 선용과 도시선교, 박해받는 교회 등 위해 기도 요청”

한국선교연구원(KRIM) 세계선교 기도 제목

◇미국, 개신교 목사 77%, 인공지능 선용 가능하다고 생각해

지난 2월 실시한 바나(Barna) 연구소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미국인들의 32%는 인공지능(AI)에 대해 흥미롭게 생각하는 반면 33%는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기독교인들도 30%는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34%는 AI의 발달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또한 AI를 고부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25%는 동시에 우려스럽다고 생각했고, AI가 무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중 25%도 한편으로는 흥미를 가지고 사 용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처럼 AI에 대해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신교 목사의 77%는 이 기술을 선용한다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에 응답한 개신교 목사 중 76%는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AI가 유용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했고, 69%는 과학 연구와 기술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57%는 의료 분야에 있어서 발전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다. 반면 AI로 인한 부정적 면과 관련해 해서 개신교 목사들은 외로움과 고립감이 증가될 수 있고(63%), 사회를 위협하거나(58%), 나쁜 의도로 발전할 수 있다고(38%) 생각했다. 교회와 목회자들이 AI에 대해서 무조건적인 수용이나 두려움보다 균형적인 감각을 가지고 이 기술을 선용하도록 돕는 교육과 훈련을 준비할 수 있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barna.com)

◇침체된 한국교회, 도시 변화의 현상 이해해야

미국 풀러신학교에서 선교학을 가르치는 김에녹(Enoch J. Kim) 교수는 국제선교연구원회보(BMR) 2024년 4월호에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을 도시화와 연결해 분석하면서 도시 변화의 현상을 이해하면 새로운 돌파구를 찾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전쟁 이후 한국 사람들은 도시에 정착하기 시작했는데, 한국 정부에서 도시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도시화율은 1960년 28%에서 1990년대 70%까지 올라갔다. 이러한 도시화 정책은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을 시골에서 도시로 이동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런데 한국 개신교 인구는 1945년에 2%에서 2017년에 20.3%로 증가한 이후 도시화율이 2020년 81.4%까지 증가하는 상황에서 정체 국면에 들어갔다. 김 교수는 이제 한국교회가 도리어 침체 국면에 들어서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학의 세 분야인 도시사회학, 도시생태학, 도시인류학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도시사회학의 관점을 통해 한국교회가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기에 앞서 해당 도시를 객관적으로 이해하고 도시를 움직이는 동인(動因)을 찾아낼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도시생태학은 생명체의 원리를 통해 도시와 주변 환경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그는 이 렌즈를 가지고 한국교회가 지역 사회를 변화시키고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 필요한 사역 분야와 영역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뿐 아니라 도시인류학적 관점에서 도시 환경의 생활, 공동체, 네트워크, 정보 흐름, 변화하는 역할 등을 한국교회가 이해하고 지역 사회 안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에 끊임없이 다다를 수 있을 때 한국교회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국교회가 변화하는 시대 흐름과 도시 환경의 특성을 잘 이해하면서 겸손과 존중의 자세를 가지고 지역 사회 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며 다음세대에게 복음의 가치를 보여주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IBMR 48, no. 2)

◇북한, 24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으로 지정돼

지난 5월에 발표된 미국국제종교자유 2024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되고 있는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면서 정치적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4월 평안남도 통안 마을에서 기독교인 5명이 종교 활동을 이유로 체포됐다. 보고서는 북한에서 불교와 천주교, 천도교 등의 종교 자유 또한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점술과 같은 무속 신앙을 행하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제재도 강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종교자유위원회 의장인 쿠퍼(Abraham Cooper) 박사는 VOA와 화상 인터뷰에서 북한의 변화를 기다리는 동시에 북한이 안보와 인권 동등하게 중요시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북한에 장기간 억류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들의 이야기를 국제사회에 계속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중국 단둥에서 인도적 지원 활동을 했던 김정욱 선교사는 2013년에 북한 당국에 체포됐고, 김



미국 기독교인들의 30%는 AI에 대해 흥미롭다고 생각했지만, 34%는 AI의 발달이 무섭다고 생각했다. 개신교 목사의 77%는 이 기술을 선용한다면 신앙생활과 일상생활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다. 그러나 외로움과 고립감 증가, 사회 위협이나 나쁜 의도로 발전하는 등 부정적인 면도 있다고 대답했다. ©wikimedia

국기, 최준길 선교사도 2014년에 체포됐다. 북한에 10년 넘게 억류되어 있는 한국 선교사들이 하루속히 석방되고, 빈곤과 질병, 종교 탄압에서 고통받고 있는 북한 주민들을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voakorea.com)

◇카자흐스탄 미등록교회 2곳, 불법 선교 활동으로 기소돼

지난 3월과 4월, 카자흐스탄 경찰이 남부 슈(Shu) 지역에 위치한 미등록 개신교 교회 2곳을 급습해 불법 선교 활동 혐의로 목사를 기소하고 벌금형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참례교회협의회(BCC)는 4월 말 성명을 내고 이곳에서 종교 활동에 대한 박해가 증가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3월 3일, 경찰은 코나예바침례교회(Konayeva Baptist Church)의 예배 현장에서 급습해 모인 장면을 촬영했고 불법 모임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등록되지 않은 종교 단체가 불법적인 가르침을 전파했다고 판사하면서 미라우(Vaiter Mirau) 목사에게 369,200텐게(2개월 평균 임금)의 벌금을 선고했다. 4월 14일, 경찰은 슈침례교회(Shu Baptist Church)를 급습해 교회 등록 여부를 조사했고, 4월 29일에 목사와 교인 3명에게 각각 184,600텐게(1개월 평균 임금)의 벌금을 부과했다. 77세의 보이프라브(Andrei Boiprav) 목사는 이와 관련해 지방 법원에 항소한 상태이다. 중앙아시아 인권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포럼(Forum)18에 따르면, 2023년 종교의 자유와 관련된 기소 사건이 203건이었고, 이중 172건이 벌금형과 징역형으로 확정됐다고 한다. 카자흐스탄을 비롯해 중앙아시아 국가에서 지속적으로 종교법에 의한 제재와 탄압이 심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기독교인

들이 신실하게 신앙을 지켜나가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신앙생활을 할 지혜로운 방법들을 찾아내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forum18.org)

◇파키스탄 판자브 법원,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 18세로 높여

파키스탄의 신드(Sindh)주에 이어 두 번째로 판자브(Punjab)주에서도 여성의 최소 결혼 연령이 18세로 높아졌다. 지난 4월, 라호르 고등법원은 최저 결혼 연령에 있어 여성 16세, 남성 18세로 규정하고 있던 1929년 아동결혼제한법 조항을 폐지했다. 법원은 이 규정이 소녀들에게 차별적이라고 판단하면서 남녀 모두 최소 18세를 적용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지시했다. 이 판결 직후 판자브주 의회는 조혼을 하는 성인과 이를 조장하는 보호자들을 엄중하게 처벌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위반자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200만 루피(약 7,200달러)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2017~2018년 파키스탄 인구통계조사에 따르면, 판자브(Punjab)에서 20~24세 여성 중 18%가 18세 이전에 결혼했다. 유니세프(UNICEF)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여성 1,890만 명이 18세가 되기 전에 결혼했고, 이중 460만 명은 16세가 되기 전에 결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슬라마바드(Islamabad)의 베델북주의협의회(BEO) 이사인 존(Ruby Naeem John) 목사는 파키스탄 교회들이 가정 사역에 더 힘을 집중해서 소녀들은 결혼이 아니라 교육을 받고 미래를 준비하도록, 소년들은 경제적인 자립을 위해 공부하고 미래의 기반을 다져가도록 안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키스탄 판자브주에서 개정된 조혼 금지 법안이 잘 실행되고, 파키스탄 교회들이 소년소녀들의 미래를 위해 가정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



미국국제종교자유 2024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에도 북한 내 종교 자유 상황은 전 세계 국가 중에서 가장 취약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부터 지금까지 24년째 종교 자유 특별우려국(CPC)으로 지정된 북한은 기독교인들을 반역자로 간주하면서 정치적 범죄자로 처벌하고 있다. ©한국옥션드어

는 토대가 마련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christianitytoday.com)

◇파키스탄 기독교인, 신분증상의 종교 변경 청원 기각당해

지난 5월, 파키스탄 법원은 고용주에게 속아 자신의 종교가 기독교에서 이슬람교로 바뀌었던 청년이 제기한 종교 변경 청원을 기각했다. 24세의 마시(Masih)는 기독교인 부모에게서 태어나 기독교인으로 자랐다. 2018년부터 마시는 무슬림인 알리(Asif Ali)가 운영하는 벽돌 공장에서 일하기 시작했는데, 2020년에 그의 부모는 불법으로 감금된 채 공장장에서 일하고 있는 아들을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무슬림 고용주는 문맹이었던 마시의 신분증을 가로채 불법적인 방법으로 신분증상에서 그의 종교를 이슬람교로 바꾸었고, 이 청년의 이름까지도 무하마드 서파안(Muhammad Sufyan)으로 변경해 버린 상황이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마시의 부모는 지역 행정 관청에 기독교로 종교 변경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22년 9월, 이들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판자브주(州) 지방 법원에 종교 변경을 청원했다. 하지만 지난 5월 18일, 법원은 파키스탄에서 태어난 이후 부모와 사회로부터 배우면서 종교를 갖게 되고 그 결과로 이슬람을 받아들였다면 강제로 변경할 수 없다고 판결하며 이들의 청원을 기각했다. 마시의 증언과 함께 세례증명서까지 증거 자료로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 청년이 자발적으로 개종했다고 봤다. 기독교인 수피안 마시의 종교 변경 청원 절차가 잘 진행되고, 더불어 종교법 규정이 엄격한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들이 부당한 대우나 차별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자. (출처 thevopm.org, morningstarnews.org)

◇인도, 총선 후 연립 내각 구성으로 기존 정책 변화 가능성 생겨

모디(Narendra Modi) 총리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6월 총선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하지 못해 연립 내각을 구성했다. 연립 내각 구성으로 모디 총리가 강력하게 추진해 오던 정책들에 변화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졌다. 우선은 두 개의 지역 정당의 힘을 빌려 구성하게 된 연립 내각을 안정적으로 이끌 수 있을지 고민이고, 노동 개혁과 복지 정책에 있어서 이 정당들의 소수 의견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특히 지난 5년 동안 젊은 층 62%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야당인 인도국민회의(INC)에서 선거 기간 가난한 여성들에게 매년 10만 루피(1,200달러)를 지급하겠다는 공약까지 나오면서 집권당으로서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다. 이와 더불어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던 힌두 민족주의 정책에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독교 박해를 추적하는 연합기독교포럼(UCF)의 코디네이터인 마이클(A. C. Michael)은 연립 내각에서 모디 총리는 좀 더 책임성 있는 정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인도복음주의협의회(EFI)의 사무총장인 랄(Vijayesh Lal) 목사는 집권 여당의 패배에 불구하고 인도의 사회적 양극화와 기독교 박해가 즉시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 정부가 앞으로 가난한 자들과 소외된 자들을 위해 필요한 정책들을 마련하고, 종교적으로도 소수 종교에 대해서 더욱 관용적인 태도로 변화하도록 기도하자. (출처 www.economist.com, www.christianitytoday.com)

한국선교연구원(KRIM,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Mission)

노란우산 쓰세요!

대한민국 사장님~

홍보대사 남보라

홍보대사 정준호

사장님 지원 플랫폼

노란우산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 복리효과로 폐업 시 퇴직금 역할
- 지자체 가입장려금 지원
- 압류로부터 공제금 보호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KBIZ 중소기업중앙회**

* 취급은행: 시중은행 및 지방은행, 농협·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우체국 등
 ※ 중소기업중앙회 공법제정안 심의일 제24-08호(2024.3.11.~2025.2.28.)
 위 광고는 내부통제 기준에 따른 관련 정보를 거쳐 제공됩니다. <예금저축보안 및> 노란우산은 예금저축보안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나, 중소기업중앙회 감독하고,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적 공제제도로서, 중소기업중앙회법 제120조에 따라 일정 기준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매월 정액 시 납부원금을 포함한 준비금을 의무적으로 적립합니다. 노란우산과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사항은 노란우산 홈페이지(www.8899.or.kr) 또는 직원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호주 골드코스트 월 그레함 복음전도집회서 수백여 명 결신

호주 퀸즐랜드 골드코스트에서 복음주의 집회가 열려 수백여 명이 모였다고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가 보도했다.

골드코스트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월 그레함 목사가 주도한 '룩 업 셀레브레이션(Look Up Celebration)' 집회 참석자들은 예수를 따르기로 결심했다고 한다.

CP는 "호주의 이 지역은 활기찬 관광 명소와 고급스러운 라이프스타일 때문에 종종 마이애미나 라스베이거스와 비교되지만, 최근 열린 가족 친화적 영적 집회는 기독교 신앙에 초점을 맞춰 평범한 여유와 탐닉과 대조를 이루었다"고 전했다.

프랭클린 그레함 목사의 장남이자 고 빌리 그레함 목사의 손자인 월 그레함 목사가 이 집회를 인도했다.

월 그레함 목사는 "많은 사람이 신에게 이르는 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믿지만, 성

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아무도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 오 수 없다.' 하나님께 이르는 길은 오직 하나뿐"이라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길이며, 그 분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이다. 예수께서 피를 흘리시고 죽으셔서 빛을 갠으셨고,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사람들은 돈, 직함, 학위, 소유물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으로 방황하고 있다"라며 "여러분은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고 했다.

빌리그레함복음주의협회(BGEA)에 따르면, 새로운 신앙 여정을 시작하라는 부



월 그레함 목사. ©BGEA

름에 수백 명이 응답해 연단으로 나아갔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겠다고 공개적으로 결단하면서 집회가 마무리됐다고 한다.

BGEA는 380곳이 넘는 교회와 1천여 명의 자원봉사자가 'Look Up Celebration'을 준비하는 데 기여했다고 덧붙였다. 이 준비에는 참가자들에게 신

앙을 실천하고 나누는 것에 대한 교육을 목표로 한 '기독교적 삶과 증인 코스(Christian Life and Witness Course)'가 포함됐다.

트리니티라고 알려진 기도 상담사는 집회가 부흥과 같았다고 말했다. 그는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이런 것을 본 적이 없다"라며 "인생을 바꾸는 일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은 없다. 오늘 밤, 우리가 축하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국에서도 축하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고 했다.

그레함 목사는 행사 후 소셜미디어를 통해 감사를 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움직이셨다"라며 "4천6백여명이 모인 골드코스트 컨벤션 전시센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을 때, 수백 명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과 신뢰를 두기로 했다.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신자들과 골드코스트에서 계속 일하시기를 위해 저와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까?"라고 요청했다. BGEA에 따르면 월 그레함 목사는 2006년 전도사역을 시작한 이래로 6개 대륙에 걸쳐 1백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레함 목사는 "오늘 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경외감을 느낀다. 오늘 밤 예수님을 믿고 신뢰하기로 결정한 모든 사람을 위해 그분을 찬양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다.

이 행사에는 크리스천 아티스트인 '디 애프터스(The Afters), 타야(TAYA), 플래닛 붐(PLANETBOOM)'이 공연을 펼쳐 복음 전파 행사에 문화적 요소를 더했다. 이미경 기자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 "자살폭탄 테러 다시 증가 우려"

나이지리아 기독교 지도자들이 지난 6월 29일(현지 시간) 보르노 주 그위자에서 발생한 자살 폭탄 테러에 대해 깊은 충격과 당혹감을 표했다. 이 테러로 인해 무슬림과 기독교인이 모두 사망했다고 영국 크리스천투데이(CT)가 보도했다.



기도하고 있는 나이지리아 기독교인. ©오픈도어

나이지리아기독교협회(CAN) 회장인 다니엘 오키 대주교는 현지 기독교 지도자들을 대신해 발표한 성명에서 "나이지리아에서 자살 폭탄 테러가 다시 증가하고 있으며, 이것이 나이지리아인의 삶과 생계에 위협이 되는 것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무의미한 폭력 행위는 테러리즘이 나타내는 사악함과 이를 물리치기 위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극명하게 일깨워준다"고 했다.

공격은 무슬림 내부 결혼식에서 여성 자살 폭탄 테러로 시작했다. 나이지리아

부통령 카심 셰티에 따르면, 최소 두 건의 자살 폭탄 테러가 이어져 30명 이상이 사망하고 부상을 입었다.

최근 일어난 두 차례의 폭탄 테러는 카메룬 국경 근처 그위자에서 장례식장과 병원을 표적으로 삼았다.

아직 사건의 배후로 주장하는 단체는 없지만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인 보코하람과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 지부

(ISWAP)가 의심을 받고 있다. 이 단체들은 이 지역에서 깊고 파비르네 나는 폭력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보코하람과 ISWAP은 견해를 공유하지 않는 무슬림을 '이교도로' 몰아붙이는 급진적인 이슬람 이념에 의해 운영되고 있다. 이들은 기독교 신자들도 함께 표적으로 삼는다.

오키 대주교는 테러와의 싸움에 대한 보안 요원들의 노력을 칭찬하면서 "우리는 그들이 노력을 늦추지 않기를 바란다. 자살 테러의 어두운 시정로의 제발을 막기 위해 필요한 모든 개입이 환영받는다"라며 "우리는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한다. 상황이 악화되어 무고한 생명뿐만 아니라 예배처소와 다른 대규모 모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그위자 카운티 출신인 COCIN(Church of Christ in Nations) 회장인 아모스 모호조 목사는 공격으로 교인과 친척을 잃었다고 보고했다. 그는 정부가 나이지리아의 테러리스트에 대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나이지리아는 여전히 기독교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나라로 남아 있으며, 오픈도어의 2024년 세계감시목록(WWL)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0월 1일부터 2023년 9월 30일까지 4천118명이 신앙 때문에 살해당했다. 또한 기독교 납치 사건이 3천3백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나이지리아는 병원, 학교, 묘지와 같은 교회와 기타 기독교 건물에 대한 공격 건수에서 750건으로 3위를 차지했다. 2024년 WWL 순위에서 나이지리아는 6위를 차지해 전년과 동일한 순위를 유지했다. 이미경 기자

日·필리핀, '상호 軍파견 가능' 협정... 中 "평화 훼손 말아야"

일본과 필리핀은 8일 실탄 사격이 포함된 양국 합동 훈련에 일본 자위대를 파견하는 것 등을 포함하는 '상호 접근 협정(RAA-일본명 원활화 협정)'에 서명했다. 필리핀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잔혹한 점령을 받았지만 점점 더 강경해지는 중국에 맞서기 위해 일본과 동맹을 구축하고 있다고 AP 통신은 보도했다. 이 협정으로 필리핀군도 합동 전투 훈련을 위해 일본에 입국할 수 있게 됐다.

양국은 이날 마닐라에서 양국 외교 국방장관이 참석한 2+2 회의를 가진 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협정에 서명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에서는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과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 필리핀에서는 엔리케 마날로 외교장관과 갈버트 테오도로 국방장관이 참석했다. 일본은 2022년 호주, 지난해에는 영국과 유사한 협정을 맺었으나 아시아에서는 필리핀이 처음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는 북한의 위협과 중국의 높아지는 목소리에 일본의 전후 외교 원칙인 전수방위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반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와 방어 화력을 강화한 조치라고 AP 통신은 분석했다. 일본은 군사력을 강화하고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군

사 지출국이 되기 위해 2027년까지 5년 동안 국방비를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필리핀을 포함한 일본의 아시아 이웃 국가 중 다수는 2차 세계 대전에서 패배할 때까지 일본의 침략을 받았다.

일본의 군사적 역할을 높이고 방위비 지출을 강화하려는 노력은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었지만 일본과 필리핀은 방위와 안보 관계를 꾸준히 강화했다.

남중국해 영유권을 두고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필리핀은 지난달에는 세컨드 토머스 암초에서 충돌했다. 중국 해경선이 필리핀 해군 보급선 두 척을 들이받고 필리핀 선원이 부상했다. 중국측은 필리핀 해군 소총 7정을 압수했다. 필리핀은 중국측에 피해 보상과 소총 반환을 위해 100만 달러를 요구했지만 중국은 필리핀이 폭력을 선동했다고 비난하며 필리핀 선원들이 경고에도 불구하고 중국 영해로 침범했다고 했다.

이번 양국의 협정에 대해 중국 외교부는 비난의 목소리를 냈다.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가 간의 교류와 협력은 지역국 간의 상호 이해와 신뢰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며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파괴해서는 안 되고 제3자를 겨냥하거나 제3자의 이익을 해쳐서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구자룡 박정규 기자

미국무부 "북러 협력 심화 대응 위해 동맹과 지속 협력"

미국 국무부는 북한과 러시아의 협력 관계가 심화하는 것에 크게 우려한다고 재차 강조하고 동맹국들과 협력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미 국무부 대변인은 8일(현지 시각)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북한과 러시아간 심화된 협력에 대해 큰 우려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왔다"고 말

했다. 밀러 대변인은 "북한이 무고한 우크라이나인들을 살해하고 같은 유엔 회원국의 영토와 주권을 침범하며 여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위반하는 러시아 전쟁에 무기를 지원해온 것을 봐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동맹 및 파트너들과 이러한 협력관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협력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란 대통령 선거에서 개혁파로 평가되는 마수드 페제שי키안 후보가 당선된 것과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밀러 대변인은 "이번 대선이 이란의 방향성이나 정책에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

올 것이라 기대는 없다"며 "이란 정책 미래에 최종적으로 권한을 지닌 것은 대통령이 아니라 최고지도자"라고 말했다.

다만 "만약 새로운 대통령이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고 테러단체들에 대한 자금지원을 중단하며 역내 불안정행위를 멈춘다면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다. 이윤희 특파원

125th Anniversary

국민 생활 건강 캠페인

동화약품 SINCE 1897

N°20 건강한 인사법



목례로 인사



악수로 오염

일러스트: 양나영

전력을 다해 CASPER Electric



한 번 충전으로 315km까지 달릴 수 있는 캐스퍼 일렉트릭
casper.hyundai.com에서 사전계약 중



Bluehands
고객 곁에는 항상 현대자동차 블루핸즈
정비/서비스, 홈플러스 서비스, 긴급출동, 블루핸즈

■ 캐스퍼 전용 구입 문의 전화 및 고객센터: 080-500-6000 ■ 정부 공인 표준연비 ▶ 인스피레이션 (1.5inch): 복합 5.6km/kWh(도심:6.2km/kWh, 고속도로:4.9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315km(도심:347km, 고속도로:275km) | 충전지 정격전압 (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35kg | 등급: 소형 ▶ 인스피레이션 (1.7inch): 복합 5.2km/kWh(도심:5.7km/kWh, 고속도로:4.7km/kWh) | CO2 배출량: 0g/km | 1회 충전 복합 주행거리 295km(도심:323km, 고속도로:262km) | 충전지 정격전압(전류용량): 310V 158.2(Ah) | 공차중량: 1,355kg | 등급: 소형 ※ 위 연비는 표준모드에 의한 연비로서 도로상태, 운전방법, 차량적재, 정비상태 및 외기온도에 따라 실주행 연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급출발, 급가속 및 급제동을 하지 마십시오 ※ 정속주행을 합시다 ■ 현대자동차는 전국 어느 곳에서나 같은 제품, 같은 가격으로 바른 거래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 취임 후 15번째

해외순방 중 국무회의 의결된 재의요구안 재가... 거부 의지 명확히 해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취임 후 15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참석차 순방에 나선 터라 전자 결재 방식으로 재가가 이루어졌다.

이날 윤 대통령은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순직해병특검법), 이른바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재의를 요구했다.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순직 해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어제 발표된 경찰 수사 결과로 실제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순직 해병 특검법은 이제 철회되어야 한다"며 "또한, 나라의 부름을 받고 임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해병의 안타까운 순직을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악용하는 일도 더 이상 없어야 한다"고 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5월21일 21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美하와이 국립 태평양 기념묘지에서 6·25전쟁에서 쌓은 공적으로 명예 훈장을 받은 미군 고(故) 벤자민 윌슨의 묘를 찾았다. ©뉴시스

국회에서 통과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한 차례 행사했다. 이후 재표결을 거쳐 폐기됐던 채 상병 특검법이 지난 4일 22대 국회에서 또다시 아린 단독으로 강행 처리되자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전망에 무게가 실렸었다.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은 이송 다음날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권한 행사 시점이 이날 중순에 가까워진다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법안 이송 나흘

만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으로서 특검 수용 의사가 없다는 메시지를 단호하게 표현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독소조항이 더 많아진 데다, 경찰이 임성근 전 해병대사단장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만큼 거부권 행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위헌에 위헌을 더한 특검법은 그 해법이 될 수 없다"고 정부 입장을 재차 확인하기도 했다. 김지훈 김승민 기자

김두관 전 의원, 민주당 당대표 출마 선언... "다양성과 분권 보장할 것"

"1인 독주 막아야"... 세종시서 출마 선언, 광주 5·18 묘지 참배 예정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에서 818 전당대회 당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김 전 의원은 현 민주당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당의 변화와 혁신을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세종시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은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화로 민주주의 파괴의 병을 키움으로써 국민의 염려와 실망이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화해와 통합 정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정신이 민주당에서 사라졌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무능과 횡포로 규정하며, 남북 평화체제 전환과 국가 경제 복구, 민생 회복이



김두관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세종특별자치시의회에서 당대표 출마 선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의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당의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하는 제도 도입"을 약속했다.

그는 "민주당의 생명은 다양성"이라며 "당원 누구나 각자 의견을 자유롭게 개진하고 토론해 타협안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민주당이 1인의 지시에 따라 움직이는 전체주의적 모습을

보고 있다고 비판하며, 이를 개선하지 않으면 민주당의 위기가 더욱 깊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전 의원은 "민주당이 다양성과 분권을 보장해 줄 제도와 장치를 강화해 1인 독주를 막지 못하면 국민이 우려하는 민주당의 위기는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전당대회에서의 선택이 민주당의 정권교체 성공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출마 선언 후 김 전 의원은 광주광역시로 이동해 5·18 민주묘지를 참배했다. 강기정 광주광역시시장과 차담도 나눴다.

김 전 의원은 경남지사를 역임했으며, 21대 총선에서는 경남 양산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22대 총선에서는 영남권 선대위원장을 맡았으나 낙선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818 전당대회 후보 등록이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당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동안 당 대표와 최고위원, 사도당위원장 후보 출마 서류를 접수한다. 박용국 기자

장동혁 "한동훈 '입씹' 의혹, 친윤계와 원희룡 캠프 주도"

신지호 "일부 친윤들의 낙선 공작"... 국민의힘 당권 경쟁 혼탁 양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인 장동혁 의원이 9일 한동훈 당대표 후보의 입씹 의혹과 관련해 친윤계와 원희룡 캠프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혼탁한 양상으로 치닫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해석된다.

장 의원은 이날 MBC라디오 인터뷰에서 "언론 보도와 거론되는 분들의 실명, 특정 캠프 대변인의 발언을 보면 어떤 분들이 뒤에 있는지 국민들이 예상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진행자가 친윤 인사와 원희룡 캠프를 지목하자 장 의원은 이에 동의했다.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장 의원은 "어제 문자가 5개 계속해서 공개되는 것을 보면 과연 윤산이 개입하고 있을지 하는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후보와 관련해서는 "비대위원장 시절 저한테도 이 문자에 대한 말씀

을 하신 적이 없다"며 "본인은 사과해야 한다는 것들을 말씀하시고 입장을 전달했지만 저쪽의 분위기로 보서는 안 할 것 같다고 그 정도만 말했다"고 전했다. 김 여사 특검 조건부 수용 관련 윤산과의 의견 충돌 여부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들은 부분이 없다"고 답했다. 다만 문자에 언급된 '댓글'에 대해서는 "대통령실에서 때에 따라 잘못된 정보나 왜곡된 정보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했다.

한편, 한동훈 캠프 총괄상황실장인 신지호 전 의원도 같은 날 KBS라디오에 출연해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개입한다는 생각 안 한다"며 "일부 친윤들의 낙선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신 전 의원은 이들을 "권력의 꿈을 뺀 '꿀ուն'이라고 지칭하며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다 보니 이런 지해 막장극을 해가지고 사실상의 이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게



장동혁 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가 지난 8일 오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민의힘 제4차 전당대회 광주·전북·전남·제주 합동연설회에서 정경발표를 하던 모습. ©뉴시스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이번 사태로 국민의힘 당권 경쟁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친윤계와 비윤계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후보들 간의 네거티브 공방이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는 결과적으로 당의 단합과 결속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박용국 기자

바이든 완주 선언에 공화당 "환호"

여론조사는 트럼프 우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당내 사퇴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선 완주 의지를 밝히자 공화당 측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8일 미 의회전문매체 더힐에 따르면, 공화당 전략가 칼 로브는 포क्स뉴스 인터뷰에서 "마라톤에 도전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라톤가는 공화당 유력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사진)의 별장을 지칭한다.

로브는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이번 레이스가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전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난달 27일 있었던 TV 토론회를 계기로 "대다수 미국인이 바이든이 효과적인 대통령이 되기에 너무 늦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TV 토론 이후 인지력 논란 등으로 민주당 내에서 사퇴 압박을 받고 있다. 일부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공개적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후보 사퇴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러나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민주당 의원들에게 보낸 서한에서 "난 대선 레이스를 계속할 것이고,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결속 약화와 다툼과 제에 대한 명확성 부족은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트럼프만 이롭게 할 뿐"이라고 경

고했다.

TV 토론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우세가 나타나고 있다. USA투데이와 시픽데의 조사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41%, 바이든 대통령은 38%로 나타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시아나칼리지의 조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49%)이 바이든 대통령(43%)을 6%p 차이로 앞섰다.

공화당 측은 이러한 여론 동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로브는 "미국인은 바이든이 체력, 정신력, 판단력이 부족해 유능한 대통령이 될 수 없다고 믿고 있다"며 "트럼프에 대해 어떤 악구심이 들더라도 약한 사람보다 강한 지도자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남윤식 기자

윤, 나토 정상회의 계기 10개국 이상과 양자회담 예정

윤석열 대통령이 나토(NATO)북대서양 조약기구 정상회의를 계기로 10개국 이상의 정상들과 양자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8일(현지시간) 하와이 호놀룰루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취재진과 만나 "나토 정상회의 양자회담이 당초 5개국 이상이라 말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 10개국 이상이 될 것 같다"며

"그 정도로 분주한 일정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스웨덴, 핀란드, 노르웨이에다 독일, 캐나다, 영국, 네덜란드 등이 추가됐다. 한일, 한미 정상회담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나토 사무총장과의 별도 면담, 나토 정상회의, 인도-태평양 4개국 파르너구(P4)정상회의 등 이번 나토 순

방 계기에 총 19개 내외의 외교행사를 치르게 된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은 나토 정상회의와 파르너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워싱턴을 가는 것"이라며 "하루 반이라는 매우 짧은 기간 동안 여러 개의 양자 회담, IP4 네 나라간 소다자회담 등 바쁘게 일정을 쪼개 이번 기회를 적극 활용하는 순방"이라고 설명했다. 박미영 기자

PRUGIO

내년 입주 가능!

당신의 건강 기대수명을 늘려 드립니다

하이엔드 호텔식 시니어주택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과천시

서초구

강남구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

롯데프리미엄 아울렛

과천봉담고속화도로

백운호수

청계C

백운호수역(가칭) 신설 예정

입주부터 식사와 문화생활까지 한번에, 호텔형 생활 서비스

액티비티존 | 실내/외 수영장, 피트니스, 골프연습장, GX룸

힐링존 | 사우나, 바다케어센터, 메디컬센터

리빙존 | 레스토랑, 올데이 클래스, 컨시어지 데스크

커뮤니티존 | 커뮤니티 광장, 다목적홀, 라이브러리, 맨즈클럽

월드컵 경기장 2개 규모의 약 3,500여평 초대형 커뮤니티

365일 식사서비스
전문영양사가 제공하는 1일 3식 맞춤형 건강식단

메디컬케어 서비스
24시간 간호사 상주 및 건강검진 연 1회

하우스키핑 서비스
주 1-2회 청소, 세탁 등 가사지원 서비스

올데이 클래스
음악, 체육, 문화, 교양 등 다양한 문화강좌 클래스

총 536세대

1577-5052

※상기 CG 및 이미지는 소버리언 이미지를 동기화한 것으로 실제와 다를 수 있으며, 건축물의 입면 및 색채계획, 정호계획은 인허가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세부 내용은 노후(지주)에 예정된 시점으로 실제 운영 시 세부 내용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사설 및 프로그램에 따라 유선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일부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당 사업자의 입사조건, 주변 지역 개발계획, 교통계획 및 예정사업은 주주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지연,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는 시행사/시공사/시공사의 책임과 무관함을 알려드립니다.

정부, 전공의 행정처분 철회... 수련병원에 복귀·사직 확인 요구

축박한 일정에 수련병원 난색... “물리적 시간 부족”

정부가 전공의들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수련병원에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요청했다.

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각 수련병원에 공문을 보내 오는 15일 까지 소속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하고, 17일까지 9월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을 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전공의들의 복귀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전공의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한 정부 결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그러나 수련병원들은 일주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전공의들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공의들의 소재 파악과 연락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사직의 진의를 확인하는 것 자체가 난제라는 것이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연락이 닿아야 사직 의사를 파악해 설득에 나설 텐데 쉽지 않다”며 “내부적으로 대응책은 논의 중이지만 물리적으로 촉박해 보인다”고 말했다.

수련병원들은 지난 2월 정부의 의대 증원과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에 반대해 병원을 떠났으며, 현재 전체 전공의 1만3000



지난 8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 인근 오피스텔에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우편물 도착 안내서가 붙어 있다. ©뉴스시스

여 명 중 병원에 복귀한 비율은 8%에 불과한 상황이다.

수련병원들은 기존 전공의들의 복귀를 희망하고 있지만, 복귀 명분을 제시하기

어려워 설득이 쉽지 않다고 토로하고 있다. 전공의들이 요구하는 사직 인정 시점(2월)과 정부가 인정하는 시점(6월) 사이의 간극도 문제다. 전공의들은 사직 시점이 6월이 되면 업무개시명령 불응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으로 법적 책임은 물론 퇴직금 등 재정적 불이익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또한, 전공의들은 실질적인 수련 환경 개선책 없는 신규 전공의 모집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낮은 수가, 의료 소송 부담, 과도한 근무 시간 등 열악한 근무 환경이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신규 모집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수리하려 해도 병원마다 근로계약 형태가 달라 법률 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등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전체 수련기간 일괄 계약 형태와 1년 단위 계약 등 다양한 계약 형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전날 공문을 통해 “전공의 결원 확정과 하반기 전공의 모집 인원 신청 조치를 위한 내 이행하지 않는 수련병원에 대해서는 내년도 전공의 정원 감원 등이 이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수련병원들은 정부가 사태 장기화의 책임을 병원들에 전가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현재 수련병원들은 전공의들의 병원이 탈로 인한 인력 부족으로 입원·수술 등이 대폭 감소하면서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재정 여건이 취약한 지방사립대 병원 등은 도산 위기에 직면한 상황이다.

의료계 관계자들은 정부의 이번 조치가 사실상 마지막 의료 사태 출구 전략이라고 보고 있다. 한 대학병원 관계자는 “정부는 더 이상 내용을 대책이 없으니 이제 병원장과 교수들이 돌아오라고 전공의들을 설득하라는 것”이라며, “병원이 복귀시키든, 사직을 처리하든 결정하지 못해 하반기 전공의들을 선발하지 못하게 되면 병원 책임으로 미루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나래 기자

정부, 세제개편안 발표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 줄타기

여소야대 정국 속 야당 압박 거세져... 세수펀크 해결책 마련 시급

윤석열 정부가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앞두고 ‘건전재정’과 ‘경기부양’ 사이에서 고심하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 속에서 거대 야당의 지적이 잇따르는 가운데, 내수 부진과 저출생 등 산적한 현안을 해결하면서도 ‘세수펀크’ 사태를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9일 재정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에 앞서 이달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 마련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문에 답변하며, 세수결손, 내수경기 침체, 부동산 정책, 저출생, 감세정책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야당 의원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 경제정책 기조가 저성장으로 이어졌다고 지적하며 정책 전환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는 소득세와 상속세 개편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와

상속세가 둘 다 높은 수준이고 최고 세율은 높은 부분도 있지만, 소득 분위별로 따져보면 소득이 높은 분위의 소득세율이 낮은 수준은 아니라고 평가를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발언으로 미루어 볼 때, 곧 발표될 세제개편안에 소득세와 상속세 개편 방향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발표 전까지 고민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윤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부자감세’라는 야당의 공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재정당국의 세제개편안 발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기재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및 역동경제 로드맵을 통해 공격적인 세제지원 방침을 밝힌 이후, 추가 세제지원안이 나올 가능성이 제기되며 감세정책과 건전재정 기조 사이의 충돌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건전재정을 추구한다면 세수를 확보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데, 건전재정을 표방하면

서 감세를 시행하고 있고 세수도 잘 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정확히 말하면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것인지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인지 사실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기재부는 세수결손에 대한 해결방안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작년 56조원대의 역대 최대 세수펀크에 이어 올해도 당초 예상보다 세수가 덜 걷히며 2년 연속 세수펀크가 현실화되었기 때문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올해도 세수사정이 썩 좋은 것 같지 않다”며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재정운용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러한 상황에서 기재부는 최근 ‘주요국 의무-경직성 지출검토 사례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주요국의 지출검토 사례를 분석해 우리나라의 기존 재정지출을 재검토하고 새로운 재정수요를 담을 재정여력 확보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보장성 기금 등 국가가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거나 탄력적으로 조절하기 어려운 의무-경직성 지출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유사한 상황에 직면한 주요국들의 지출검토 사례들을 분석함으로써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시사점을 참고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나래 기자

SK그룹, 상반기 시가총액 66조 원 증가... 삼성그룹 700조원 탈환

반도체 업황 회복에 힘입어 SK하이닉스·삼성전자 주가 상승

SK그룹이 올 상반기 국내 증시를 주도하며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했다. 자회사 SK하이닉스의 영향으로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66조원 늘어나며 두각을 나타냈다. 삼성그룹 역시 반도체 업황 회복에 따른 삼성전자 주가 상승으로 시총 700조 원선을 탈환했다.

9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텍스에 따르면 76개 대기업 집단에 속한 상장기업 366곳의 시가총액은 지난 5일 종가 기준 1937조7553억원으로, 올해 1월2일 1834조3927억원 대비 103조3628억원(5.6%) 증가했다.

재계 1위는 삼성그룹으로 시가총액은 721조5250억원이다. 연초 665조2850억원에서 700조원 고지를 넘겼다. 핵심 계

열사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은 연초 475조 1947억원에서 이달 519조9681억원으로 44조7734억원(9.4%) 증가했다.

SK그룹은 247조2100억원으로 재계 2위에 올랐다. 연초 2위였던 LG그룹(163조 3310억원)을 이달 현재 앞섰다. 같은 기간 SK그룹의 시총은 36.0%(65조4920억원) 증가한 반면, LG그룹은 12.4%(-23조410억원) 감소했다. SK그룹은 반도체 자회사인 SK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이 올해 68조1410억원(65.7%↑) 급증하며 그룹 전체의 순위를 한 단계 끌어올렸다.

재계 시총 4위인 현대차그룹(160조 1850억원)은 연초 대비 시가총액이 22.2% 증가하며 3위 LG그룹을 3조원 차이로 바짝 추격 중이다. 이나래 기자

이어 ▲포스코(69조4660억원) ▲HD현대(53조2000억원) ▲셀트리온(44조2070억원) ▲에코프로(39조3750억원) ▲한화(37조3640억원) 등 순이다.

HD현대그룹은 연초 대비 19조2010억원(56.8%) 상승하며, 재계 시총 서열 10위에서 6위로 4계단 도약했다. 지난 5월 HD현대마린솔루션이 신규 상장하고, AI 발 전력 인프라 수혜주로 부상한 HD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상승 영향에 따른 것이다.

반면 LG그룹과 함께 포스코그룹, 에코프로 등은 2차 전지 산업 정체로 시가 총액이 연초 대비 하락했다. AI 산업에서 차별화를 보이지 못한 카카오(36조8990억원)는 28.6%(14조7778억원↓), 네이버(27조3010억원)도 26.1%(-9조6471억원) 각각 감소했다. 이나래 기자

김범수, 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 소환

카카오 그룹 쇠신 노력에도 사법 리스크 지속

카카오 그룹의 사법 리스크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9일,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혁신위원장이 SM엔터테인먼트(SM) 시세조종 혐의로 검찰에 소환되었다. 이는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실제로 일어나자 카카오 사내 분위기가 다시 한번 술렁이고 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이날 오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김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김 위원장은 이른 아침 검찰에 출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카카오가 지난해 2월 SM 인수 과정에서 하이브와 경합하던 중 SM 주가를 공개매수 가격인 12만원 이상으로 상승 및 고정시키려 시세조종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특히 김 위원장의 지시나 승인이 있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이번 소환은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조사 이후 이루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후 보완 수사를 진행했고, 카카오에 대한 압수수색도 실시했다. 또한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 등을 재판에 넘겼으며, 최근에는 황태선 CA협약체 총괄대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남부지검은 SM 시세조종 의혹 외에도 카카오 엔터테인먼트의 드라마 제작사 고가 인수 의혹, 카카오 모바일의 콜 몰아주기 의혹, 카카오의 블록체인 플랫폼 클레이튼 관계사 임원들의 횡령배임 등 의혹 등 총 4건의 사안을 조사하고 있다.

한편, 카카오는 지난해부터 대대적인 쇠신에 나섰다. 올해 3월에는 정신아 전 카카오벤처스 대표를 새 대표이사로 선임했고, 카카오엔터테인먼트, 카카오게임즈 등 계열사 대표도 교체했다. 그중 킨트플랫폼 역할을 하는 ‘CA협약체’는 협약 계열사의 신규 투자 집행 및 유치, 지원



과거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 조종 의혹과 관련해 서울 금융감독원으로 출석하던 모습. ©뉴스시스

매각 프로세스를 강화했으며,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는 계열사 쇠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신아 대표는 올해 카카오특의 본원적 경쟁력 강화와 함께 글로벌 시장 진출과 AI를 통한 장기 성장동력 확보를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달 초에는 AI 전담조직 ‘카나나’를 신설하고 서비스와 모델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 카카오는 생성형 AI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시장에서 새 성장동력을 찾기로 했다. 지난 4월에는 약 2930억원 규모의 해외 교환사채(EB)를 발행하고, 이 중 1930억원을 플랫폼과 AI, 콘텐츠 강화를 위한 M&A와 합작법인(JV) 설립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나래 기자

동아보검

경옥고

소중한 당신께 귀한 마음을 담은

‘프리미엄 한방 자양강장제’

다음 경우의 자양강장
병중병후 · 허약체질 · 육체피로 · 권태 · 갱년기 장애

동아보검 경옥고는 동아보검 처방으로 엄선된 약재를 120시간 달여
소중한 분을 위해 완성한 한방 프리미엄 자양강장제입니다.

인원의약품 | 광고심의필 | 2023-1688-003600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처방전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상의하십시오

英법원, 성경적 견해로 채용 취소한 고용주에 손들어줘

영국 법원이 동성애에 대한 성경적 견해를 이유로 직원 채용을 취소하고 복직을 거부한 고용주의 손을 들어줬다. 미국 크리스천포스트(CP)에 따르면, 채용이 취소된 펠릭스 응골레(46)는 독실한 기독교 사회복지사로 알려졌다.

응골레의 법률 대리인 영국 기독교법률센터(Christian Legal Centre)에 따르면, 고용재판소의 조나단 브레인 판사는 NHS 채용 담당자인 터치스톤 리즈(Touchstone Leeds)가 채용 제안을 철회한 것이 응골레에게 직접적인 차별을 가한 것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소는 응골레의 신념을 더

깊이 조사하기 위한 2차 면접을 포함한 후속 절차에서, 간접 차별 및 괴롭힘을 당했다는 그의 주장을 기각했다.

브레인 판사는 채용 철회가 응골레의 견해가 성소수자 환자들의 정신 건강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우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재판소는 고객의 신뢰와 안전을 유지하는 것이 터치스톤의 채용 취소를 정당화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결론지었다.

반면, 기독교법률센터는 이번 판결이 LGBT 이념을 적극적으로 지지하지 않는 개인들의 고용 기회를 제한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든다고 비판했다.

기독교법률센터의 CEO인 안드레아 윌리엄스는 재판소의 결정이 "왜곡된 논리"를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녀는 이번 판결이 전통적인 기독교 신앙의 자유로운 표현을 저해하며, 유사한 견해를 가진 사람들에게 대한 광범위한 고용 차별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응골레는 또한 판결이 LGBT 이념을 지지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의 취업을 불가능하게 만들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2년, 터치스톤은 응골레에게 병원의 퇴원 정신 건강 지원 요원직을 제안했다. 당시 그는 면접에서 15명의 다른 지원자들보다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그러나 터치스톤 경영진은 응골레가 소셜 미디어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관한 종교적 발언으로 소송에 연루된 사실을 발



(오른쪽) 영국의 기독교 사회 복지사인 펠릭스 응골레. ©기독교법률센터(CLC)

나 터치스톤 경영진은 응골레가 소셜 미디어에서 동성애와 동성 결혼에 관한 종교적 발언으로 소송에 연루된 사실을 발

견한 후 그의 채용을 철회했다. 앞서 영국의 셰필드 대학교(Sheffield University)는 응골레가 성경적 견해를

표명했다는 이유로 사회복지학 과정에서 그를 퇴출시켰다. 2019년 항소 법원은 자신의 신념을 이유로 누구도 차별받을 수 없다고 판결하며, 그가 사회복지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다.

두 번째 면접에서 터치스톤은 응골레에게 동성애 관련 질문을 어떻게 증진할 것인지에 대해 질문했다. 또한 그는 의무적인 LGBT 인식 교육을 받아야 하며, 다른 직원들이 LGBT 이념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반면, 자신은 제약이 있을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현재 응골레는 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항소를 준비하고 있다. 김유진 기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어린이병원 등 공습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을 해 최소 31명이 숨졌다.

8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엑스(X·옛 트위터)에 러시아군이 미사일 40여발을 발사해 키이우·드니프로·크리비리흐·슬로비안스크·크라마토르스크 등 여러 도시의 아파트와 인프라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이날 공습으로 최소 31명이 숨지고 150여 명이 다쳤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를 겨냥한 미사일 공격은 지난 3월 말 이후 3

개월여 만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오희마트디트 어린이 병원에도 미사일이 떨어져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빅토르 리아슈코 우크라이나 보건부 장관은 미사일 공습 당시 세 건의 심장 수술이 진행중이었다면서 이로 인해 환자들의 수술 부위가 폭발 잔해로 오염됐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병원에 입원 중인 약 환자들도 긴급하게 대피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세계가 이 문제에 대해 침묵해서는 안되며 모두가 러시아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했다.

러시아는 에너지 시설 파괴 시도에 대

응해 우크라이나 군사시설과 공공기지를 공습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어린이병원 등 민간시설을 겨냥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지난달 우크라이나 보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1600개가 넘는 의료 시설이 피해를 입었고 214개의 시설이 파괴됐다.

우크라이나 보안국(SBU)은 어린이병원 공습 현장에서 러시아 공대지 순항미사일 Kh-101 잔해를 발견하고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류현주 기자

파키스탄 폭도들, 경찰서 공격... 쿠란 모독 혐의로 조사받던 남성 살해

인기관광지 마이단서 외지 관광객 신성모독 혐의로 희생

파키스탄 북서부 카이베르 파크툽unk 와주의 인기 관광지 마이단 경찰은 21일 이슬람 성서 쿠란을 모독한 혐의로 경찰서에 갇혀 있던 남성을 살해한 무슬림 폭도 수백명의 사람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경찰 관계자 자히드 칸은 "경찰이 20일 밤(현지시간) 마이단의 경찰서를 공격, 불을 지르고 용의자를 살해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살해된 모하마드 이스마일은 동

부 펀자브 지방에서 온 관광객으로, 마을의 호텔에 머물고 있었는데 호텔에서 쿠란을 불태웠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서에서 조사받고 있었다고 말했다.

그가 조사받고 있을 때 폭도들이 경찰서를 공격, 이스마일을 납치한 후 살해했다고 말했다. 칸은 "경찰이 20일 밤(현지시간) 마이단의 경찰서를 공격, 불을 지르고 용의자를 살해한 사람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파키스탄에서는 신성모독에 대한 비

난과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파키스탄의 신성모독법은 이슬람교나 무슬림들을 모욕한 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누구든 사형을 선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스마일은 단지 신성모독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을 뿐이었지만, 이러한 사실을 전해 듣고 분노한 폭도들의 폭동으로 희생된 것이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 지방에서도 지난달 폭도들이 72세의 기독교인 남성을 쿠란을 모독했다고 비난하며 공격, 병원에서 치료받던 기독교도가 나중에 사망하는 일이 있었다.

유세진 기자

하마스 "가자전쟁 지속으로 신병 수 천명 징집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알 카삼 여단은 7일(현지시간) 지난 해 10월 이후 가자 전쟁으로 이스라엘과의 교전이 계속되면서 신병 수천 명을 새로 모집했으며, 필요할 경우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군에 입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 카삼부대의 아부 오바이다 대변인은 미리 녹화된 동영상 성명을 통해서 "전쟁이 시작된 이후 수 천명의 신병들이 지지층으로부터 징집되어 입대했으며 앞으로 필요할 때에는 수 천 명이 더 입대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오바이다 대변인은 "알카삼 여단의 인적 자원은 탁월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우리 전투원들의 전투 능력과 지구력은 점점 더 커지고 강력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알 카삼부대의 24개 사단이 가자지구 북단에서 남단까지 전 지역에서 전투를 하고 있으며 "다른 저항군 단체들에서 온 무장한 지하드 형제들과 함께 싸우고 있다"고 밝혔다.

가자지구의 팔레스타인 저항군은 방어 능력을 크게 향상시켰으며 이스라엘군의 무기와 탄약, 로켓포 등을 재활용해서 쓰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한편 이스라엘군은 지난 7일 발표한 성명에서 가자지구에서 이 군의 폭격과 지상 작전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마스 테러 부대가 인도주의적 대피 구역 안에서도 작전을 계속하며 조직적으로 국제법을 위반한다. 또한 민간인 건물과 인적 자원을 동원해서 이

스라엘에 대한 테러 공격에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현재 카타르와 이집트가 미국과 함께 가자지구의 이스라엘군과 하마스를 상대로 종전과 포로 교환을 위해 노력 중이다. 첫 번 휴전은 지난해 12월 초에 이뤄졌지만 단 1주일 지속하는 데 그쳤다.

이스라엘은 지난해 10월 하마스의 이스라엘기습 공격으로 1200명의 국민이 죽고 200여명이 납치된 다음 날부터 가자지구에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

지난 24시간 동안 이스라엘군의 공격으로 가자지구에서 55명이 살해되고 123명이 다쳤다. 7일 발표된 가자지구 보건부 통계에 따르면 개전 이후 지금까지 팔레스타인 사망자 수는 3만8153명, 부상자는 8만7828명에 달한다.

차미레 기자

이슬람 시장 성장... 식약처,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 추진

인증 인허가 절차 교육 및 컨설팅 등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화장품 할랄(HALAL) 인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식약처는 국내 화장품의 이슬람 시장 진출을 위한 '화장품 할랄인증 지원사업'을 한국할랄산업연구원과 함께 진행한다.

할랄은 이슬람교 경전에 따라 만들고 먹고 쓰는 것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다. 이슬람교도는 전 세계 인구의 24.7%(약 19억 명)에 해당하며, 이슬람 할랄 시장(약 2조 달러)이 지속 성장(연간 8.9%함)에 따라 할랄 화장품 시장도 확대되고 있어 할랄 인증에 대한 요구도

증가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대표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는 2026년 10월부터 자국 내 유통되는 모든 화장품에 대한 할랄인증 정보를 표시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할랄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영업자를 대상으로 ▲할랄 화장품 인증 인허가 절차 온라인 교육 ▲국내 할랄인증 기관과 해외 인증기관 전문가 세미나 및 상담회 ▲할랄인증 희망 업체 대상 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다.

또 인도네시아 종교부와 고위급 면담을 통해 할랄 인증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으며, 국내 화장품이 인도네시아 시장에 활발히 진출할 수 있도록 국내 할랄인증기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RIPH) 간의 상호교차인증을 위한 신속 평가를 요청했다.

상호교차인증은 국내 할랄인증기관 인증으로 인도네시아 할랄인증청(BRIPH) 인증을 면제해주는 것을 말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우리 화장품이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황재희 기자

기회를 '캠'

가치를 '캠'

가능성을 '캠'

대한민국 희망을 캠 '캠코'

부채로 힘든 서민들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기에 빠진 기업이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국민이 국가자산을 누릴 수 있도록
언제나 당신편에 서서 대한민국 자산을
희망으로 바꾸는 일, 캠코가 하고 있습니다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한국자산관리공사

- 위태로운 기업의 기회를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발급금
- 집재된 국가자산의 가치를
 - 유류 지형권 국유재산 관리
 -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 OnBid(온비드)
- 재기를 꿈꾸는 기업의 가능성을
 - 기업구조조정펀드 · 캠프신비금융
 - 기업구조조정지원센터(기업)

금융위원회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홈페이지 www.kamco.or.kr 문의 1588-3570

예수 안에서 선택 받은 우리



본문: 엡 1:3-14, 사 64:1-9, 막 13:28-37
설교: 양우리교회 최부욱 목사

오늘은 강림 후 일곱째 주일이다. 어느덧 반년이 지나면서, 올해의 후반기에 접어들었고 이제 그 첫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다. 비록 장마철이고 무렵기도 하지만, 이토록 건강하게 생존하며, 가족과 이웃들과 교회들과 백성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창조된 세계와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 수 있음에 감사한 맘 그치지 않는다. 이토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린다.

사실 우리네 삶의 정황은 매우 어둡다. 지난 주 간에는 경기도 화성의 리튬 배터리 공장인 아리셀에서 대폭발 참사가 발생하여 무려 23명의 노동자들이 사망하면서, 우리네 열악한 노동 현장 상황이 여지없이 노출되었다. 그 대부분이 코리안 드림을 갖고 취업한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는 점에서 아픔이 더욱 크다. 그런가 하면 서해 북방한계선에서는 9.19 군사합의서가 무효가 되면서, 또다시 화약고가 되어 전쟁 연습장으로 돌변한 상태이다. 무서운 지뢰밭들이다.

이런 중에 우리는 오늘 맥추감사절을 맞는다. 그리고 세 본문으로 주신 말씀들을 받는다. 이때엔 우리의 시선과 마음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까가 중요하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두 영역(경제와 부정, 사적과 공적)에서 어느 하나만이 아닌 양면 모두를 그의 섭리 속에서 이끌어가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어느 한 부분 때문에, 주를 향한 우리의 예배와 경배가 제한되거나 훼손되어서는 아니 되기 때문이다. 역사는 역시 하나님의 것 아닌가!

교회의 사도요 세계적 전도자인 바울 사도는 항상 그 자신이 유대인이면서도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한 전도자로서 평생을 헌신한 자였다. 그러기에 그는 현상의 문제점도 보았다. 그것은 언제나 이방인에 대한 우월적이고도 배타적 성향을 간직한 유대인과 그로 인한 수동적 입장을 먼저 못하던 이방인 사이의 긴장과 갈등이 현존했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바울은 그것을 극복하는 길이 무엇임을 깊이 통찰하면서 그 종합적 대안을 제시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았다.

바울의 가장 내세운 대안적(代案的) 선언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平和)로서,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 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십자가)로 허무셨다는 점이었다(엡2:14).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가 예수 안에서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 되었다고 외쳤다(2:19절). 아울러 바울은 예수를 친히 '모퉁이 머릿돌이 되셨다고 강조하였다(20절). 그래서 우리는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그분 안에서 하나라고 했다.

결국 예수를 머리로서 하여 서로 다른 돌이 하나

가 되고 서로 사랑으로 연합과 연대를 이루게 될 때, 무엇이 되겠는가? 그곳에는 하늘 아버지의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고 죽은 자도 살리신 예수의 능력의 역사가 드러나는 곳이 되기에, 당연히 세상 만물은 그 발아래에 복종하게 되고, 하늘과 땅에는 그의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이 펼쳐지게 된다(17-22절). 그제 주님의 몸인 교회가 다(23절). 만물을 총만하게 하는 이의 총만을 맞 보고 누릴 수 있는 곳이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의 예배소서 본문에서 이런 지상 교회의 역할을 소개하기 전에, 그보다 훨씬 앞선 창세 이전에, 하나님께서 보다 놀랍고도 획기적인 일을 준비하신 일이 있었음을 말한다. 이것은 일종에 세상 인간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청사진(틀-가이드 라인)이기도 한데,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음 몇 가지이다 :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만드신 세상과 인간의 구원은 처음부터 끝까지 당신의 사랑하시는 아들이신 '그리스도 안에서(In Christ) 이를 것이고, '그리스도를 통해서(Through Christ) 이를 것임을 확정하신 일이었다. 바울은 이 내용을 매우 비중 있게 강조하며 소개한다(8-13절 참조).

둘째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신 자들(the predestined)이 있음을 전한다. 곧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선택된 자들(the elected)이 있음을 증언한 것이다. 이 우리들이 누구인지는 내용 속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아무튼 바울의 이 증언은 매우 놀랍고 신비롭다. 여기에 참고삼을 만한 대목이 있다. 예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아버지 것이며 내게 주신 사람들로 표현하신 내용이 있었기 때문이다(요17:6-10절). 상호 연계된 무리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이는 저 유명한 칼빈의 예정론(豫定論)의 근거가 된 중요한 내용들이기도 하다.

하지만 바울은 배척(排斥)당하게 된 자들(the rejected)에 대하여는 말이 없다. 구원과 선택 사상만을 뚜렷하게 강조할 뿐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구원으로, 누군가는 버림으로 예정되었다는 잘못된 이중(二重) 예정론은 거부한다. 하나님은 은총의 선택만을 마련하셨을 뿐이지 특정인을 사전에 저주로 점 찍어 놓으신 분이 절대 아니다. 버림으로 심판당한 자들은 분명히 많지만, 그렇다고 인간이 어떤 특정인을 향해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칼 바르트).

셋째는 예정된 자들이 이 지상에서 보여준 모습에 대하여서도 증언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배부신 피의 속량의 잔치에 참여하면서, 거기에서 입은 용서받은 자의 삶을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모습을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됨의 신분으로 산다(4-7절). 하늘의 삶을 땅에서부터 산다. 그리스도가 그의 머리 되시기에, 그의 지체가 되어 산다. 그래서 그들은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기업들이다. 그들에게는 성령께서 함께 계셔서 인침으로 보증을 주신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를 찬송하며 살도록 이끄신다(8-14절).

이사야서에서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운 선대(善待)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알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한 자들이 계속 범죄를 저지르면서 하나님의 선의를 훼손시키고 있음을 통탄해 한다. 그리고 그 죄악이 깊어지면서 이제는 그들이 소멸당할 정도가 되었음을 선지자는 탄식한다. 그러면서도 선지자는 최후의 희망을 버리지 못한다. 그들을 빛으신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그런 백성들을 그 모양 그 꼴로 살다 죽도록 내버려 두지는 아니할 것이라는 점이다(6-9절).

복음서는 바로 그러한 선지자의 기대와 믿음에 부응한 여호와와 응대가 올라와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최후의 구원자요 결정적인 구세주로 보내주셔서, 죄인들을 심판에 대비하도록 독려하셨기 때문이다. '깨어 있으라(Watch, Be alert)고 간곡히 당부하셨다(33-37절). 마치 집 지키는 종에게 주인이 당부하신 그 말씀을, 우리 믿는 자에게도 주셨다!

1. 서신서 / 엡 1:3-14 / "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라 ---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시라 예수 그리스도도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恩寵-Grace)에 대하여 감격하며 증언한다. 우리는 여기에 오른 내용의 영광스러운 증언들을 믿음으로 받아, 감사와 감격 속에 우리에게 성령으로 부여된 하나님의 자녀와 그의 영광스러운 기업이란 위치를 가슴에 담고, 이 세상에서의 부여된 삶을 기쁨으로 묵묵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겠다 :

1) 우리는 누군가? 만물과 만유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택(擇)하셔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베풀어 주시려고 택함 받은(-기획) 받은 대상들이다. 예수는 누구며, 그를 통한 복은 어떤 것이었나? 예수는 새롭게 된 인류의 구원자로 정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택함받은 우리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아들들)가 되는 관계가 된 존재들이라(6절).

그러기에 예수는 오셔서 그가 택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부터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가르치셨다(마6:9참조). 그러면서 자녀들의 신분으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안내하셨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과 신뢰로 모든 것을 주고받는 관계로 격상(格上)시키신 대단히 영광(榮光)스러운 조치이기도 하다. 천한 인간에게는 신분의 대변화이다. 당연히 은혜의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큰 사건이 아닐 수 없다(6:12, 14절 참조)

2) 아들 그리스도께서는 이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를 공고히 하시기 위하여 그의 선택된 무리들을 위하여 그 누구도 취할 수 없는 선제적(先制的) 조치를 취하셨다. 이 방식은 무엇인가? 부족한 우리의 회생을 먼저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우리의 죄악을 씻어낼 제물이 될 십자가의 속죄물로 무죄한 당신의 거룩한 피를 쏟아 내신으로

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기에 합당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셨다. 피의 맹약으로 이루어진 하늘 가족이 되게 하신 것이었다(7-9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할 통일(統一)을 이를 기반이 구축된 것이다(10절).

3) 이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속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런 계획은 오랜 전에 창조주 아버지께서 연합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선택하고 예정하신 조치이기도 하다(11-12절). 이어 저 그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있으랴

4) 이런 사실은 십자가의 체험을 먼저 한 제자들이 온 세상에 복음으로 전파되면서, 온 세상에 알려진 사실이기도 하다. 이방인 그리스도인은 그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며, 성령이 임하셔서 인(印)쳐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이제 명실공히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고, 그의 몸된 거룩한 그리스도의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 되어 들어가게 된 것이다(13-14절).

2. 예언서 / 사 64:1-9 / "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

선지자는 이런 좋으신 하나님의 은총의 계획을 불신과 의혹으로 받아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발생하는 그의 백성들의 모습을 통탄(痛歎)해한다. 그러면서 선지자는 주께서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도록 해주시고,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고 탄원한다(1-4절).

1) 주님은 대체 누구를 선대(善待)하여 만나 주시고 교제하여 주시는가? 기쁘게 공의(公義)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들이다(5절). 하지만 그의 백성된 자들(우리)이 불신과 불순종으로 범죄함으로써, 주께서 진노하게 하였고, 그 잘못된 모습을 고치지 못한 채 오래 계속해 옴으로써, 이제는 다 부정(不正)한 자 같게 되었고, 불의한 자 같이 되었으며, 시들어진 잎사귀처럼 되어서, 자신들이 다 소멸(消滅)되게 되었다. 참으로 구원을 바랄 수 없는 처지가 되었다(6-7절).

2) 놀라운 것은 이런 꺼져가는 처지에 몰렸어도, 선지자는 마지막 희망을 전하자 여호와 하나님께 걸고 간구를 올린다. 비록 백성들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분발하여 주를 붙잡지 못하는 처지이긴 하지만, 여호와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향한 긍휼과 자비를 품고 계신 분이심을 믿기에, 그리고 '결코 당신의 자녀들이 죄악에 빠져서 그렇게 허망하게 지옥 가도록 내버려 두지는 못하시리라'는 놀라운 믿음(?)을 가지고 뜨겁게 간구한다 :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옵고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9절).

3. 복음서 / 막 13:28-37 / " 그러므로 깨어 있으



라 --- 그(집주인)가 홀연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 "

선지자의 그런 간구는 오랜 세월을 경과하면서, 드디어 하나님은 그 간구에 대한 확실한 응답으로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다.

그렇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처음부터 임박한 하나님의 나라(천국)의 도래를 예고하시면서, '회개하여 구원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셨다(막 1:15). 그중에 유독 하나님 나라의 임박성을 일깨우시면서, 당신의 사람들에게 '주의(注意)하라 깨어 있으라'를 강조하셨다.

1) 임박한 종말 사상의 핵심은 교회를 깨어 있게 하는 데에 있다. 30절의 강조는 현재 살아 있는 세대들이 더욱 긴박히 깨어 종말에 임하도록 하고자 함이다.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아는 자도 없는데, 당신의 거짓 선지자 중에서는 그날과 그때를 자기만 알고 있는 것처럼 간주하게 하여서,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자 했고, 개인의 신앙을 불순종과 이해 없이 믿는 맹신앙으로 인도하는 자들도 있었다. 하지만 그날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실 뿐임을 기억하자(32절).

2) 유일한 대비책은 자주적으로 깨어 사는 일이다(33-37절). 집주인이 언제 어느 순간에 오실 줄 모르니 깨어 있어야 한다. 주인으로 사무와 살림을 위탁받아 깨어 사는 청지기처럼 깨어 있어야 한다. 홀연히 돌아온 집주인의 책망을 받지 않게 되도록 깨어 살아야 한다(33-37절).

참 감사드릴 맥추절이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예정된 존재로 택함 받은 사실을 확인하며 감사를 드려야 하겠다. 그런 예정자의 반열에 나같은 죄인이 일일이 되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血) 형제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아 살게 된 일도 감사드려야 하겠다. 그리고 부족한 존재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열심을 갖게 하셔서 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성령님께 감사드려야 하겠다. 감사로 살아 있음을 보여 드려야 한다.

부디 이 귀한 은총을 입은 우리가 그분 앞에 설 때까지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게 되도록, 우리 서로 더욱 격려하고 응원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로 결속되기를 축원한다. 자료 제공: 기장 총회 ※ 외부 기고 및 칼럼, 설교, 강연 등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AMJIN 삼진제약

해열 진통제 상비약 걱정 끝!

게보린[®]쿨다운정

광고심의필: 2022-1618-003300
[성분 및 함량] 아세트아미노펜 400mg + 빈포타민 8mg + 리보플라빈 4mg + 아스코르빈산 100mg **[효능 및 효과]** 1. 두통, 치통, 발치 후 통증(통증), 인후통, 귀의 통증, 관절통, 신경통, 요통, 근육통, 건통(아깨결림), 타박상, 골절통, 염좌통(염좌통), 월경통(생리통), 외상통의 진통 2. 오한, 발열시의 해열 **[용법 및 용량]** 만 15세 이상 및 성인: 1일 3회, 1회 1정 공복(빈 속)을 피하여 복용한다. 복용 간격은 4시간 이상으로 한다.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첨부된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와 상의하십시오. 제품문의전화: 080-082-1234 (수신자 부담) www.samjinpharm.co.kr

성령은 내면에 성전을 짓고 풍성한 생명을 불어 넣으신다



홍광선 목사
노아의방주선교회

주님은 제자들에게 놀라운 약속을 하셨다. 이는 실로 엄청난 약속이다. 그분이 아버지께 간구하여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길 것이라고 약속하신 것이다. 이 보혜사는 단순히 잠시 동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거하며 우리 속 깊은 곳에 함께 계실 것이라는 것이다. (요 14:16,17) 이는 얼마나 놀라운 약속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것이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거처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우리의 죄를 회개할 때,

그것은 단순히 우리 죄의 용서만을 받는 것이 아니다. 그 순간 우리의 마음에는 성령께서 내주하실 수 있는 거룩한 통로가 열리는 것이다. 이는 마치 오랫동안 닫혀있던 문이 열리고 그 문을 통해 찬란한 빛이 들어오는 것과 같다.

주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면, 복음 사역의 진정한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이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의 심령은 점차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 간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풍성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는 마치 메마른 땅에 생명의 강물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과 같다. 우리의 영혼이 생기를 얻고, 우리의 삶이 열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이다. (갈 5:22,23)

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축복인가?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제자들과 물리적으로 함께 계셨지만, 그분이 떠나신 후에는 성령을 통해 모든 믿는 자들과 함께 하신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 구약의 성전이 신약의 성도로 옮겨온 것이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시기 위하여 지으라 하신 성소(출 26:8),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며 그토록 기뻐하며 춤을 추었던 다윗이 세웠던 다윗의 장막(삼하 6:14,15),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던 솔로몬 성전(왕상 8:11)이 신약 시대에 이르러, 구약의 성전이 지녔던 모든 영광과 임재가 이제는 신약 성도들에게로 옮겨온 것이다.

이제 우리의 몸이 곧 예배의 장소가 되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되었다. 구약의 성소, 법궤, 성전이 상징하던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는 각 성도 안에 있다. 우리 각자가 바로 성전인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이 특권에는 책임도 따른다. 구약 성도들이 물리적 성전을 관리했듯이, 우리는 이제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세우고 성장시켜야 한다. 사도 바울은 에베

소 교인들에게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강조하며, 그 비결로 성령의 전을 잘 지어갈 것을 말씀한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니라' (엡 2:22)

안타깝게도, 구약 성도들도 성전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꾸지 못하고 더러운 것들과 우상으로 가득 채웠듯이, 지금에 신약 성도가 고린도 교인들과 같이 자신이 성령의 전인지조차 모르는 자들도 많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 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고전 6:19,20)

성령의 내주하심을 잘 알지 못하면 어찌 성령의 전을 건축하겠는가? 성령님은 이 성전의 건축자이시며 거주자이시다. 우리는 성령께서 자신이 거하시려고 건축해 나가실 때 더욱 경외함과 존경함으로

자신을 낮추고 엎드리며, 우리의 가장 깊은 부분을 산 제물로 드릴 때 그분이 받으시고 솔로몬 성전봉헌식처럼 불로 흠향하시고 영광으로 채우실 것이다. (대하 7:1)

우리는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을 소유하고 또한 그분께 소유되어야 한다. 마치 어떤 사람을 알려면 그에게 가까이 가서 그와 교제해 보아야 아는 것처럼 성령님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사는 것만이 유일한 길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성전의 건축자이자 거주자이신 성령님의 내주하심만 어렵듯이 알아서는 절대 성전을 잘 지을 수가 없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게 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간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단순한 지식적인 가르침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이 시작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분이 임재하시게 나타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눅 17:21)는 주님의 가르치심은 성령의 내주하심과 임재에 관한 말씀임을 확실히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우리는 성령님을 환영하고 그분 안에 거함으로써 그분을 알아가게 되며, 그분과의 친밀함 속에서 우리의 영적 성전이 지어져 간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고전 4:20)

성령의 내주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성령의 전이 지어져 갈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성도들을 진정 자유케 할 것이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서 영혼의 참 생명과 만족 속에서 세상과 죄악에 마음 뺏기지 않고 생명을 나누어주는 축복된 삶이 시작된다. 우리 안에 흐르는 생수의 강을 통해 우리는 참된 생명과 만족을 누리며, 이 생명을 다른 이들과 나누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버들숲



정재우 목사
세인트하우스 펍텍

세상에는 많은 숲의 도시가 있다. 필자가 직접 여행하며 만난 인상 깊은 숲의 도시 중 시드니는 도시 전체를 감싸는 숲으로 유명하고, 뉴욕의 센트럴파크는 세계적 경제 수도의 심장부에 자리 잡고 있다. 밴쿠버의 스탠리 파크는 울창한 숲과 아름다운 해변을 자랑한다.

가까운 일본에는 1800년대에 세워진 나라시의 사슴공원이 있다. 저장성의 성도 항저우는 서호를 중심으로 잘 정비된 녹지를 갖추고 있으며, 방콕의 수완 왕립 공원은 인공 호수와 자연 정원이 어우러진다. 그리고 기업도시가 있는 북악산과 도시를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 북악산, 도심 중심부에 위치한 남산, 서울 서쪽에 있어 청계천으로 연결되는 바람의 길을 내어준 인왕산과 남쪽으로 관악산과 북쪽의 도봉산. 그리고 사방의 산들 중심에 유유히 흐르는 한강이 있는 숲의 도시 서울이 있다.

그러나 필자의 고향 진해의 청정했던

진해만은 산업화로 오염되었다. 그리운 고향의 바다와 달리, 천연 그대로의 춘천은 여전히 쾌적하다. 춘천은 기후 위기 속에서도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한국을 찾는 외국 관광객의 필수 코스인 남이섬의 숲은 공원 창립자의 소망대로 새들이 자유롭게 놀던 평화로운 숲이었지만, 현재는 너무 많은 방문객으로 인해 새들이 떠나버린 숲이 되어 버렸다. 숲은 우리의 생명줄이다. 숲이 살아야 사람이 산다. 도시에 숲을 살려야 도시는 호흡할 수 있다. 펍텍은 어떤 도시인가? 산이나 숲이 보이지 않는다. 아파트 인구가 절반을 넘어선 아파트숲 도시이다. 이 도시를 살려내려면 숲을 만들어야 한다. 자연이 허락하지 않은 환경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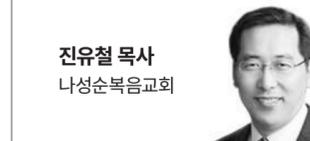
가로수를 대량으로 심어 숲을 만드는 시민운동이 필요하다. 그늘막보다 한 그루의 나무를 더 심고, 숨을 제대로 쉴 수 있는 숲길을 내어 사람들이 선호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 펍텍은 진위천과 안성천이 만나 펍텍강이 되는 도심의 심장 펍텍강을 살리고, 강변을 따라 숲을 만들어야 한다. 특히 강변에 잘 자라는 버드나무를 많이 심어 버들숲을 조성하면 좋을 것이다.

버드나무가 가로수로 서 있는 강가의 숲, 지금 시작하면 적어도 30년 후에는 울창한 숲이 될 것이다. 후손들이 행복하게 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숲길을 만들어 줌과 문화가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일이다. 숲과 문화공간이 함께 어우러진 버들숲은 가족 단위로 찾는 산책로, 캠핑존, 자전거 코스 등 다양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도시공학과 숲, 숲과 문화공간, 그리고 시민의 행복이 연결된 도시는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유산이다. 최근 펍텍 오성면 강가에 자리 잡은 <문화공간 버들숲>은 시민들에게 문화라는 숲을 제공하려는 비전을 가지고 있다. 앞으로 시민들의 선택, 가족 캠프, 가족친화 교육 제공, 청소년 문화공간으로 활용될 것이다.

버들숲은 도시의 미래이다. 우리가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반도체 기지화로 생태계의 위기를 맞고 있는 도시 재생을 위한 대안이다. 도시와 자연이 공존하는 공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공간, 그리고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버들숲을 조성해 펍텍이 숲과 문화의 도시로 발전하기를 꿈꾸어 본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진윤철 목사
나성순복음교회

어떤 순간에도 예수님 묵상해야

예수님의 팔복 4번째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서, '주리고'로 번역된 헬라어는 '폐이는 테스인데, 그냥 배가 고파서 음식을 찾을 때 느끼는 시장기 정도가 아니라 '심히 배가 고파 굶주린 상태'를 의미합니다. 아프리카나 전쟁터 같은 곳의 아사 직전의 굶주린 사람들과 같이 '지금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상태'입니다. '목마른'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땀 손 테스인데, 잠시 목이 말라 물을 찾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사막에서 죽기 직전까지 가서 물을 찾는 목마름을 의미합니다. '의'를 향해 이런 '주리고 목마름'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의'로 번역된 헬라어 '다카이 오쉬네'는 의리, 옳음, 바르고 정직함과 같은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과 것대에서의 의를 뜻합니다. 앞선 복들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은유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의로운 자'가 복이 있다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롬 3:10)라고 말씀하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기준과 잣대로 '의로'운 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참된 '의'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에 '주리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학교 끝나고 집에 오는 사이에 불량식품으로 배불러 버리면 엄마가 정성을 다해 준비해준 영양가 있는 좋은 음식을 못 먹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의에 미칠 수 없는 '자기 의'는 자기가 옳다는 것을 증거 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잘못이 있는 다른 사람을 희생 제물로 삼아 선약으로 정죄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의롭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늘 남과 비교하며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해야 하니까 마음에는 평안이 없고 기쁨도 없습니다. 또 '자기 의'의 사람은 열심히 할수록 비난, 정죄, 심판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복된 배부름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엄청난 성장기록을

가진 한국 교회가 다음세대들을 교회에서 잃어버리게 된 것도 바로 '자기 의에' 빠진 잘못된 부모세대의 신앙에 실망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신앙의 포커스는 "여호와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시 23:1)라고 고백하는 다윗처럼, 언제나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을 주인 되는 삶을 살았더니 많은 문제와 대적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부족함이 없는 복을 누렸습니다. 또 그 복은 넘쳐흘러서 자기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고 유다 전체를 살렸습니다.

구세주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요 6:35) 영원히 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는 복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문제와 고난과 대적과 약함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을 누리실 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24시간 예수님과 동행하는 참된 '의'의 복을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람!

Your True ESG Partner

세상에 행복을 **가** 놓다

'기후위기 대응을 선도하는 글로벌 물기업'

K-water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대한민국의 갈등을 풀고 경제 발전의 물결을 만들어 온 K-water가 세계를 무대로 '새로운 물의 시대'를 활짝 엽니다.

끊임없는 물의 힘으로 극한 기후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고 세계에서 가장 경쟁력 있는 지방시대를 꽃피우겠습니다.

녹색수출과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해 K-water가 함께 뛰겠습니다.

더 나은 미래를 만드는 새로운 물길이 되겠습니다.

K water 한국수자원공사

“초대교회 성도들의 경배” 고린도전서 1장 1~9절



송재호 목사
할렐루야한인교회

초대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육신(成肉身)하신 하나님으로 믿고 그분을 경배했을까요? “성육신”을 신학적으로 조명하려고 노력했던 알리스터 맥그래스(Alister E. McGrath)는 이 질문에 대답하려면 당시 그리스도인의 생각에 많이 영향을 미쳤던 유대의 사고방식을 알아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 이유는 유대적인 사고방식으로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에서 유래하는데 이스라엘 역사에서 끊임없이 반복된 우상 숭배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 이스라엘의 죄를 끊임없이 경고하셨습니다.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와 심판을 받아야 했던 유대인들은 오직 그들의 경배를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 뿐이라는 생각이 깊이 뿌리 내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배경에서 초대 교회 성도들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했다면 우리는 그들이 예수님을 “성육신(成肉身)하신

하나님”으로 알고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약에 사용된 경배와 찬양의 단어들도 구약에서 사용된 표현과 일맥 상통하는 면이 많다는 사실에서도 이러한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약 성경의 여기 저기에는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뜻을 나타내기 위해 “여호와와 이름을 부른”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같은 표현은 신약 성경에서도 같은 표현을 발견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록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분 안에서 기록하여지고 기록한 자 즉 성도(聖徒)라 불리며 나아가 곳곳에서 그들의 주님 되신 예수 이름을 부른다고 말합니다. 구약의 표현에 비추어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한다”는 의미입니다.

구약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했던 것처럼 초대 교회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경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이름을 불러 합당한 찬양과 경배를 올려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일보

www.christiandaily.co.kr

발행인 김규진 편집인 김진영 인쇄인 임채정

02857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로53 / 전화안내 02-739-8119 / 팩스 02-6280-7907

대표메일 corp@cdaily.co.kr 구독문의 02-6085-8166
기사제보 press@cdaily.co.kr 광고문의 02-6082-8165
구독신청 대표구좌 동별 355-0018-9278-03 (주)기독교일보사
1개월 15,000원 / 1부 1,000원

미주 기독교일보 kr.christianitydaily.com
1990년 7월 19일 창간된 기독교일보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기사 제보는

독자께서 기사화 됐으면 좋겠다는 내용이 있다면, 02-739-8119 혹은 press@cdaily.co.kr 등으로 제보 부탁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기사화 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증 공시지가의 21% 금액으로 예배당 매입

김창환 목사
기장 동성애·동성혼 반대
대책위원회 위원장



임대하여 교회를 개척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임대교회를 해보지 않은 목회자들은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성도들의 정성 어린 헌금이 임대료로 들어갈 때의 그 속상함과 안타까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다. 아마 임대교회 목회자에게는 공통적으로 다가오는 아픔일 것이다.

1992년 9월에 교회를 개척하여 상가 건물에서 19년 동안 예배를 드렸다. 처음에는 전세로 있었는데, 건물주가 월세로 바꿨다고 해서 매달 월세를 내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건물주가 갑자기 2개월 안에 상가를 비워달라는 것이다. 이전할 준비도 못한 상태에서 2개월 안에 다른 상가를 찾기는 날짜가 너무 촉박했다. 여러 곳을 알아보았지만 교회로 사용할 수 없다고 하면 대부분 거절하는 바람에 쉽지 않았다. 그리고 재정이 반박하여 원하는 평수를 얻기도 쉽지 않았다.

현재 있는 교회 위치에서 1킬로 거리에 있는 야산을 개발하여 3600 세대의 아파트(아파트하우스)를 새로 짓고 있었다. 필자는 3년 전부터 그 개발 지역을 다니면서 여리고 행진을 수없이 했었다. 그 지역 근처에 상가로 들어가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 신축 아파트 바로 맞은 편에는 10년 전에 푸른마을 아파트 4개 단지(1800 세대)가 세워져 있었다. 신축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 푸른마을 아파트 단지는 바로 야산 맞은편에 있었다. 도로가 2차선으로 좁고 왕래도 적은 지역

이었다. 그래서 푸른마을 아파트 2단지 지하상가 1층은 공실로 남아 있었다.

근처 부동산중개소에 갔다가 공실로 있는 지하상가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10년 동안이나 분양이 되지 않아서 한 달 전에 SH공사(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수의계약 공시를 했다는 내용이다. 10년 동안이나 분양이 안 되자, 감가상각비를 적용해서 최초 분양가의 절반 이하의 금액으로 공시를 한 것이다. 부동산중개소 사장과 함께 그날 바로 서초동 SH공사로 직접 찾아갔다. 수의계약으로 5천 4백만 원에 지하상가(36.28평)를 분양받았다. 급하게 매입계약을 작성하다 보니 교회 명의로 서류가 준비되지 못해서 본인 이름으로 분양을 받았다. 2011년 세무통지서가 나왔는데 공시지가가 2억 5천 3백9십만 원이었다. 건축물과 토지분의 재산세 합계가 126만 원이나 나왔다. 세금은 냈다. 그리고 양천세무서에 가서 강서교회 명의로 ‘비영리법인’으로 등록을 했다. 그랬더니 이후로는 세금이 나오지 않는다고 한다. 원래의 계획은 상가를 임대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임대할 금액으로 그것도 47백5천 4백만 원으로 그것도 공시지가가 2억 5천 4백만 원에 해당하는 상가 건물을 분양 받았다. 할렐루야!

언제나 임대건물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하고 수도 없이 기도하고 생각만 했었는데, 생각지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다. 하나님의 은혜로 상가를 분양받았다. 기적으로 아주 저렴하게 그것도 수의계약으로 매입했다. 그 다음날 상가에 와서 청소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왔다. 무슨 일로 왔냐고 했더니 SH공사 수의계약 분양공시를 보고 상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왔다고 한다. 어제 매입했다고 말했다니 그 사람이 크게 놀라며 “어

떻게 아셨어요? 큰돈 버셨네요, 축하합니다. 자기가 한 발 늦었다”라고 하며 아쉬워했다. 부동산 투자업자인 것 같았다. SH공사 수의계약 분양공시는 공사 홈페이지에 공시한다고 한다. 감사하기도 제가 찾아간 부동산중개소 사장은 부동산 전문학원에 강의를 나가고 있었다. 교회 자리를 찾는다 했더니 자기가 안수 집 사라며 목사님에게 좋은 정보를 주겠다고 했었다.

분양받는 상가 앞 도로의 차선이 개발하면서 2차선에서 왕복 4차선 도로로 확대되었다. 맞은편에는 3600 세대 2011년 4월부터 7월까지 입주 완료할 서울 양천구 신정 3 지구이다. 3년 전부터 온 성도가 이 지역을 놓고 간절히 기도해 왔었다. 기도를 들으시고 상가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린다. 분양받는 상가에서 2011년 4월 3일 주일 첫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도로가 확장되면서 아파트 앞에 소음방지용 방음림을 만들면서 상가 앞에 90평 규모의 주차장이 자연스럽게 생겼다. 그것도 서울 시내 한복판에... 주일날마다 성도들의 자동차가 15대 이상이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강서교회에 임대 가격으로 상가분양에다 텅으로 90평 자리 주차장도 주셨다.

‘건물주가 나가라는 독촉은 신의 한 수였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그냥 임대교회를 계속했을 것이다. 생각해 보니 거기에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다. 꿈을 꾸는 것 같다. 잠도 오지 않는다. 너무 기뻐서, 임대교회에서 해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 강서교회 성도들에게는 8.15 해방 못지않은 경사와 기쁨이었다. 강서교회 성도들도 모두 진심으로 기뻐하셨다. 교회를 섬기다가 먼 지방으로 이사하

거나 결혼하여 부득불 타 지역으로 멀리 떠나야 했던 성도들에게도 이 분양 소식을 전했다. 축하해 주는 의미로 장의자 한 개씩을 한물해 줄 것을 전화로 부탁을 드렸다.

하나같이 기뻐하며 흔쾌히 헌물을 하겠다고 연락이 왔다. 어떤 자매들은 합심하여 강대상을 헌물을 하겠다고 하여 거금을 송금해 왔다. 어떤 청년은 앞으로 결혼할 때 결혼축의금을 받을 것을 미리 예상하고 5백만 원을 빚을 내어 교회 내부 리모델링하라고 헌금을 보내왔다. 그 외에도 상당 수가 장의자 헌금을 보내주었다. 우리 강서교회를 개척하는데 큰 역할을 한 강남교회(전병금 목사)도 1천만 원을 보내주셨다. 교회를 섬기고 있던 성도들도 이런 사실에 고무되어서 모두가 동참하여 교회 내부에 들어갈 성구들 전부 세것으로 구입하였다. 교회 내부 리모델링을 하여 경건한 분위기를 조성했다. 천장에는 천장형 냉온풍기를 설치하였다. 건물 옥상에 원형 종탑을 세우고, 건물 모퉁이에는 돌출 간판을 설치했다. 건물 입구에는 계시판을 만들고, 조그마한 주방도 현대식으로 꾸몄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와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창 22:14).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께서 강서교회를 위해서 예배처소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고 믿는다. 앞으로 도 섬기고 있는 강서교회를 마음을 다해 섬기고 또 1만 명이 넘는 카페회원의 ‘행복한 예수님의 사람들’ 카페지기로도 더욱 분발할 것이다. 성령충만 영성개발원 원장으로, 또한 부흥사로서 한국교회를 온 정성을 다해 섬길 것을 다짐해 본다.

제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를 마치고

이윤희 교수
에스더기도운동 대표



할렐루야!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지난 금요일(7월 5일) 32차 복음통일 컨퍼런스(Jesus Army Conference)를 마쳤습니다.

전국과 해외에서 약 1,600명(부분 참석 포함)이 참석하셨습니다.

매 시간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내려 주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이 큰 은혜를 받고 북한을 향하여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님이 주신 기쁨과 감사가 모두에게 충만했습니다. 한 권사님께서 에스더 본부로 전화하셔서 이번에 교회 자인의 권유로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처음 참여하였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다고 울림

서 감사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컨퍼런스 때 부르짖어 기도하신 탓에 목소리도 다 쉬어 있었습니다. 내년 1월 13-17일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는 직장을 그만두고라도 꼭 오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 32차 성회에서 북한의 문이 열린 북한에 들어가 1년 이상 북한 선교 헌신한 분들이 141명이고, 또 53명이 복음통일 될 때까지 매일 에스더 철이기도 회에서 함께 기도하기로 결단하였습니다. 6개월 혹은 3개월 기도선교사 훈련을 받은 후에 주 40시간 이상 기도하는 기도선교사(북한, 이슬람권, 이스라엘 선교 등)로 20명이 헌신하였고, 매주 이슬람권 선교를 위한 기도모임에 28명이 헌

신하였습니다.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함께 해주시고 기도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모든 분에게 중심으로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함께 부르짖어 기도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복음통일-를 곧 이루어주시고,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는 ‘이 모든 것들’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주님 주시는 감사와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년 2025년 1월 13(월)-17(금), 오산리최자실금식기도원에서 열리는 33차 복음통일 컨퍼런스에 서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금보험공사

희망이 담긴
당신의 예금

예금보험공사가
1인당 최고 5천만원까지 보호해 드립니다

예금보험공사는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예금의 지급을 보장해 예금자를 보호합니다

다시 고개 드는 보이스피싱, 범행도구 차단부터 검거까지 총력 대응

2024년 1~5월 총 8천434건, 2천563억원 상당 피해 발생
50%까지 감소했던 보이스피싱 피해 증가추세 전환에 경찰 역량 총결집

정부는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보이스피싱과 불법사금융 적결을 위한 관계부처 합동 TF를 개최했으며, 그 일환으로 경찰의 보이스피싱 대응성과에 대해 별도로 발표했다.

그간 경찰의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근절대책 추진으로, 최대 피해가 발생한 2019년 대비 작년에는 50%까지 피해가 3만7천667건에서 1만8천902건으로 감소하였으나, 올해 상반기 들어 피해건수와 피해액이 증가하는 등 최근 다시 보이스피싱 조직의 범행이 활발해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 기관을 사칭하는 수법은 15% 감소한 반면, 대환대출 등 대출빙자형 수법은 61% 급증하였다. 또한 기관사칭형의 경우에도 건당 피해액이 2062만원에서 3462만원으로 증가하는 등 전체 피해액 또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른 대출이자 절감을 위한 온라인 대환대출 서비스 활성화 등 국내 경제상황을 범죄조직이 교묘하게 이용하는 동시에 미끼문자, 악성 앱과 원격 제어 앱, 대포통장, 대포폰, 중계기 등 각종 범행도구를 활용하는 등 점점 치밀하게 범행을 시도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경찰은 특히 피해자를 유인하기 위해 이용하는 각종 '미끼문자'의 종류나 발송량 등이 작년부터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미끼문자를 비롯한 범행도구 차단에 주력하는 한편,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제도개선 ▲대국민 홍보활동 등 보이스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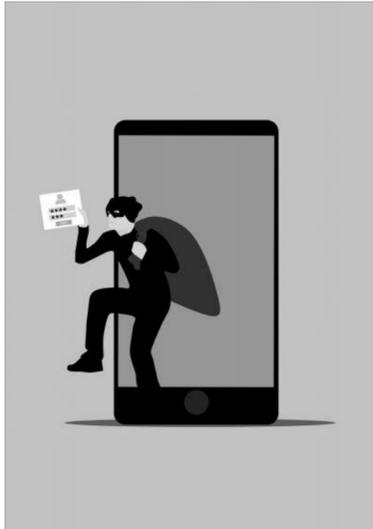
싱의 근원적 예방을 위해 총력대응 중이다. 범죄조직은 국민들이 일반전화나 인터넷 전화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지 않는 사례가 늘자, 휴대전화 번호(010)가 나타나도록 발신번호를 변조해주는 중계기를 범죄에 이용하고 있다.

이에 경찰은 통신사와 협업하는 한편, 시도경찰청에 전담 대응팀을 편성하는 등 변조 중계기의 신속한 탐지단속을 위해 노력한 결과, 올해 1-5월간 중계기 운영 및 관리책 82명을 검거하였고, 중계기와 SIM카드 등 4천489대, 중계기용 통신 단말기 5천255대에 대해 차단을 요청했다.

경찰은 수사과정에서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와 카카오톡 계정 발견 시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기관에 신속히 중지요청 중으로, 지난 5개월간 전화번호 3만2천527개, 카카오톡 계정 8천437개에 대해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아울러 범행도구별 전담 수사팀을 지정, 불법 개통, 유통조직 소탕을 위한 집중수사도 진행 중으로, 1-5월간 대포폰 유통업자, 명의자 등 863명을 검거했다.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로부터 현금을 직접 교부받거나, 대포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허부 조직원은 마치 범행도구처럼 끊임없이 대체되고 있다. 이에 경찰은 기동력과 현장성을 갖춘 형사들을 중심으로 이들에 대한 단속을 강도 높게 추진했다.

이 밖에도 중국 등 해외 콜센터 타격을 위한 국제공조 강화하고, 미끼문자와 같거나 유사한 내용의 문자에 대해 차단이 이뤄지도록 관련 자료를



통신사에 보내 필터링을 요청하고,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경각심 전달을 목표로 TV, 유튜브, 포털사이트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할 예정이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피해 대부분이 미끼문자와 악성앱을 기반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출처를 알 수 없는 문자메시지의 인터넷 주소(URL)를 클릭하거나, 타인의 앱 설치 요구에 응해서는 안 되며,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 또는 112로 신고하여 보이스피싱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우리 기자

정부·학교·병원 등 공공기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

앞으로 학교와 병원, 정부 부처 등 공공기관에서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이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자살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른 자살예방 교육 의무 대상은 자살예방법에 규정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초·중·고등학교 제2조에 따른 학교, 사회복지시설과 자살예방법 시행령에 규정된 병원급 의료기관이다.

각 기관의 장은 연 1회 자살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31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자살예방 교육은 자살예방 인식개선 교육과 생명지킴이 교육이 있다. 인식개선 교육은 생명의 소중함과 가치, 자기 이해와 돌봄, 도움 요청에 관한 내용 등을 교육하며 학생·직장인 등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권장한다.

생명지킴이 교육은 자살 문제와 현황, 자살 위

험 요인과 자살 경고 신호, 자살 위기 대응 기술 등을 교육하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등 서비스 제공자를 대상으로 권장한다.

의무 기관은 인식개선 교육 또는 생명지킴이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하며 집합교육, 시청각 교육 또는 인터넷 교육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자살예방 교육 의무화는 개정 자살예방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12일부터 시행되나 부칙에 따라 올해 1월부터 12월 전까지 기존 자살예방법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경우 2024년도 자살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이형훈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은 "자살예방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에 생명존중문화가 더욱 확산되기를 바란다"며 "자살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요청하는 방법과 도움을 주는 방법 등에 대해 실용성 있는 교육이 이뤄진다면 탄탄한 생명안전망이 조성돼 자살률 감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위기임산부 상담 ‘1308’, 약국·임신테스트기서도 확인하세요”

대한약사회·동아제약 위기임산부 상담 홍보 MOU
2만5000개 약국에 1308 홍보 포스터·스티커 비치

보건복지부는 9일 서울 서초구 대한약사회 관 대회의실에서 대한약사회, 동아제약주식회사와 '위기임산부 상담체계 홍보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오는 19일부터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다.

출생통보제는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모든 아동의 정보를 공공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출생 통보된 모든 아동은 공적 체계에서 보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임신과 출산 사실을 밝히기 꺼리는 일부 위기임산부가 의료기관 이용을 피해 병원 밖 출산과 아동 유기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이에 위기임산부가 출산 후 직접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돕는 상담,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결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한다.

불가피한 경우 의료기관에서 가명으로 산전검진 및 출산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태어난 아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하는 위기임신 지원 및 보호출산제가 병행 도입된다.

정부는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으로 출산과 양

육을 고민하는 임신부에게는 아이를 직접 키울 수 있도록 맞춤형 상담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17개 시도와 협업해 위기임산부 지역상담기관 16개를 지정했다. 또 1308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를 설치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19일 위기임산부 상담 시행을 앞두고, 임신부가 처음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약국과 임신테스트기에서부터 상담 제도 이용을 위한 전화번호(1308)를 알리기 위해 추진되었다.

구체적으로 대한약사회는 임신부가 임신테스트기, 영양제나 처방 약 구매를 위해 찾는 전국 약 2만5000개 약국에 위기임산부 상담 전화 1308과 상담 기관을 알리는 포스터, 팸플릿, 스티커 등을 비치한다. 동아제약은 자사의 임신테스트기 제품 패키지에 1308 상담 전화 등을 홍보한다.

이گی일 복지부 제차관은 "위기임산부가 두려움 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19일부터는 어려운 상황에 있는 임신부들이 스스로없이 첫 전화를 걸 수 있게 되고 이 전화가 건강한 출산과 아동이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우리 기자

교육부 인증 무료 진로 체험교육 기관 492곳 새로 선정

총 2691개로 늘어...

매년 4회 무료 진로체험 운영

교육부가 학생들에게 무료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기관 및 단체 492곳에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을 추가로 부여했다.

교육부와 대한상공회의소는 2024년 상반기 교육기부 진로체험 인증기관 선정 결과를 9일 이같이 발표했다.

이 제도는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무료(교육기부)로 제공하는 기관을 심사해 인증을 부여한다.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학, 기업, 비영리단체 등이 신청할 수 있고 통과 시 3년 간 인증을 부여한다.

기관은 대외 홍보에 인증 마크를 활용할 수 있으며 진로체험 교육 활동 운영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단, 무료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연 4회 이상 운영해야 한다. 학교에서는 '꿈길(www.ggoomgil.go.kr)'을 통해 인증기관의 프로그램을 확인하고 참가를 신청할 수 있다.

당국은 이번 심사에서 인공지능(AI), 스마트팜 등 신산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87개 기관을 선정했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현대미술관 등 120개 공공기관에도 인증을 줘 무료 진로체험 분야를 한층 확대했다.

식품 안전관리 인증 기준(HACCP) 체험관을 운영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교육과 태양광 비행기 만들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전북에너지서비스' 두 곳은 우수 인증

기관으로 선정했다.

신규 인증 기관의 위치(권역)는 수도권이 155곳(31.5%)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울산·경남권 121곳(24.6%) ▲충청권 86곳(17.4%) ▲호남·제주권 76곳(15.4%) ▲강원·대구·경북권 54곳(10.9%) 순이다.

교육부 진로체험 인증기관은 총 2691개로 늘었다. 기업 등 민간기관 1751개, 대학 등 공공기관 940개다.

소은주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학생들이 자신의 미래를 설계하는 과정에 진로체험기관이 큰 역할을 할 수 있길 바란다"며 "양질의 진로체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기관을 지속 발굴해 학생들이 다양한 진로 경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했다. 서다은 기자

3권 분립(三權分立) 무시하는 국회의 입법 폭주 중단시키라!

먼저, 국회가 3권 분립(三權分立) 무시하는 입법 폭주 당장 중단하고 삼권분립의 체계 아래 주어진 권력을 국민을 위해 사용하라.

둘째, 사법부는 법대로 삼권분립을 집행하고 직무유기 하지 말라. 탄핵에 동의하는 외국인은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니다.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이들에게 엄정한 조치를 취하라.

셋째, 행정부의 수장인 대통령은 주어진 권한을 다 사용하여 입법 독주를 막고 대한민국이 탄핵 정국이 되는 것을 막으라.

넷째, 한국교회와 연합 단체들은 시대 속에 이말렉과 같은 이들을 기도로 대적하고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번영을 위해 함께 행동하자.

한국교회는 어려운 시기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자유대한민국을 지켜주심을 체험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국가 안보다. 대통령과 삼권분립이 흔들리면 국민 안전과 안보가 가장 크게 위협받는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수기총)와 뜻을 같이하는 시민단체들은

삼권분립과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전국민들과 함께 연대해 나갈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 <https://sugichong.or.kr>

협력단체: 건강한경기도만들기국민연합, 사)한국교회연합,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한국기독교총연합회, 사)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사)대한예수교장로회연합회, 사)한국기독교개혁교회협의회, 사)대한기독교총연합회, 진정하평등을바라리며 차별금지법을반대하는전국연합(진평연), 사)한국정직운동본부, 서울기독교총연합회, 거룩한말씀가게통한국민연합, 에스디기도운동, 동성애동성혼반대국민연합, 동성애동성혼반대대교수연합, 반동성애기독교민연대, 반동성애국민연대, 17개광역시·도·의법대응본부, GMMW연합, 국민주권행동, 바른문화연대

문의: 수기총 사무총장 박종호목사 (010-5393-1981) 후원: 농협 301-0310-9162-21



건축/인테리어/리모델링

하주디자인&건축

최윤곤(왜관제일교회 집사)

Tel. 054-973-0153

Mobile. 010-4676-2314

E-mail. sja7778@naver.com



북촌 농막주택

왜관 온암 재가노인센터

대구 서재 어린이 수영장

대구 상가 4층건물 리모델링

약목제일교회 리모델링

전원주택

태전동 주택 리모델링

포항 카페 인테리어

대구 신성교회 리모델링

(이재흔 목사의 한국교회 살리기)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향한 구원의 복음으로 그 능력이 구속사다. 택하신 은총을 입어도 구원은 복음에 순종해야 얻는 전제조건이 있는 명령이다. 말씀이 믿어져 따지지 않고 따르는 것이 복음 순종이고 구속사의 능력이며, 자기 생각을 따르는 것은 불순종일 뿐 자유도 아무것도 아니다.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은 문자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언약 이행의 능력을 보게 하고, 자기 생각에 갇힌 자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뜻을 듣고 보게 하며, 멸망의 자리에 있는 자는 주의 영광 앞으로 나오게 하는 구주 예수의 선물이다. 구속사의 공의대로 들리고 보이고 믿어져 따르게 하는 말씀의 깊은 샘이다. 구속사의 공의는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게 하는 회개의 능력으로 학문일 수 없고 또 학문에 가두게 할 수도 없는 복음 안에서의 자유다. 한국교회 앞에는 물질과 명예와 권세로 미혹하는 종교의 넓은 길과, 겸손과 감사로 구주 예수 따라가는 신앙의 좁은 길이 있다. 복음이 들리고 보며 믿어지게 하는 생명을 듣고 소유하고 흐르게 하기 바랍니다.



강사 약력

생명수기도원 교회 담임(현)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장(현).
제 1 예수복음부흥단 대표.
총회부흥사회.
충신대학원 목회학 석사.

강
장
일
전

사 : 이재흔 목사.

소 : 천안시 동남구 터미널4길32

임마누엘 성경구속사개관대학, 생명수기도원.

시 : 3~6, 9~12월 첫 주 월(오후 2시)~수(오후 5시)(숙식 가능).

매주 금요일 오후 2시.

화 : 010-5432-7951.

(선교계좌, 농협 302 0472 2140 31 이재흔)

청주시 상당구 교회매매

주소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구말길 47-15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기암리(가지기) 229번지/ 229-1번지(지번)

면적

*대지-264(평) / *토지-258(평) /

*총면적-522(평)

*사택- 28(평) / *교회-46(평)

매매가격: 2억5천만원

<매물장점>

- 1.청정지역 입니다
- 2.교회,기도원,수련원,요양원,전원생활지로 최적입니다.

연락처 ☎010-5622-8240

장대수 목사의 목요 말씀찬양을 통한 치유 대부흥성회



강사 장대수 목사
시흥시원의 교회 담임장
대한기독교부흥사회 대표회장

[부흥회 특징]

- 불같은 찬양
- 생수같은 말씀
- 강력한 축사
- 우울증해결

국내최초 우울증 원인분석연구 박사학위 취득
부흥회 경력 30년의 장대수 목사의
능력있는 설교를 경험하세요

장소 | 시흥 사랑의 교회

시간 | 매주 목요일 7시

문의 | 010-6325-3916

경기도 시흥시 하상동 377-2 삼성프라자 304호

미디어 선교를 선도하는 방송

지구촌 예수복음 선교방송

[특징] 오직! 예수님 말씀만 전하는 방송

유튜브 ▶ 검색창에 장대수 목사를 검색해 보세요

네이버검색 인천이룸교회하나님병원 기독교신문뉴스 이명호목사간증



최모산 목사

매일오후1시집회
한국에없는사역입니다
악한영결박치리할능력
이목사에게만 임하였음
어떤병도났습니다

유튜브검색 ▶ 인천이룸교회간증
통변음성영안투시 능력사모하는분 와보라
만수역1번출구앞 사역자공격당함 제거
전화상담치유 010-5612-4220

교회,수양관 힐링센터로 추천합니다.

[복지시설 외 타용도로 사용가능]

1. 시설: 1,2성전, 방 10개, 내실, 주방 3개, 기도실, 서재, 다용도실, 창고, 화장실 7개, 태양광 9kw, 기타
- 2.매매가: 상담과 답사 후 결정
- 3.현재 사용 중인 성구 무상양도
- 4.주소: 충북 영동읍 479-8외 1건.
- 5.토지: 2,756m² (833.69평)
- 6.건물: 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슬래브 462m² (139.75평) + α(40평)
- 7.기타: 조경(나무), 잔디, 주차장, 냇가, 전원마을, 경부선 영동역, 119, 관공서, 학교, 마트, 은행, 병원이 5-10분 거리에 있음.

[기타]

※경북 영주시 교회매매 목회자 구함
※목회자 고품으로 은퇴준비

☎문의전화

010-9679-8275

010-9883-8275

그냥 오메가3가 아닙니다!
생체이용율이 높은 rTG형태
노르웨이 직수입 하프물개 오메가3

3중 기능성 | 건강 기능식품

- 원활한 혈액순환!
- 혈행건강과 뼈건강을 동시에!
- 항산화 건강까지
- 하루 2캡슐
- 고품질 노르웨이산
- 하프물개 오메가3

SELOLJE | Nornature

최초판매기념



Sale 57%

1박스(120캡슐) x 3박스

지금 주문하시면 선물용 쇼핑백 무료 증정!

정상이 360,000 원

할인가 155,000 원

우체국 107045-02-188054

농협 301-0336-3023-11

예금주:김종덕 ※카드 결제 가능합니다

문의 : 010-5775-2671

신간 **하나님의 시그니처**

우주의 기원과 정교한 설계는 오랫동안 과학자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탐사 저널리스트이자 변증가인 저자 리 스트로벨 목사(텍사스 주 우드랜즈교회 교육목사)는 이러한 최신의 과학적 발견들이 오히려 창조주의 존재를 가리키고 있음을 명쾌하게 보여준다.

이 책은 현대 과학의 최신 발견을 종합하여, 이들이 오히려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를 가리키는 증거가 된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보여준다. 과학과 신앙 사이의 갈등으로 고민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며,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는 그 믿음에 대한 합리적 근거를 제공한다.

특히 저자는 자신이 직접 겪었던 회의주의자에서 예수를 믿는 신자로의 여정을 솔직히 공

유하며, 독자들을 무척 흥미로운 지적 모험으로 초대한다. 더불어 각 주제에 대한 다양한 반론들도 함께 다루어, 균형 잡힌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는 책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충분히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사람은 의외로 많지 않다. 어릴 적 교회를 다녔던 경험이나 종교 교육을 받았던 것이 오히려 마음을 더 굳게 닫게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다. 많은 이들이 영적인 삶에 대한 깊은 동경을 가지고 있음에도, 실제로는 자신의 영혼을 진정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믿음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상황에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는 “한 가지 제안을 하겠다. 이 책의 첫 장을 읽기 전, 당신의 영혼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기도를 하기 바란다. 길지 않다. 누가

듣거나 말거나 이렇게 기도해보라. ‘하나님, 만일 당신이 계시다면, 저에게 당신이 누구인지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렇다면 저는 제 삶을 온전히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는 위험할 수 있다.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단순히 관찰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진리를 향해 나아가는 주인공으로 거듭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이는 미지의 여정을 시작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믿음이란, 제기할 수 있는 모든 영적 문제에 완벽하고 완전한 답을 얻어야 갖는 게 아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삶의 다른 영역에서 그런 수준의 결정적인 증거를 요구하지 않는다. 요점은 우리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증거가 충분히 있다는 것이다. 그것이 중요하다. 믿음은 선택, 의지의 발걸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자 하는 결단과 관련

된다. 겸손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내가 만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고 했다.

끝으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지성을 포기할 필요는 없다. 다만 자존심은 내려놓아야 한다. 이기주의와 오만함을 극복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 자기애를 넘어서야 한다. 월라드의 말을 나 자신에게 적용하자면, 가장 큰 문제는 ‘나는 진정 무엇을 원하는가에 있다. 나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고, 죄책감에서 해방됨을 경험하고, 원래 창조된 방식대로 살고, 내 삶을 통해 하나님이 목격하신 바를 추구하고, 일상에서 그분의 능력을 활용하고, 이생과 영원한 내세에서 그분과 교제하기를 원했는가? 그렇다면 그분에게 ‘예’라고 응답하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만한 증거는 충분했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7월, 작가들의 **말말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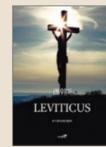
하나님은 이 캄캄한 세상의 죄악 세상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제 벨렐로 올라가라” 하십니다. 각자 실패한 자리, 위기에 빠진 자리에서 일어서게 하십니다. 나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을 다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품에 안기 기만 하면 그 모든 복을 받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내가 죽어서 다른 사람이 살 수 있다면 그보다 보람된 길은 없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이 라헬의 죽음을 베냐민의 생명으로 바꿔 주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때부터 야곱이 자기 인생을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길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고, 내 주제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김양재 '그는 나보다 옳다'



말씀과 성령은 연합되어 서로 묶여 있다. 성령께서는 자신이 성경에서 표현한 그 진리 가운데 내재해 계신다. 따라서 성령은 우리가 그 말씀에 합당한 존엄과 위엄을 돌릴 때에 능력을 나타내신다. 즉, 성령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는 곳에서 역사하신다. 그러므로 말씀 없는 성령은 위험하고 성령 없는 말씀은 죽은 것이다. 말씀 없는 성령은 환상이고 성령 없는 말씀은 심령을 데마르게 한다. 오직 말씀과 성령이 함께 있는 곳에 성장이 있다. 아담의 죄로부터 시작된 부패는 부모를 통해 자녀에게로 전달된다. 아담의 죄는 그를 부패시키고 그의 모든 후손에게도 부패성을 물려주었다. 따라서 우리는 모두 부패된 본성을 지니고 있으며,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스스로 회복될 수 없다. 오직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회복될 수 있다.

이시구 '말씀으로 읽는 기독교 강요'



레위는 정중하고도 간음하여 반드시 죽임당해야 할 신부를 위하여 속건제물 대신 여호와께 온전히 바친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대부분 레위는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언약의 법'으로 해석합니다. 저도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 관점에서 레위기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레위기 말씀을 '법'으로만 설교하는 데에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법'이라면, 그 법을 말씀하신 까닭이 있을 것이고 그 연유를 찾아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깨달은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레위를 설교할수록 점점 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레위기 11장을 지나면서 '언약의 법'으로 이해하기에는 어려운 말씀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 말씀들은 아무리 읽고 묵상해도 깨달아지지 않았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수수께끼' 같았습니다.

권종미 '레위기'

신간 **기도의 도리**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식이며 그리스도인이라면 영적으로 호흡하기 위해 날마다 그리고 순간마다 해야 한다. 저자 故 김홍전 목사(1914-2023)는 “모든 기도는 ‘항상 기본적으로 내가 아무것도 아니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길이 없으며 자기가 어떤 것에 대해서도 신뢰하지 아니해야 한다’는 데 기초를 두고 있다. 그런 기도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자기의 마음을 집중해야 하고 자기가 기도한 내용에 대해서 항상 책임을 지고 명백히 해야 하는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이 책을 통해 건넨다.

저자는 책 속에서 “신자가 늘 가지고 있어야 할 생활 태도의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다. 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늘 받고 은혜받은 바를 또한 증거하

면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이 여러 가지 있다.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것들을 품을 때 첫째 기도하는 것, 그다음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것 즉 그 영혼이 절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기도하면 찬송하면 그것이 다인가? 또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 위해서 그 말씀을 늘 바로 공부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원하시는 바를 우리가 바로 행하도록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는 “그다음에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주께 드리되 몸으로써 산 제물로 드린다. 우리의 몸을 의의 병기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영광을 위해서 쓰실 것이다. 우리들의 것이 다 주의 것이지만 그렇게 직접적인 영광을 위해서 쓰시도록 어떤 부분을 특별히 구별해서 늘 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헌금, 헌상을 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또 그다음에는 우

리를 자신이 살아가면서 주신 은혜를 감사하면서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다른 신자와 그 사실들을 나누고 얘기도 하는데 그것은 서로의 믿음에 도움이 되도록 하는 일이다”고 했다.

이어 “신자는 이렇게 생활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그중에 한 가지를 들어서 생각을 해보겠다. 맨 처음에 말한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생활이다. 옛날 선지자들은 어떻게 기도하라고 그 제자들이나 따라오는 사람들에겐 일일이 가르쳐 준 기록이 없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는 제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를 묻기도 했지만 또한 직접 당신의 거룩한 교훈 가운데 기도를 가르쳐도 주셨다. 기도는 그냥 다른 사람이 하는 대로 모방을 해서 하다고 바로 다 되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도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이면서 또한 하나님과 거룩한 연락

혹은 교통을 할 수 있는 좋은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살피서 말씀드리고자 할 때 말 서너 마디로 끝내며 간곡하게 다 아뢰지 못하는 것이다. 기도의 성령상 말은 자연스럽게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고하면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들어 주시기도 하고 혹은 나무라시기도 하실 것이다”고 했다.

끝으로 저자는 “우리가 이제 기도의 성격이라는 것을 차례차례 배워 가겠지만 기도라고 할 때 내게 부족한 무엇을 하나님 앞에 고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는다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안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하신다라도 하나님이 나의 말씀 올리는 것에 대해서 대답을 해주시면 족한 것이다. 주시고 안 주시는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첫째 중요한 문제고 또 더 귀한 일이다”고 했다.

최승연 기자

신간 **클래식 듣는 맛**

슈베르트는 '겨울 나그네'를 작곡하던 당시 이미 건강이 매우 악화된 상태였고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이런 절망적 마음을 반영하듯 작품 내용 또한 매우 우울하고 슬프다. 사랑에 실패한 청년이 작별인사를 하고 한겨울에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길을 나서

면서 곡은 시작한다. 나그네가 되어 여기저기 떠돌며 어디에도 정착하지 못한다. 가끔 행복했던 시절을 떠올리기도 하지만 이내 그가 마주하는 것은 매물찬 겨울바람뿐이었다.

책 '클래식 듣는 맛(믹스커피)은 이처럼 클래식 작곡가, 연주자, 애호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준다.

클래식은 누군가에게는 한눈에 반한 첫사랑

처럼 애틋한 음악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전하지도 어렵고 까다로운 친구일 수 있다.

역전지 많은 사람이 클래식을 지나치게 고급스럽거나 지루하다는 편견을 갖고 있다.

플루티스트이자 공연 기획자인 저자는 클래식 3가지 축을 이해하면 누구나 쉽게 클래식과 친밀해질 수 있다고 말한다.

3가지 축은 만드는 사람, 들려주는 사람, 듣

는 사람으로 다시 말해 작곡가, 연주자, 애호가다. 3가지 축이 중요한 이유는 클래식이 단순히 음악의 한 장르가 아닌 한 사람의 생각에 가깝기 때문이다.

저자는 3가지 축을 중심으로 클래식을 이해하는 방법을 소개한다. 나아가 클래식을 제대로 즐기고 향유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이수지 기자

크리스천투데이

돌들이 소리지르리라

저자 이효준 장로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소외되고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사랑으로 행하라!

현 시대 기독교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외침!

평신도 그리스도인 리더, 장로의 눈으로 바라본 하나님, 신앙, 그리고 이 세상! 그 두 번째 이야기

추천사

장로님께서 칠순을 맞이하여 출간하게 된 이 책은 그동안 인생의 긴 여정을 소상하게 나타내 주어 깊은 감명을 주고 있습니다. 김형갑 장로 (구세군 전주교회)

참된 이해 없이 맹신적으로 받아들였던 말씀들에 대한 새로운 삶의 길과 방법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영적 성숙을 향한 좋은 길잡이입니다. 배준일 목사 (범어중앙교회)

준엄한 엘리야의 심정으로, 터지듯 피어난 꽃 한송이 앞에서 기쁨의 눈물을 감추지 못하는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구성지게 읊어낸 책임입니다. 박호철 목사 (쌍원내산교회)

따뜻한 신앙인들

우리는 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가? '정감 있는 말씨와 위문 문체로 전하는 변연의 예언적 메시지'

따뜻한 신앙인들

신앙의 뿌리를 재점검하다!
정직하고 성실한 그리스도인 되는 법

매일묵상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온 49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 넝쿨로 인하여 성냄이 어찌 합당하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합당하오니이다

성내는 것이 항상 혹은 반드시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화는 그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제멋대로 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네가 성냄이 합당하냐?”라고 자문해 봄으로써 우리가 내는 그 화의 성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

는 “그래, 합당하다”라고 답할 수 있는 화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분노는 미치광이의 횡포일 때도 많지만 때로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엘리야의 불일 때도 있습니다. 만일 우리의 선과 자비로운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하는 잘못 때문에 우리 자신의 죄에 대해 화를 낸다면, 것처럼 하나님의 교훈을 많이 받고도 여전히 아리석은 우리 자신을 보고 화를 낸다면, 혹은 단지 사람들이 행하는 악 때문에 단지 그 이유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화를 낸다

면 그것은 다 잘하는 일입니다. 죄를 범하는데도 화를 내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죄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죄는 혐오스럽고 증오할 만한 것입니다. 따라서 거둔 영혼이라면 누구든지 죄를 참아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 자신도 매일 악한 자들에 대해 분노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도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시 97:10)”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의 분노

가 칭찬할 만하지 못할 뿐 아니라 정당치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럴 때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에 대해 “안 돼”라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왜 자녀들에게 짜증을 내며, 아랫사람들에게 성질을 부리고, 동료들에게 격노합니까? 이런 분노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우리의 신앙고백에 합당하다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까? 혹시, 옛날의 그 악이 다시 우리 마음을 지배하려 드는 것은 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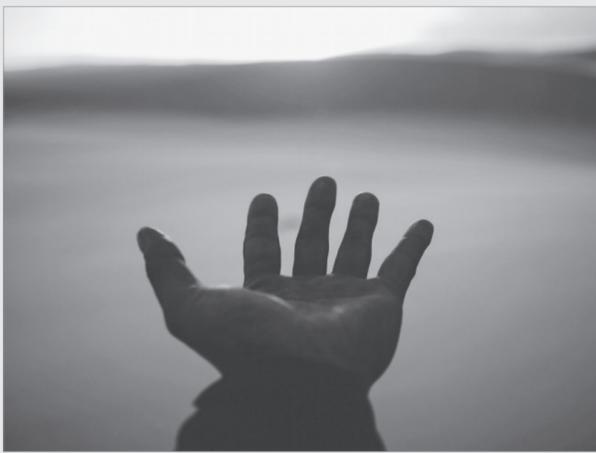
닙니까? 만일 그런 거라면, 우리의 거듭난 본성이 갖고 있는 모든 능력으로 그것에 저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이 저항해 봤자 소용 없다는 듯이 분을 터뜨리고 맙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정복자가 되지 않으면 면류관을 쓸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화를 억누르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동안 우리에게 한 일이 대해 무엇이든 말합니까? 어

떤 사람이 제이 씨에게 은혜는 종종 야생사과 그루터기에 접붙여진다고 말하자, 제이 씨는 “예, 그렇지만 그 열매는 사과가 아니지요”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자연적인 결함을 죄를 짓는 구실로 삼으면 안 됩니다. 오히려 십자가로 나아가 주님께, 우리의 분노를 십자가에 못박고 우리를 그의 형상을 따라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으로 새롭게 만들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열방선교단 제공

바이블지식IN

어떻게 하면 믿음을 성장시킬 수 있나요?

모든 크리스천은 믿음의 성장을 바라고 바라야만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인생을 그리스도께 바친 사람들은 성공이 우리 자신의 인간적인 노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고린도전서 4:7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나? 네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나님 없이는 우리 손에는 우리의 것만 남게 되는데, 그것은 우리를 교만하고, 아리석고, 무정하고, 무감각하며, 실패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으며 절대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실 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히브리서 13:5).



에 대해 죽고 그간 우리를 하나님과 분리시켰던 교만과 이기심을 버릴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실 때, 우리는 모든 크리스천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갈라디아서 5:22-23; 요한복음 14:17).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걷고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면 우리는 성령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골로새서 2:7).”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자라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안락한 지대를 벗어나 새로운 백성으로 만드실 것입니다(로마서 12:2). 우리는 우리의 옛 자아

리를 지키시리라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이 다가와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거꾸러지지 않도록 방편을 마련해 주십니다(고린도전서 10:13). 우리는 그런 상황을 피할 길을 찾고 그런 길을 찾았을 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1:7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우리를 더 강한 크리스천으로 만들기 위해 시험을 사용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면 많은 명예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로마서 10:17).” 갓케스투스 제공

날 새를 함께 하소서

담임목사가 교직원을 괴롭히는 방법 15가지

1. 특별히 자신이 갖고 있지 않은 전문 지식이나 기술적 지식이 필요한 분야에서 다른 사람보다 더 잘 아는 척을 하라.
2. 회의 중에 메모하지 말고 계속 휴대폰을 확인하라. 더 나은 방법은, 모든 대화를 '팀(team)' 회의에서 하는 것이다.
3. 당신이 마음 가는 대로 비전을 세워라. 그런 다음, 이 선견지명 있는 것을 달성하도록 불을 지피라.
4. 팀을 위해 크고 계속 진행 중인 일을 설계하라. 그 일을 다시는 언급하지 마라.
5. 사소한 일로 많은 드라마 같은 일을 만들어라. 그것을 토론하기 위해 전체 직원 회의를 소집하라.
6. 직원에게 한 가지를 말하라. 그런 다음 예배 중에 교회 강단에서 정반대의 것을 말하라.
7. 누구도 흔쾌하지 말고 모두의 가장 좋은 친구 되려고 애써라.
8. 당신의 직속 보고자보다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교인의 말을 더 경청하라.



9. 휴가가 언제인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10. 교인들에게는 “책임은 나에게 있다”고 말하라. 그런 다음 직원 간의 갈등 문제를 회피하라.
11. 직원을 위해 규칙을 만들라.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예외를 만들어라.
12. 지역 교회보다 교단 정치에 더 관심을 가져라.
13. 방 안의 코끼리(힘든 문제)에게 절대로 말을 걸지 마라. 대신 그곳에 없는 척하라.

14. 당신보다 더 재능 있는 다른 사람들로 부터 위기감을 느껴라. 당신의 불안을 다루기 위해, 이 재능 있는 사람들을 그들의 재능 밖의 사역으로 재배치하라.
15. 결보기엔 영적이지만 실제로는 방안의 누군가를 공격하는, 수동적이고 공격적인 헌신하는 사람들과 만나기 시작하라.

NIV 영어성경 따라잡기

2 Corinthians 12:9 NIV
But he said to me,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for my power is made perfect in weakness.” Therefore I will boast all the more gladly about my weaknesses, so that Christ’s power may rest on me.

- weakness: 약함, 나약함, 약점
- will: '결심(decision)'을 알리기 위한 조동사
- boast: 자랑하다, 뽐내다
- all the more: 오히려, 더욱더
- gladly: 기꺼이, 기쁘게
- may: '목적(purpose)'을 말하기 위한 조동사
- rest on: ~에 놓여있다, ~에 머물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그러나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니, 나의 능력은 약함 속에서 완전해지느니라.”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 수 있도록 나는 나의 약점들을 오히려 기꺼이 자랑하겠습니다.

- sufficient: 충분한

카카오토리 | 영어성경 독해 연습

광동초이스 CHOIS PREMIUM

업그레이드 리뉴얼 출시

성분도 UP! 용량도 UP!
"더 커진 프리미엄 환"으로 고객님의 사랑에 보답합니다.

광동제약 전속모델

반세기 광동의 독심으로 마침내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고객 감사 업그레이드 출시!

침향의 정수 침향추출에센스

16%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

SAT 녹용 10%

프리미엄 업그레이드 기념 특별 감사 이벤트

{일 선착순 500명 한정!}

*충청남도 소관시 이벤트가 조기 종료될 수 있습니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구매 시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 30환 2박스 무료 증정!

쌍향의 진향 정성, 광동 쌍회진 30포 1박스 추가 증정!

침향, 침향추출에센스, 녹용의 빈틈없는 3중 황금배합으로 프리미엄을 완성하다.

광동 침향환 프리미엄은 진귀한 '침향'에 최상위 SAT 등급 뉴질랜드산 '녹용', 침향나무에서 극소량만 얻을 수 있는 '침향추출에센스'까지 담아 광동제약의 반세기 노하우와 기술력이 집약된 프리미엄 침향환 제품입니다.

100kg 침향나무에서 약 1kg 가량 추출한 진귀한 '침향추출에센스'는 광동제약의 독자 기술력으로 β-유데스롤 등 침향 성분을 담아내어 적은 용량으로도 침향이 지닌 다양한 성분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오직 최상위 SAT등급 청정 뉴질랜드산 녹용 전지를 통째로 사용하였습니다. 부위별 쓰임새가 다른 녹용의 힘을 오롯이 담아내기 위해 녹용 전지를 모두 사용하였습니다.

무료 상담 **1899-1260**

송태훈 칼럼 사사 시대를 이끈 제사장 엘리

엘리 제사장에게서 보는 목회자 자녀교육의 중요성



송태훈 목사

고대 이스라엘 민족이 점차 종교적으로 매우 어려웠던 사사 시대 말기를 이끈 제사장 엘리는 마지막 사사인 민족 지도자 사무엘 선지자의 탁월한 스승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삼상 1:25-2:11). 그는 당시 회막이 있던 실로에서 대제사장(삼상 1:9)으로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했으며, 약 40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를 통치한 유능한 사사요 종교 지도자였다(삼상 4:18). 그는 아론의 막내 아들 이다말의 후손 중에서 최대, 최고로 능력을 발휘한 대제사장이었다(삼상 1:9, 왕상 2:27, 대상 24:3,6).

그의 이름 '엘리'는 '가다, 올라가다'를 의미하는 히브리어 '알라'에서 유래했고, '고귀한 높은 신분'이라는 뜻을 지닌다. 혼란한 사사 시대를 큰 무리 없이 리드한 지도자라는 인상을 그의 이름이 충분히 풍기고 있다. 엘리는 54세에 사사가 돼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를 경건하게 섬기다 98세가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대제사장 및 사사라는 직분과 관련해 그는 매우 거룩하고, 유능한 인물이었다. 실로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사람 한나가 득남을 갈구한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위해 기도를 올렸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미래의 지도자 사무엘이 태어나자 평생 그를 옆에 두고 진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며 신실하게 양육했다. 그의 탁월한 영성교육과 몸이 밴 경건한 삶의 모습을 그대로 보고 자란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어려움을 말씀으로 극복하고 왕정시대를 성공적으로 준비한 영특한 지도자가 됐다. 엘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을 독차지하던 제사 사무엘을 스승으로서 시기하거나 미워하지 않고 어른스러운 태도를 끝까지 보였다.

대제사장 엘리에게 있어 치명적인 결점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소홀에서 발생했다. 그의 아들 홉나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불량자였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거나 믿지도 않았고, 아버지 엘리의 제사장직을 직접적으로 심하게 더럽혔을 뿐만 아니라 제사와 제물을

경시했다(삼상 2:12-15). 자녀들에 대한 엘리의 맹목적 사랑이 결국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감히 생각할 수 없는 대죄를 범하도록 용인했다(삼상 2:29, 31:3).

제사장 엘리의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말미암아 비뚤어진 자녀들을 그대로 방치한 것이 그의 가정을 파괴시키는 뿌리가 되고 말았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에게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제물과 예물을 밟으며, 네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의 드리는 가장 좋은 것으로 스스로 살지게 하느냐" 라고 말씀하면서 엄중하게 책망했다.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는 매우 경건하기로 소문난 대제사장 엘리 가문의 아들들이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무거운 형벌을 선고받게 됐다(삼상 2:31-36). 대제사장이며 사사

인 엘리는 자신에게 주어진 공적 생활에서 매우 성실하게 임하므로 승리했으나, 사적인 가정 생활에서는 완전히 실패하고 말았다.

블레셋 사람들에 의한 이스라엘 군대의 패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 아들의 비참한 전사, 여호와와 법계 피탈(被奪) 등의 소식을 들은 늙은 지도자 엘리는 자신이 앉아있던 의자에서 떨어져 목이 부러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했다(삼상 4:1-18). 그의 아들 비느하스의 아내도 이가봇을 출산하고 슬픈 죽음을 맞이했다. 엘리의 자손 아비아달이 솔로몬왕에 의해 제사장 직분에서 추방된 것은 미리 예언된 형벌의 성취였다(왕상 2:26,27). 이후 대제사장직은 엘리의 가문을 떠나 엘리아살의 자손 사독에게로 넘어갔다. 예수를 믿는 오늘날 사람들도 자녀교

육에서 실패를 거듭하고 있다. 한 가정에서 자녀 숫자가 적어 과도한 보호를 하고 있다. 현대를 살고 있는 아이들은 어른에 대한 예의도, 사회적인 공공의식도 전혀 없이 비뚤어진 이상한 모습을 하게 됐다. 현대판 엘리 제사장의 자녀들로 잘못 양육되고, 교육되고 있는 것이다. 잘못을 저지른 자녀들에게 책임을 면제하고, 체책을 너무나 아끼자 사회적, 국가적인 문제를 야기시켰다.

그런 부모들의 교육방침이 하나님의 모든 복을 빼앗긴 현대판 엘리의 가문을 만들지 않을까 두려워진다. 우리들에게 맡겨진 자녀들은 어른들의 개인적인 사유물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책임질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책망과 때로는 체책을 들어서라도 참다운 미래 지도자로 만들어야 한다.

잃은 양 비유와 공동체 신앙

권혁승 박사의 날마다 말씀따라 새롬게(72)



권혁승 박사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 양을 들판에 남겨두었다. 잃은 양을 찾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나머지 양들은 목자에게 버려진 것이다. 그만큼 목자는 한 생명을 소중하게 여겼다.

(2) 거친 광야에서 잃은 양을 찾이란 쉬운 일이 아니다. 거둬지는 실패를 딛고 인내로 참으며 찾아야 한다. 드디어 찾게 되자 목자는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왔다. 양이 상당히 무겁다는 것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양에게서 나는 좋지 않은 냄새다. 풀이 귀한 광야와 사막에서 양들은 태어나 죽을 때까지 제대로 목욕을 할 형편이 못 된다. 비가 올 때도 건강을 위하여 비를 맞출 수 없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 더러워지는 것이 광야의 양들이다. 자연히 양의 몸에는 악취가 배어 있을 수밖에 없다. 목자는 그런 양을 어깨에 메고 돌아온 것이다. 목자는 길목양의 누추함을 본 것이 아니라 내면의 생명이 지닌 본질적 가치를 귀하게 여긴 것이다.

(3) 잃은 양을 찾아 돌아온 목자는 벗과 이웃을 모아 즐거운 잔치를 베풀었다. 어떤 종류의 잔치가 벌어졌는지는 정확하게 밝힐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음식과 음료가 마련된 잔치임이 분명하다. 그것은 한 마리의 양이 지닌 가치를 훨씬

뛰어 넘는 비용이었을 것이다.

물량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는 본문의 목자는 현명해 보이지 않는다. 무엇이 목자로 하여금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한 것일까? 겉으로 보이는 물량적인 것으로 비교할 수 없는 가치는 얼마든지 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숨겨진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훨씬 중요할 수 있다.

목자가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은 한 생명의 소중함 때문이긴 하지만, 그것과 함께 또 다른 차원의 이유가 있다. 한 마리 양은 나머지 아흔 아홉 마리 양과 함께 백 마리라는 전체를 이루기 때문이다. 한 마리 양은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양들과 긴밀한 유기적 관계에 있다. 분명 개체이지만 전체에 속한 공동체적 개체이다. 곧 하나는 전체이며 전체가 또한 개체가 되는 관계이다. 그런 관계는 몸의 구성에서도 찾을 수 있다. 몸을 구성하고 있는 많은 지체들은 작은 개체에 불과하다. 하지만 그 어느 것 하나라도 없다면, 전체에 큰 상처가 된다. 그런 점에서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은 전체를 깨어지게 만드는 값은 상처받은 깨어진 공동체이다. 그래서 잃어버린 양의 되찾음은 나머지 아흔

아홉의 온전한 회복이라는 의미를 지닌다.

성경은 인간 역사의 출발 자체가 공동체적임을 강조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창 1:27). 또한 아담이 독처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창 2:18). 그에게 돕는 배필이 있게 되었을 때, 그는 온전한 인격이 될 수 있었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게 되었다. 이것은 인간 삶의 기본이 공동체 지향적임을 지적한 것이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백성 역시 아브라함의 후손들 곧 이스라엘 전체이다. 하나님은 한 개체를 보시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전체를 그 속에서 다루시고 계신다. 아간의 범죄는 비록 한 개인의 행동이었지만, 이스라엘 전체가 그 범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또한 범죄에 대한 처벌도 한 개인이 아니라 그의 가족 전체에 적용되었다.

하나님의 우선적이고 최종적인 관심은 언제나 전체의 온전함에 있다. 이스라엘에서는 이것을 '살롬'이라고 부른다. 살롬은 공동체 전체의 평안함을 의미한다. 신앙의 공동체성은 교회 이해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바울은 교회를 몸의 유기체적 관계로 이해하였는데, 개체의 소중함과 함께 전체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잃

어버린 한 마리 양의 소중함은 그 하나에 머물지 않고 전체 공동체의 회복을 지향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의 아픔은 곧 전체의 아픔이며, 하나의 영광은 곧 전체의 영광이다. 그런 공동체의 아름다움을 위하여 인간이 창조되었고 교회도 세워진 것이다.

권혁승 박사(전 서울신대 구약학 교수)

은혜 한 장

나 여호와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이사야 42:6

기독교일보 www.cdaily.co.kr

통증없이 건강한 어깨로 100세 살기!

오십견·석회성건염·어깨충돌증후군·회전근개 파열·어깨 탈구·근막통증 증후군 완전 정복 어렵지 않다!

어깨통증 완치설명서

은평구 성누가병원 정형외과 대표원장 이영석 전문의가 전하는
어깨통증의 원인과 치료, 운동법 올 가이드

SAMSUNG 삼성서울병원 정형외과 유재철 교수 감수

YES24·교보문고·영풍문고·주요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판매 중!

피톤치드

신앙과 가정 주의 장막(성산)에 머물자

어느 목사님의 지문에 따르면, 문제가 다칠 때에 3가지 종류의 사람을 발견한다고 합니다. 그 문제를 원망하고 분노하는 사람, 그 문제를 공감만 하는 사람, 그 문제를 통하여 자신을 돌아보고 더 나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현실과 남을 원망하거나 분노하는 일에 집중합니다. 혹은 그 사실에 공감하며 멈춥니다.

그런데 더 나은 사람은 나타난 문제를 통해서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더 좋은 길로 나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야 교인들에게 그런 마음으로 교훈을 하고 있음을 봅니다(갈 6:1).

교회 공동체가 세상의 어떤 공동체보다도 나아야 하는 것은 세상과 교회가 같아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모인 곳이기 때문 세상과도 못하다는 비판을 듣기도 합니다만, 항상 뒤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는 것이 더 나은 모습의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어떤 무당이 예수를 만나고 간증하는 것을 방송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제가 가슴을 치며 들은 내용은 이것입니다. 자신이 무당 신내림을 받아 무당이 되었는데 무당의 신내림을 받는다는 것은 귀신에 사로잡혀서 귀신의 영향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신통한 신내림을 받은 무당들은 뒤에서 서로를 시기와 질투하고 미워한다고 합니

다. 왜냐하면, 귀신은 더러운 영이기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분이 예수를 만나고 교회에 들어왔는데 교회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서 경악하게 됩니다. 귀신의 세계, 악한 영이 지배하는 세계에서나 있을 일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는 교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화가 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하여 피나는 훈련을 했다는 고백입니다. 그분이 지적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흔히 행해지는 '비난과 비판, 정죄와 다름, 그리고 은근히 즐기는 뒷담화'라는 것이었습니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이해하고 받아주며, 십자가의 사랑을 이루는 교회에서 어떻게 귀신의 세계에 서나 있을 일이 교회 안에 있느냐고 통렬하게 지적했습니다.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런 행위가 바로 귀신의 장난이었구나!' 그리고 나 스스로가 결단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자. 내 험한 입술로 인하여 귀신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십자가의 은혜 아래 있음을 증명해 보자고 말입니다.

사편 15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장막에 거할 자, 주님의 성산에 이를 사람은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의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천국으로 바꿀 책임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미움과 분노가 들어올 때, 우리는 그 유혹을 참지 못하고, 마침내 행동에 옮겨버립니다.

들리지 않을 줄 알고, 뒤에서 수군수군 합니다. 바로 그런 일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하는 것이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입에 칼을 물고서라도 결단합니다. 이런 일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우리의 입술에 파숫꾼을 세워달라고 비장한 각오로 기도하게 됩니다. 내 입술의 불신앙의 말이 교회를 허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교회 제공

은혜의 샘물

넘치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은혜

고후 9:8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모든 자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즉 그리스도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모든 점으로 불신자에게도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은 곧 해, 달, 비, 이슬, 공기 등의 은혜를 말합니다.

그러나 특별히 우리에게 신령 상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말은 간단하지만, 그 뜻은 대단히 깊습니다. 7절에 보면, 바울은 말하기를, 헌금은 기쁜 마음으로 내라고 하였습니다. 기쁨으로 내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풍족히 허락하신다고 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서로 의뢰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직접 의뢰해야 됩니다. 이러한 자도 있습니다. 혹 선교사에게 도움을 받지 못함으로, 낙망하는 자가 있습니다. 선교사는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량 없는 은혜를 얼마든지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주의 은혜가 우리들을 따라다니지는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다만 우리의 요구에 응할 따름입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사람이 한정하는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행편을 보셔서 허락하십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주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 많고 잘 될 때에는 주를 잊어버리고 있다

가 곤란한 때에야 주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될 때나 어려울 때나 항상 주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각자가 주의 뜻대로만 행하면, 우리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하여 우리의 하는 것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모든 것에 있어서 넉넉하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에 바울이 말하기를, 우리 그리스도인의 하는 일은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위익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란 전염성이 있어서 한 사람의 죄로 인하여 타인에게까지 영향을 끼칩니다. 어떤 이는 "한국 의 전란은 국민의 죄값이다"라고 합니다. 과연 한국도 예전엔 그리스도교를 박해한 적이 있었습니까?

한국에는 오늘날과 같은 고생을 겪은 일이 드물다. 하나님께서는 고생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 전란은 우리를 훈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한국인이 이 전란 중에서 주의 뜻을 이해한다면, 고난과 신고의 보람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목적은 우리가 선인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개인만 위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착한 일을 하는 사람을 위함인 것입니다.

무엇이 착한 일입니까? 그것은 오직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니 성경을 많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고초를 당하게 하는 것은 고초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을 깨우치려고 하는 주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연구소 | 필요한

교회오빠

박수칠 때 무릎 꿇어라

사도행전 12:18-25

헤롯이 날을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행 12:21-23)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던 헤롯은 아기 예수를 죽이고자 했던 왕,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이들은 유대인인 채하고 살았지만, 사실은 에돔 족속인 이두메인이었습니다(거기서 아말렉이 나왔음). 이들의 계보는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와 병행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칼로 막고 노략한 자들입니다. 유대민족이 바벨론에게 망한

후 억압받고 살 때 유대인들을 몰살할 계획을 세웠던 허란도 아말렉 사람입니다. 그 후손인 헤롯 대왕은 200명의 죄 없는 아기들을 학살해서라도 아기 예수를 죽이려 했고, 손자 헤롯은 연약한 교회를 꺾어 버리려는 흉계의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끊임없이 위협하는 사탄의 음모를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유대인들을 갈등과 대립으로 몰아 스테반을 죽이게 했습니다. 사울을 격동시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자들을 박해했습니다.

그래도 뜻을 이루지 못하자, 이번엔 직접 권세를 가지고 교회와 교회의 지도자들을 죽이려고 나섰습니다. 이 계략에 헤롯과 그의 가문이 앞장을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헤롯이 간과한 것이 있었습니다. 온 우주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

계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그러나 우주의 주인이신 주님의 몸을 박해한 것도 큰 죄인데, 스스로 '땅 위에 나타난 하나님이 되어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으니 얼마나 큰 죄를 저지른 것입니까?

결국 헤롯은 벌레에 먹혀 죽었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를 내면서 살아도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자비가 필요한 죄인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까불지 말아야 합니다. 작년 여름에 흥행했던 <박수칠 때 떠나라>는 영화 제목처럼, 누군가 박수 칠 때 얼른 무릎 꿇어야 합니다.

어정쩡하게 버티다가는 사탄의 계략에 넘어지고 패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만은 어리석음이며 무모함입니다. 하나님만이 통치자이시며, 생명의 주인입니다. 창골산 봉독사

향유옥합

기도하는데 정녕 중요한 것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할까? 무엇을 기도해야 할까? 고민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질문이 틀리면 답을 얻기 어렵게 됩니다.

기도에 대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무엇을 기도하느냐 보다 누구에게 기도하느냐 하는 것

입니다. 예수께서는 명쾌하게 일러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이냐 하는 것과 그 분 자체와 만나는 일입니다.

그리고 추가되는 것이 우리가 구할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산마루서신 제공



한국도로공사 안전동화 시리즈 | 해와 달 편

위급한 순간의 생명을 안전띠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은 4배 이상입니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띠, 선택이 아닌 의무입니다.

진정한 예배에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축복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창 22:5)



조성환 목사

은 그의 인생에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존재였을 것이다. 그런데 바로 그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청천벽력과도 같은 이야기였을 것이다. 그러나 그 명령을 듣자마자 즉시 아침 일찍 일어난 아브라함은 직접 자기 손으로 길을 떠나기 위한 준비를 마치고 2명의 종과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향하는데 아마도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3일은 아브라함에게 가장 길었던 3일의 시간이었을 것이다. 아마도 밤에 이삭은 잠들었으나 그는 잠 못 이루며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또 헤아리며 고민했을 것이다. 창세기 22장에서 첫 번째 배우는 말씀은 바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자세이다. 항

상 주님 앞에서 있었던 그의 삶이기에 그는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듣고 행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철저히 순종하는 삶의 소유자였다. 왜? 항상 주님은 가장 좋은 길로 그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들이 번제로 드릴 제물이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주님이 예비하시라라고 대답하였던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배하였다는 것이다. 아브라함이 3일 후 모리아산에 도착하여 사환에게 말하기를 이삭과 경배하고 오리라 했는데 그 심정에서 경배하겠다는 것은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내려놓겠다는 것이었으며 산에 올라 이삭을 묶을

뒤 칼을 들고 이삭을 차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고 난 뒤에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라고 말씀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삶은 쉬울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은 쉽지 않음을 우리는 아브라함의 시험을 통해 알 수 있다. 나는 이런 삶의 자세가 되어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위기가 올 때에도 주님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염려와 불안함을 내려놓을 수 있겠는가? 셋째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은 그 자체로 끝나지 않고 여호와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 이삭을 대신할 수양이 가지 담보에 걸려 있었다. 전적으로 우리의 삶이 드릴 때 우리의 머리카락까지 세고

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함을 채워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 그래서 예배하는 삶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 이레는 땀과 아픔 수 없는 관계이다.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찬양하겠다고 하는 찬양대가 말로

항상 주님 앞에서 서있는 자이어야 하며, 또한 항상 주님 앞에 전적인 위탁과 헌신을 드리는 삶 가운데 주님께 인정을 받는 그리고 그러한 삶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어야 할 것이며 그렇게 되기를 기도한다.

◆조성환 목사

초등학교 때 선명회 어린이 합창단 단원으로 윤학원 교수의 지도 아래 여러 나라를 순회하며 연주를 하고 서울대 음대 성악과를 거쳐 1986년에 도미하여 University of California, Los Angeles(UCLA) 음대 대학원 과정(Master of Fine Arts in Vocal performance)을 졸업하고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USC) 연주학 박사 학위를 마치고 현재 Hope International University(HIU)에서 교회음악과 과장으로 17년째 재직중이며 이민 교회 중에 가장 큰 교회인 남가주 사랑의 교회의 음악 감독으로 교회음악 전반을 책임지며 남가주 서울대 동창회 합창단의 상임지휘자로 섬기고 있다.

찬양의 능력 1



저드슨 콘월

포악한 자여 네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잘하는가... 그 린족 하나님에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여... 주께서 이를 행하셨으므로 내가 영원히 주께 감사하고(시 52:1, 5, 9) 우리에게 찬양을 실천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주고 우리로 찬양하도

록 부드럽게 동기부여하는 시편 149편은 또한 우리에게 찬양의 엄청난 능력을 가르쳐준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방비 상태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강한 영적 무기를 주셨고, 그 중 가장 주된 무기는 바로 찬양이다. 시편 149편 7-9절은 찬양이 무기로 사용될 때, 그 위대함과 웅장함, 고귀함과 능력을 나타내는 찬양의 다섯 가지 기능을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다. 첫째, 우

리는 “뭇 나라에 보수” 할 수 있다(7절). 둘째, 우리가 “민족들을 벌” 할 수 있음을 선포한다(7절). 셋째, 찬양은 “왕들은 사살로” 묶고(8절), 넷째, “그들의 귀인은 철교량으로 결박한다”(8절). 다섯째,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한다(9절). 찬양은 대단한 능력이 있으며 영원한 효과가 있다! 찬양은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직접 행동할 수 있도록 한다. 우리가 악한 사람들과 악의 세력과 맞붙어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 모든 것은 찬양, 위대한 찬양으로 가능하게 된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 여기에 열거된 적들을 정의하고, 우리에게 제공된 무기가 무엇인지 이해한 후, 마지막으로 우리가 그 갈등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적의 본질에 대해서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언급되며 두 가지 영적 범주를 보여준다. ‘뭇 나라’라고 불리는 사람들과 ‘민족’이다. 이 말씀에서 ‘뭇 나라’라는 표현은 하나님 없는 사람들을 지칭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도 없고,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그들에게는 복수가 이루어질 것이다. 7절에서 나오는 ‘뭇 나라’와 대조되는 ‘민족’은 아마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단순히 그 백성’이라고 불리는 자들을 의미할 것이다. 이 백성은 하나님의 복수를 알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의 경계하심만 알 뿐이다. 하나님은 이방인과 그의 백성을 다르게 다루신다. 성경은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

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히 12:6)고 말씀하고 있다. 또한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고전 11:32)라고 선포한다. 여기 언급된 영적 세계의 두 범주는 ‘그들의 왕’과 ‘그들의 귀인’이다(8절). 이방의 왕은 사탄이다. 사탄은 이 세대의 신으로 여겨진다. 예수님은 사탄을 ‘이 세상의 통치자’라고 지칭하셨으며 바울은 사탄을 ‘공중의 권세 잡은 자’라고 불렀다(엡 2:2). 만일 그들의 왕이 사탄이라면, 그들의 귀인들은 악의 영역 가운데 그보다 능력이 더 적은 무리를 의미할 것이다. 에베소서 6장 11-12절에서는 다음과 같이 사탄의 왕국의 다섯 단계의 권세를 나열한다. “너희는 ①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②통치자들과 ③권세들과 ④이 세상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⑤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런 각 단계를 완전히 정의하는 것은 이 책의 범위가 아니지만, 우리는 사탄의 왕국이 하나님 나라를 분뜨고 있고, 사탄으로부터 그 권세가 다른 타락한 천사들을 통해 마귀(악한 영)에게까지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알고 있다. 모든 것은 그들의 왕인 사탄의 통치하에 있는데, 요한계시록 16장 13-14절에서는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세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되라”라고 확언한다. 또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마귀들의 우두머리인 바알세불을 통해 귀신을 쫓는다고 주장했던 것을 기억하라(눅 11:15). 헬라이어 사전에서는 “바알세불”이 사탄의 이름이라고 강하게 단언한다. 그리스도가 계시된 당대에 사탄은 마귀들의 우두머리로 인식되었다. 귀신은 분명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었다. 이들은 사탄의 입에서 나와, 바알세불과 같은 존재의 책임 아래에 있었다. 에베소서 6장 11-12절에 나열된 적들의 목록을 보면 위협의 정도가 진전되는 것이 눈에 띈다. 우리 모두에게 별로 위협이 되지 않는 ‘뭇 나라’들로부터, 동료에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취약한 ‘민족’들의, 그리고 우리 중 직접 대면을 하는 사 람은 거의 없을 사탄, 그리고 우리가 다 른 모든 것들을 합친 것보다 더 고통하게 될 그의 왕국의 점차 약화되는 능력

까지 그 위협의 정도가 진전됨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찬양이 이들 모두에게 대항하는 무기임을 배웠다. 우리는 ‘높은 찬양’이라고 불리는 무기를 살펴야 한다. 기름부으심에 정도가 있는 것처럼 찬양에도 정도가 있다. 우리는 주로 낮은 수준의 신앙과 기름부으심 가운데서 찬양을 시작하여 영혼과 감정의 영역에 처음 들어가고 이후 마음과 의지의 영역으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영을 통해 하나님의 영으로까지 나아간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 하나님의 영과 연합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더 높은 찬양의 영역으로 나아가게 된다. 여기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의 적들에 대한 무기로서의 찬양은 특히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라고 불린다. 이는 하늘에서 제공되는 찬양을 의미한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영광중에 즐거워하며 (땅에서)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 지이다”(시 149:5)

◆저드슨 콘월

Judson Cornwall, 1924-2005, 하나님의 말씀을 일상의 모든 영역에 탁월하게 적용하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는 그는, 매우 존경받는 신생이자 작가이다. 30년간은 개교회의 목사로, 12년간은 여러 집회와 사경회 등의 강사로 세계 각처를 여행하는 등 거의 50여 년 동안 가르치는 사역을 하였다. 그는 평생의 사역기간 동안 50권의 책을 저술하였고, 이 중 많은 책들은 여러 외국어로 번역되어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 다양한 기독교 잡지와 정기간행물 등에 기고한 글을 통해서도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설아 옮김

성신여자대학교와 한동대학교 통번역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삼성전자, SDS 등에서 인하우스 번역사로 근무하다가 현재는 프리랜서 전문 통번역가로 활동하고 있다.

찬양한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이제 역전되리라, 시와 그림

나랑 가까워서 좋고
나를 잘 알아서 좋은
우리동네
좋은 병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e음” 앱에서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를 확인하세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HEALTH INSURANCE REVIEW & PROMOTION SERVICE

“우린 언젠가 잊혀질거야”... 노을이와 아버지 대화에 400만 명 공감

초등학생 래퍼 ‘차노을’과 아버지 ‘차성진 목사’ 영상 화제

‘해피(HAPPY)’라는 자작랩 영상으로 화제가 된 초등학생 차노을 군과 그의 아버지 차성진 목사의 대화가 네티즌 사이에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6일 노을 군과 차 목사가 운영하는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채널과 인스타그램 계정에 한 영상이 올라왔다.

“노을아, 우리는 언젠가 잊혀질 거야” | 노을이와 아빠의 로드트립이라는 제목의 영상은 노을 군과 차 목사가 자동차 여행을 떠나는 내용이 담겼다.

노을 군과 차 목사는 함께 라면을 먹거나, 한적한 곳에 자동차를 세우고 트렁크에 나란히 앉아 피아노를 연주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후 차 목사는 노을 군에게 “아빠가 노을이에게 중요하게 할 이야기가 있다”고 말을 꺼냈다.

차 목사는 “언젠가 사람들이 노을이를 봐도 노을이를 좋아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라고 하며, “계속 새로운 음악과 새로운 사람이 나오면 사람들은 새로운 사



자동차여행을 떠나 차노을 군과 대화를 하는 차성진 목사.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영상 캡처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에 올라온 '해피(HAPPY)' 뮤직비디오. ©노을이의 작업실 유튜브 영상 캡처

람들을 좋아하게 된다”고 했다. 이어 “조금 있으면 우리는 ‘해피’를 만들기 이전의 원래 삶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그때 노을이가 너무 슬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대신 우리를 계속 기억해 주는 사람들이 있다, 우리 가족이다”라는 말을 덧붙혔다.

노을 군이 “그럼 (사람들이) 몇 년까지 우리를 기억할까?”라고 묻자 차 목사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그 시기가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를 오래 기억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 거다. 그런 분들을 감사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차 목사가 건넨 “그리고 나서 우리가 받은 사랑은 어떻게 해야 하느냐”

라는 질문에 노을 군은 “나도 흘려보내 줘야 한다”라고 했다.

언젠가 찾아올 대중의 무관심에 아들이 상처받지 않도록, 그리고 아들을 사랑해 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도록 전하는 아버지의 메시지는 영상을 본 네티즌들에게 울림을 주었다.

노을이의 작업실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해당 영상은 7월 8일 기준 조회수는 약 398만회를 돌파했으며, 좋아요 수는 약 18만회를 기록했다.

네티즌들은 ‘아버지가 참 현명한 것 같다’, ‘노을아, 너와 아빠는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간직될 거야’ 등의 댓글을 달며 차 목사의 말에 감명받았다는 반응을 보였다.

2024년 기준 초등학교 2학년인 차노을 군은 지난 4월 학교 숙제로 만든 자기소개 랩 ‘해피(HAPPY)’를 통해 네티즌 사이에 알려지게 됐다.

초등학생 나이의 순수한 가사와 영상에 등장하는 노을 군의 귀여운 모습은 네티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해당 뮤직비디오는 인스타그램 조회수 2000만 회 이상, 유튜브 조회수 500만회 이상을 기록했다.

또한, 가수 시아준수, 인디밴드 10cm 등의 유명인도 해당 랩을 커버해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

이후 노을 군의 아버지 차성진 목사는 스포츠뉴스 채널에서 진행했던 인터뷰에서 당시 노을 군이 ADHD를 앓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노을 군에게 친구를 사귀게 해 ADHD를 극복하게 해주고자 작곡과 뮤직비디오 촬영에 참여했다고 말했다.

“해피를 통해 노을이를 알게 된 네티즌들은 “노래가 너무 좋다”,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래퍼가 되길 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현재까지도 ‘해피’의 뮤직비디오에는 노을이를 응원하는 댓글들이 달리고 있다.

박민선 기자

크리스마스에 듣는 헨델 ‘메시아’ 한여름에 공연

크리스마스 시즌에 연주되는 헨델의 오라토리오 ‘메시아’가 여름 무대에 오른다.



세종문화회관 서울시합창단은 오는 8월8-9일 세종문화회관 체임버홀에서 메시아를 공연한다고 최근 밝혔다.

데이비드 이(서울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존노(테너), 허진아(소프라노), 김세린(메조 소프라노), 성승욱(바리톤, 카메라타 안티와 서울이 함께한다).

헨델의 오라토리오 중 가장 유명한 메시아는 1942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연된 후 크리스마스 시즌에 전 세계 곳곳에서 연주되는 스테디셀러다.

이번 공연은 전곡 연주가 아닌 이야기 흐름에 맞게 발췌해 120분 내외로 압축된 형태로 연주된다.

지휘를 맡은 데이비드 이는 “합창단

지휘로 메시아를 무대 위에 올리는 것은 처음이라 매우 설레고 기대된다”며 “작품이 가진 드라마틱한 서사를 바로크 음악 특유의 생생한 에너지를 통해 표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독창자는 오디션을 통해 선발했다. 존노는 “미국에서는 메시아가 대중들에게 굉장히 친근한 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 늘 아쉬웠다”며 “우연한 기회에 오디션 공고를 보고 망설임 없이 지원했다. 많은 분들이 메시아를 경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헨델의 ‘메시아’는 3주 만에 작곡된 걸작으로 하이든 ‘천지창조’, 멘델스존 ‘엘리아’와 더불어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손꼽힌다.

내용은 성경에서 모티브를 얻었지만 교회 연주 목적이 아니라 바로크 시대 극장에 울리기 위해 쓴 대중성이 짙은 작품이다. 헨델은 오라토리오를 통해 기독교적인 교훈이나 구원사상보다는 오페라 같은 극적 흥미를 추구하고 있어서 변형된 오페라로도 볼 수 있다.

이예슬 기자

방송 편성표 ※ 편성표 일정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시간	CTS 기독교TV	Good TV	CGN TV	CBS TV	Cchannel
5:00	00 TV새벽예배 40 힐링스토리 50 신앙예배	40 힐링스토리 50 GOODTV 오늘의 찬양	00 생명의 삶 2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30 은누리교회 새벽기도회	00 CBS 은혜의 시간 30 TV강단 군포제일(권태진)	00 장중현 목사의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6:00	00 새벽을 말씀과 함께-오영택 목사(하늘비전교회) 30 생명의말씀-김대훈 목사(부산초량교회)	00 365 새벽기도 생방송 2부 30 한국교회와 함께 큐티를 보자 40 GOODTV 오늘의 기도 50 GOODTV 뉴스	10 [말씀] 김우성 목사(영락교회) 50 [말씀]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00 생명의 양식 삼십삼(김형석) 30 믿음의 말씀 (김대조)	00 생방송 명성교회 새벽기도회 40 새이덴강단
7:00	00 CTS 뉴스 20 주성민 목사의 주담길 35 생명의말씀-박석진 목사(포항장성교회) 50 생명의 말씀-이창호 목사(창원상남교회)	10 힐링스토리 20 말씀의 센터 한중사랑교회 서영희 목사 50 비전선교 한성교회 도원욱 목사	30 내일은 THE 행복한 출근 5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주만찬 40 오늘 만나는 큐티	4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신약 50 노년대학
8:00	20 신앙예배 30 자판기	20 다크 더 로드 40 신학은 왜 학문이 아닙니까 - 백석대 장중현 총장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말씀] 정갑신 목사(예수향남교회)	00 찬양예배 주님께 맡기는 시간 20 CBS 성서학당 (배요한)	00 성지가 좋다 30 비전메시지 - 은혜드림교회 최민선 목사
9:00	00 내가 매일 기쁘게 50 다니엘 기도회	30 노크도크에 물어봐 50 비전선교 선한목자교회 김다위 목사	00 [말씀] 최성은 목사(지구촌교회)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구약의 세계로 (오십소)?	10 새롬게하소서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나의 십자가: 세계의 십자가가 나의 결으로
10:00	40 바이블 프로젝트	20 힐링송 30 여의도순복음교회 수요일예배 생방송 이영훈 목사	20 은누리교회 수요일예배	00 CBS NEWS 10 20 교회가는길	00 선교는 지금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1:00	2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40 Miracle Moment 50 [생방송] CTS 뉴스	30 말씀의 센터 화광교회 윤호근 목사	00 [말씀] 임재영 목사(서부성결교회) 4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50 내일은 THE 행복한 출근	00 울포원	00 소문난 성경교실 30 C채널 매거진 굿데이 50 고품격 크리스찬 차트 토크쇼: 차북
12:00	30 생명의 말씀-유영완 감독(하늘중앙교회)	00 GOODTV 뉴스 20 힐링스토리 30 말씀의 센터 광주청사교회 백영영 목사	1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20 [말씀] 권준 목사(시애틀형제교회)	00 TV강단 든든한(장항희) 30 TV강단 포도나무(여주봉)	20 비전메시지 - 청운교회 이필산 목사 50 말씀의 창 - 마리아타교회 이영은 목사
13:00	00 생명의 말씀-이승희 목사(대구반야월교회) 30 신앙예배 4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50 Miracle Moment	00 말씀의 센터 군포사랑교회의 성령군 목사 30 말씀의 센터 성찬교회 오원호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 2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20 한소망교회 감사 부흥회	20 배진기 목사의 생수의 강 30 말씀의 창 - 구례제일교회 김명서 목사
14:00	00 [생방송] 콜링갓 50 내가 매일 기쁘게	00 박중순 목사의 묻고 답하고 10 다크인사이드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레디온	00 말씀의 힘 앙곡(지용수) 30 새롬게하소서	00 백석의 센터
15:00	4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00 생방송 기적을 이루는 기도 달라다꿈	00 [말씀] 박성일 목사(필라델피아기쁨의교회) 40 생명의 삶	20 CBS 성서학당 (송태근)	0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50 김학필 목사의 믿음의 사람들
16:00	30 생명의 말씀-이영은 목사(아름다운교회)	00 우리들의 지식살롱12 30 말씀의 센터 수영로교회 이규현 목사	00 어린이 공동체성경읽기 고고 바이블(영문) 20 성찬, 주님의 식탁 40 Q&A 107 소요리문답 50 [말씀] 안광복 목사(상당교회)	10 성지가족 50 더 콜링	00 내 삶의 행복 5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17:00	00 사랑의 시간-오정현 목사 50 오정현 목사의 비전묵상 3분 미라클	00 말씀의 센터 순복음축복교회 오영대 목사 30 말씀의 센터 순복음금정교회 김형근 목사	30 [말씀] 정현구 목사(서울영동교회)	20 이 땅을 사랑한 예수의 증인들 30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50 영혼의 양식 양전	00 성지가 좋다 30 (오직주님) 명성의 워십
18:00	00 생명의 말씀-김익희 목사(그레이스힐링교회) 30 신앙예배 40 부흥어게인	00 행복플러스 30 여의도침례 수요일 워십 50 더 메시지	10 THE 행복한 3040 맞춤형 세미나 50 이계호 교수의 기본의 회복, 건강의 회복	00 TV강단 한성(도원욱) 30 TV강단 남양주한마음(남상진)	00 성지가 좋다 - 국내편
19:00	30 광림의 시간-김정석 감독	00 조용기 목사, 명성교	30 신약의 세계로 오십소2	00 TV강단 영광제일(이기웅) 30 TV강단 정동제일(천영태)	00 말씀의 창 - 인천제2교회 노원석 목사 30 명성교회 수요일기도회
20:00	30 생명의 말씀-주진 목사(세한교회)	0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10 말씀의 센터 감사드림교회 차영아 목사 40 GOODTV 저녁의 기도 50 노크도크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에메이징 그레이스	00 한소망 말씀 (류영도) 50 크리스천칼럼, 순복음원당(고경환)	30 오정현 목사의 온전한 은혜로 40 복음강단 - 서울은혜교회 김태규 목사
21:00	00 CTS 뉴스 40 내가 매일 기쁘게	50 GOODTV 뉴스	00 창동영광교회 주일예배	00 CBS 성서학당 (배요한) 50 살롱 샬롱	10 나의 십자가 30 제 33회 6.25 상기 기독교장령 구국성회
22:00	30 백세특강	10 오 자유여	10 로잔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사도행전 2024) 20 잇위의 서재 시즌2 50 저스트 텐 미닛 (달빛마을)	00 CBS NEWS 10 20 새롬게하소서	00 예루살렘 데이트라인 20 소문난 성경교실 50 김윤희 박사의 성경에센스 구역
23:00	00 교회행진 50 말씀노트	10 GOODTV 시네마 누가복음 1부 4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00 J.D. 그리어의 다윗의 삶 30 생명의 삶 50 바이블 필름 (마가복음)	10 만나다 20 2024 더 홀리 스피릿 1부	00 이석 목사의 잃어버린 복음을 찾아서 50 라비츠워십
24:00	00 콜링갓 50 주성민 목사의 찬양의 기도	10 성서의 땅 스페인을 가다 40 힐링송 50 휴먼다큐멘터리 사랑은 강물처럼	00 하루 20분 공동체성경읽기 20 CGN 비전특강	10 CBS 아카데미 쇼	00 사랑의교회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1:00	00 김병삼 목사의 하나님의 음성 30 다니엘 기도회	20 세계테마기행	00 [말씀] 이윤주 목사(갈보리교회) 40 [말씀] 김용훈 목사(열린문장로교회)	00 21일간 열방과 함께하는 2023 다니엘 기도회 40 CBS 비전특강 이음 목사의 말씀 맥으로의 초대	00 선교는 지금 2
2:00	20 힐링스토리 30 CTS찬양의 찬양	00 GOODTV 특별강중	20 [말씀] 김형석 목사(지구촌교회)	30 말씀의 힘 앙곡(지용수)	00 THE 깊이 공금한 신앙, 물렸던 이야기 성지편 40 김병삼 목사의 매일만나 365 (주님은 나의 최고봉)
3:00	00 7000마라톤 - 열방을 향하여 50 은혜로운 찬송이야기	00 아버지 나의 아버지	00 [Global Sermon] J.D. Greer's The Life Of David 30 [말씀] 유영렬 목사(와싱톤중앙장로교회)	00 울포원	00 만나 워십
4:00	00 클래식 생명의 말씀-김선도 감독 20 오늘의 양식 30 스프링하우스	00 새벽을 깨우는 기도 30 새벽을 깨우는 말씀 예배교회 조권희 목사 55 365 새벽기도 생방송 1부	10 [말씀] 박성근 목사(남가주새누리교회)	00 CBS 성서학당 (김기석) 50 CBS 교회소식	00 말씀 관동 이음 목사의 성경 맥잡기 40 힐링토크 회복 플러스

DAILDAIL



금리까지 이렇게 달달하나

매달 급여만 이체해도 최대 연 3%

(세전 기본 연 0.1%)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한함)

급여는 생활비 및 연금 포함!

유진^이의 달달하나는?

편의점, 쇼핑, 카페,
뷰티샵, 간편결제...
너무 다양해도 고민!

급여이체 신규 손님이라면 연간 6만원 상당의 쿠폰 혜택을!

대상 | 이벤트 기간 내 달달 하나 통장을 개설하고 급여를 받으시는 신규 손님
기간 | 24.12.31까지



달달 하나 통장 가입시 100만 하나머니의 행운을!

참여기간 | 24.06.21(금) ~ 24.07.31(수)

당첨자 발표 | 24.08.14(수) 예정

이벤트 보러가기



[상품안내] 1. 상품명: 달달 하나 통장 2. 가입대상: 만 14세 이상 개인(1인1계좌) 3. 예금과목: 저축예금 4. 금리: 최저 연 0.1%~최고 연 3.0% ▶ 기본금리: 연 0.1% (2024.06.05기준, 세전) ▶ 우대금리: 최대 연 2.9% (2024.06.05기준, 세전) 이벤트의 조건 충족 시 매월의 최종 잔액 중 2백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 우대금리를 제공 ①급여이체 우대금리 연 1.9% ②특별이벤트 우대금리 연 1.0% ※ 급여이체 인정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입금 시, 급여 적요(급여, 월급, 봉급, 상여, SALARY, BONUS 등)를 포함하여 입금되거나 사전등록한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 내 자금이 입금되는 월의 다음달에 제공됩니다(단 타인으로부터 이 통장에 입금된 건에 한함) 단, 4대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보훈연금, 산재연금(산재재해보상 보험급여)은 금액과 지정일이 상관없습니다 ※이자계산방법: 이자계산기간동안 매월의 최종잔액에 고정금리를 적용한 일별이자를 합산하여 지급 - 이자계산기간: 예금일(또는 인가일)부터 인가일(또는 지급일) 전날까지의 기간 - 이자결산일: 매월 제3공요일 - 이자지급(인가일): 이자결산일의 익영업일 ※ 특별이벤트 우대금리는 이 예금을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1년이내만 제공됩니다 ※ 기본금리는 가입일에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www.kebhana.com)에 게시한 기본금리를 적용하며 가입시점의 기본금리 변동 및 우대금리 충족요건에 따라 최고 금리가 변동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매달 제공되는 달달하나초이스 혜택은 급여이체 신규 손님에 한해 제공됩니다 ※ 달달하나초이스 혜택 쿠폰은 상품 가입 다음날부터 총 13개월 동안 전월 급여실적에 따라 최대 12회(월 1회) 제공되며, 쿠폰의 종류는 월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시) 24년 6월 가입시, 24년 7월~25년 7월 기간동안 전월 급여실적 있을 경우 쿠폰 선택 가능(최대 12회) ※ 매달 제공되는 달달하나초이스 혜택은 급여이체 실적 충족일 익일에 제공되며, [머니원큐 > 계좌관리 > 달달하나초이스 혜택]에서 원하는 쿠폰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 달달하나초이스 쿠폰은 제공일 1일~말일까지 쿠폰미선택시 해당일의 쿠폰은 자동소멸됩니다(이월불가) ※ 쿠폰은 선택 완료 후 [머니원큐 > My하나 > 쿠폰관리]에서 확인 가능하며, 쿠폰별 유효기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달달하나초이스 혜택 대상자가 계좌제지 후 달달하나통장 재신규시에는 달달하나초이스 혜택 제공이 불가합니다(최초 가입계좌만 가능) ※ 상품가입최소 30만원 한정으로 이벤트 초기종료 될 수 있습니다 ※ 계좌에 압류, 가압류 등이 등록될 경우 연금 및 이자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민사집행법에 따라 최저생계비 이하 압류금지채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신청 등을 통해 압류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예금잔액증명서 발급 당일 잔액변동 불가입니다 ※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5천만원까지"(본 은행의 여타 보호상품과 합산) 보호됩니다 ※ 금융소비자는 해당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하여 설명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하나은행 고객센터(1599-1111)로 문의 부탁드립니다 ※ 본 홍보물은 법령 및 내부통제기준에 따른 절차를 거쳐 제공됩니다 ※ 본 홍보물은 2024년 7월 31일까지 유효합니다. 유효기간 이후에는 게시물 관리 기록 목적으로 유지됩니다 ※ 은행연합회 심의필 제 2024-02488호 (2024.06.20~ 2025.06.19) ※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24-광고-04986 호(2024.06.18)/CC브랜트240610-0080